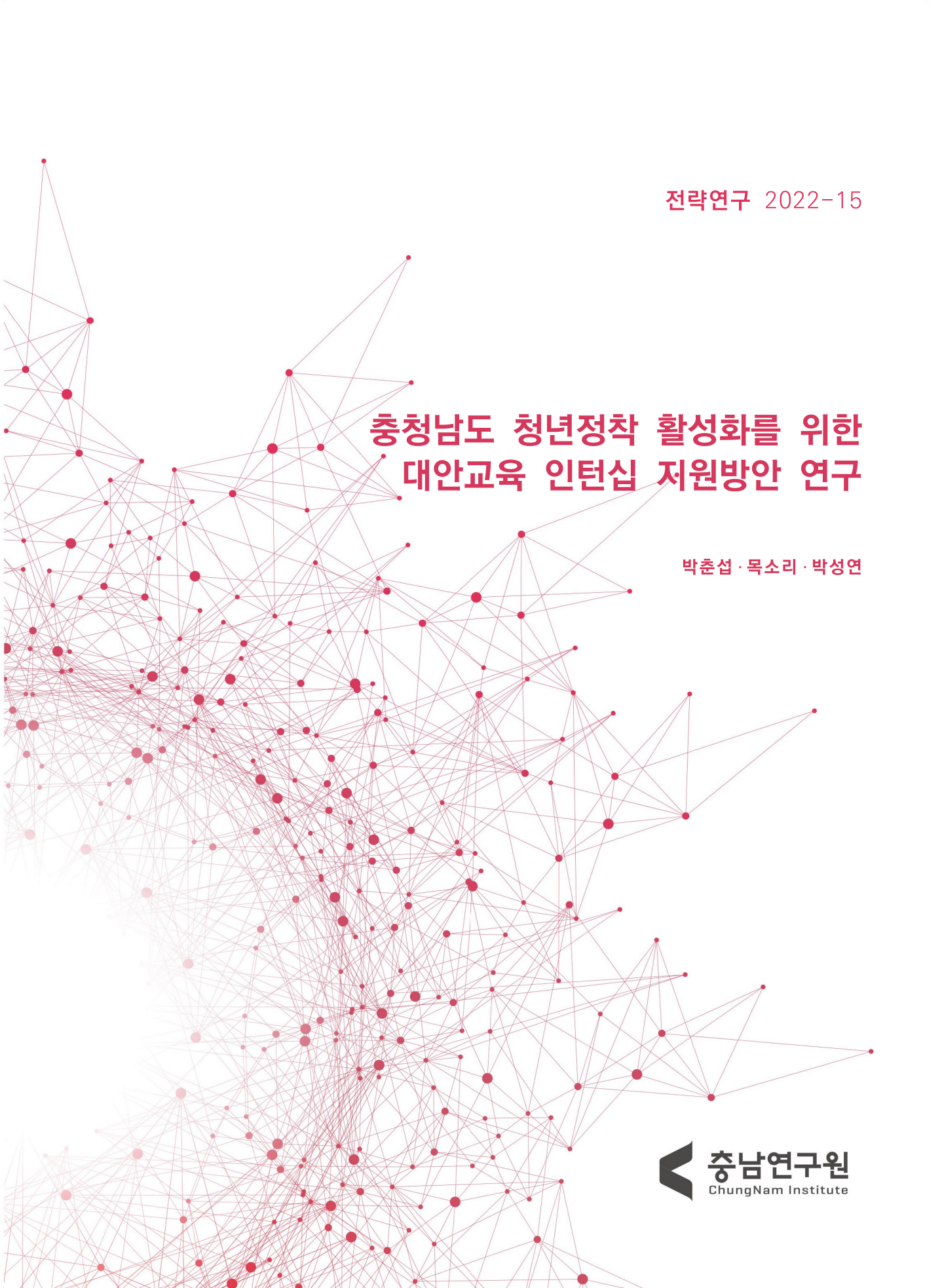




전략연구 2022-15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 인턴십 지원방안 연구

박춘섭 · 목소리 · 박성연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청년정착 방법론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방법, 즉 청년들의 니즈, 즉 일자리, 주거 등 외적 환경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내적인 동기의 기능성과 전략을 탐색하였다. 연구에서의 내적 동기란 장소적 유대감에 따른 정주의지를 말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적동기를 활성화하고 장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대안 학교)과 인턴십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탐색 및 확인하고, 관련하여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사업을 제안하였다.

우선 연구는 충남 청년현황·정책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충남의 청년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세에 있다. 또한 청소년인구(9세~24세)와 학령인구(만6세~21세)의 비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규모가 작은 군 단위(남부권)의 지역 유출은 심각했다. 순유출은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이상 많았다. 또한 충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고교졸업자)의 경우, 지역 정착(회귀)¹⁾의 비율이 56%로, 서울과 경기권의 청년 정착(회귀) 77%, 78%와 비교하면 20%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충청남도의 청년정책 방향(원칙)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비전)’ 및 방법론으로, 미래탐색(교육)→진입(취·창업)→정착(주거·복지·문화)의 프로세스로 청년정착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청년정착·유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껏 추진되어 온 일자리기반 노동시장 관점의 정책이 지방의 청년정착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급여·복지·인지도 등의 요소(청년선호일자리)가 결합 된 ‘좋은’ 일자리이지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시스템적 한계 때문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론으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의향²⁾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요인 외 가족, 생활양식, 사회적 자본을

1)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 중 충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충남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현재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을 지역정착(회귀)한 청년으로 표기

2) 또는 회귀하고 싶다는 의향

고양하는 방법(비경제적 요인 활성화)을 뜻한다(엄창환 외 2018, 김재홍·도수관 2020). 이와 같은 방법은 장소성, 즉 장소 맺기와 연관되는데, 장소는 생활세계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Relpa 1976). 장소성을 고양하는 방법론으로 ①학습(장소기반교육), ②지역사회 참여 경험, ③인턴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Powers 2004, 황여정 2017, Smith 2002), 특히 인턴십은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로 장소성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유의미하다(조수진 외 2015).

3장에서는 대안학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94개교, 비인가 대안학교는 287개교가 운영 중이다. 충남에는 인가형 대안학교 4개교, 비인가 대안학교 14개교가 운영 중이다. 대안학교는 승자독식의 과잉경쟁교육 방법에 대한 대안적 교육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정책화를 통해 특성화 학교 → 인가형 대안학교 → 등록형 대안학교와 같은 정책적 틀을 제시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공교육의 안티테제로서의 교육과정의 핵심인 다양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법론 유지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대안학교 내에서 지속되어 아직도 비인가를 고수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 동시에 학생 개인으로 볼 때, 대안교육 기관의 선택은 당사자에게 삶의 경로에 큰 선택이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은 진로교육에 적극적이며, 현장체험→인턴십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프로젝트)이 활발하게 모색되어 왔다.

4장에서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안학교의 메트스쿨(the met school)은 인턴십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유명하다. 메트스쿨은 지역의 공교육기관의 실패를 인턴십기반 교육방법으로 성공시켰다. 지역학교 졸업률 56%, 대학진학률 38%인데 비해 메트스쿨의 졸업률 95%, 대학진학률 98%로 그 성과를 입증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교육방법론과 철학(리얼월드러닝)이 활용되고 있다. 메트스쿨의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방법론은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기반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메트스쿨의 졸업반의 경우 공동체 기반한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는 공동체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게 한다. 충남에 위치한 금산간디학교는 인턴십기반 교육방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2015년 이래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창업과 청년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은

실제생활의 경험을 통해 지역정착에 대한 관심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자신감)를 제공했다. 따라서 금산은 그들에게 애착하는 ‘장소’가 되고, 다양한 실험(활동)과 창업을 통해 지역정착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졸업생들의 정주는 많을 때는 약 20여명의 졸업생이 금산에 남아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매년 졸업규모(약 20명)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인턴십 프로그램의 정책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금산간디학교(Anker기관)와 교사(인턴십 매니저, Connector), 다양한 지원정책(충청남도 청년학교, 세어하우스)과 선배들의 정주라는 요소들은 지역정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산간디학교 출신들이 만든 들락날락협동조합의 경우 인턴십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K-2 International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확대된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대안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금산간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안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인턴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턴십 기간은 1주~1개월 정도 가장 많았다. 주요 인턴십 기관은 문화예술, 사회복지, 공익단체(NGO) 등 이었다. 인턴십은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재학생 58.3% 긍정응답). 특히 여건이 되면 충남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재학생의 66.7%로, 적극적인 인턴십 발굴이 필요하였다.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학생은 재정적 지원(83.3%), 대안학교 관계자는 기업관리 및 연계지원(91.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충남의 정주를 위해서는 재학생은 창업·취업지원(75%), 관계자는 주거지원(91.7%)을 선택했고, 중간지원 기관에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대면조사를 통해서는 인턴십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청소년들에게 ①새로운 일 경험, ②도전의식 고양, ③지역사회 관심제고, ④지역사회의 참여 및 기여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계로는 ①인턴십 현장부족, ② 지역 사회 및 담당교사의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담당교사의 역량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장 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즉 시스템적이지 않고 인적자원에 따른 변동이 존재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담한 정책 목표(비전 및 방향)를 제안하였다.

인턴십으로 충남청년 1만명 정착

비전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충남의 청년들(나고자란 청년 및 유입된 청년)이 충남에 정착하는 것으로 삼았다. 물론 청년정착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도 모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략과제는 크게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된다. 정책의 특성상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과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표로, ①인턴십 도입 및 현장발굴, ②충남형 갭이어 운영, ③청소년 인턴수당 지급을 제시한다. 중장기 과제는 ①인턴십 플랫폼 구축, ②충남청년 회귀센터 운영, ③충남형 대안학교 지원을 제시하였다. 우선과제는 소프트웨어 지원적인 성격인데 반해 중장기과제는 인프라 기반의 구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점과제의 우선과제-중점과제는 축적과 확장이라는 관계성을 지닌다. 인턴십현장과 멘토발굴 축적 및 확장을 통해 충남형 인턴십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남형 갭이어 운영의 축적 및 확장으로 충남청년 회귀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청소년 인턴수당 지급의 축적과 확장을 통해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략과제

① 우선과제

소프트웨어·추진용이·긴급



인턴십 도입·자원발굴

- 교육과정으로서 도입촉진(시범)
- 인턴십현장(인턴스터디업)
- +멘토(인턴마스터)
- +교사발굴



충남형 갭이어II 운영

- 현재 충남의 지역청년 대상
- 충남소재 고교+인턴십 수요자
- 장기(~1년) 등 선택지 확대



청소년 인턴지원

- 재정적지원 必(83.3%)
- 현재 제도 대상인원 한정
- 인턴 당사자+교사+멘토지원

② 중장기과제

인프라·시간필요·확장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 현장·멘토발굴 및 DB관리
-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홍보
- 중심으로 중간지원이 아닌 플랫폼
- 대안교육기관 등 위탁운영
- 앱 중심(lmBlaze 참고)



충남청년회귀지원센터

- 일본 고향회귀 관심 확대
- 일본 다양한 센터 운영 중
- 코로나19, 원격근무 등 수요확대
- 귀환청년 종합서비스 (주거+일자리)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

- 헌법 제31조 교육 기회
- 서울 대안학교 지원
- 학교재정+급식비+직무역량 등
- 조례개정: 청소년정주활동 지원학교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1. 주요내용	8
2. 연구방법	9
 제2장 정책 및 선행연구	11
제1절 충남 청년인구와 경제활동	11
1. 청년인구	11
2. 청년이동	14
3. 청년경제활동	20
4. 청년구직희망	23
제2절 청년정책 동향	28
1. 우리나라 청년정책 특징	28
2.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1. 청년유입과 정착연구	36
2. 일 경험(work experience)으로서의 인턴십	41
3. 장소유대감과 획득방법	43
제4절 시사점	46
1. 청년정착을 위한 전환적 발상	46
2. 대안교육 인턴십의 연구적 의의	47
 제3장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분석	49
제1절 대안교육기관 정의와 특징	49
1. 대안교육기관이란	49

2.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50
3.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52
제2절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현황	57
1.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57
2. 대안교육기관 현황	58
제3절 대안교육기관의 특징과 시사점	60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특징과 진로	60
2. 시사점: 제도(틀)과 실험사이	62
제4장 사례분석	63
제1절 미국 공립 대안학교 ‘메트스쿨(The Met School)’	63
1. 개요	63
2. 메트스쿨의 인턴십 특징	63
3. 메트스쿨 인턴십의 시사점	66
제2절 비인가 대안학교 ‘금산간디학교’	67
1. 개요	67
2. 인턴십 교육과정 특징과 현황	67
3. 인턴십의 성과 I)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착	73
4. 인턴십의 성과 II) 대안학교와 지역연계 확대	77
제3절 사회적기업 ‘K-2 International’	80
1. 개요	80
2. K-2인터내셔널의 사업특징과 현황	80
제4절 시사점	83
제5장 실태조사	85
제1절 조사개요	85
1. 조사목적 및 방법	85
2. 조사내용	85
제2절 인터뷰조사	86
1. 운영자대상 결과	86
2. 졸업생대상 결과	92

제3절 설문조사	94
1. 재학생대상 설문결과	94
2. 관계자대상 설문결과	99
제4절 시사점	105
제6장 정책제언 및 과제	107
제1절 기본구상	107
1. 정책 필요성	107
2.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110
제2절 전략과제	111
1. 인턴십 도입 및 자원 발굴(→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구축)	111
2. 충남형 갭이어 II 운영 (→ 충남청년 회귀지원센터 운영)	114
3. 청소년 인턴지원 (→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	117
제3절 결론 및 향후과제	119
1. 결론	119
2. 향후과제	122
참 고 문 헌	124

표 차 례

[표 1]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1
[표 2] 청년 연령별 순이동	2
[표 3] 대구형 청년보장제 이행단계별 주요내용	5
[표 4] 충남 시군별 인구 및 청년인구 비교	13
[표 5] 충남 성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15
[표 6]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	16
[표 7] 경제활동 현황	20
[표 8] 시군별 경제활동 현황	21
[표 9] 청년 성별 구직희망 직종	24
[표 10] 청년 구직희망 고용형태	25
[표 11] 청년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26
[표 12] 청년 구직희망 근무지역	27
[표 13]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리스트	30
[표 14] 충청남도 청년정착 사업 리스트	34
[표 15] 대구시 청년귀환프로젝트 사업리스트	35
[표 16] 인턴십 구분	41
[표 17]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차이	41
[표 18] 인턴십 유사개념	42
[표 19]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2022년)	53
[표 20]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현황(2022년)	54
[표 2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현황(2022년)	54
[표 22] 비인가 대안학교 전국 현황	55
[표 23] 충청남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별 현황	58
[표 24] 충청남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별 학생수 현황	58
[표 25] 충청남도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59
[표 26] 대안교육과정 특징	61
[표 27] 금산간디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트스쿨 자료(학교에 대한 기대)	71

[표 28] 최근 5년간 인턴십 교육과정 참여학생수와 참여현장	71
[표 29] 금산간디학교 인턴십현장 현황(최근 5년)	72
[표 30]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청년활동·기간·현황	75
[표 31] 금산간디학교가 수행한 지역프로젝트	77
[표 32]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연도별 활동내용	79
[표 33] K2 인터내셔널 사업부문	81
[표 34]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지역정주 경험	83
[표 35] 청소년 인턴 지원내용(예시)	117

그림 차례

[그림 1] 지방이주고려 지역규모 및 이주가능 도시규모	4
[그림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단계	10
[그림 3] 10년 단위 충남인구의 변화	11
[그림 4] 충청남도 인구 및 청년인구 비교	12
[그림 5] 충청남도의 청년이동 현황	14
[그림 6] 시군별 청년 인구가동(순이동) 현황	15
[그림 7] 충청남도 전입 및 전출 현황	17
[그림 8] 시도간 전입지 및 전출지	17
[그림 9] 청년들의 전입 및 전출사유	18
[그림 10] 권역별 청년이동 비율	19
[그림 11] 시군별 경제활동 현황	20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 현황	22
[그림 13]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22
[그림 14] 청년 구직희망 직종	23
[그림 15] 청년 구직희망 고용형태	24
[그림 16] 청년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26
[그림 17] 청년 구직희망 근무지역	27
[그림 18] 서울시 청년보장의 방향	28
[그림 1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체계도	29
[그림 20] 청년의 지방탐색, 이주, 정착과정	36
[그림 21] 청년의 이주경험 단계	37
[그림 22] 장소 유대감의 구성과 관계	44
[그림 23] 메트스쿨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	64
[그림 24] 빅픽처러닝의 10가지 특징	65
[그림 25]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3년 교육과정 표	68
[그림 26]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69
[그림 27]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70

[그림 28] 금산간디학교 졸업생의 창업공간	75
[그림 29] 금산간디학교의 지역 교육 네트워크	78
[그림 30] K-2 인터내셔널 청년사업 범위	81
[그림 31] k-2 인터내셔널 지원범위 및 방법	82
[그림 32] 인턴십 지역	94
[그림 33] 인턴십 기관	95
[그림 34] 인턴십 후 진로결정 도움여부	95
[그림 35] 인턴십 후 지역관심 증대여부	96
[그림 36] 충남에서 인턴십 의향여부	96
[그림 37]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사업	97
[그림 38] 인턴십 지원기관의 필요여부	97
[그림 39] 졸업후 금산(충남) 정주의향	98
[그림 40] 지역정주에 필요한 지원	99
[그림 41] 인턴십 지역	99
[그림 42] 인턴십 기간	100
[그림 43] 인턴십 기관	100
[그림 44] 희망 인턴십 경험여부	101
[그림 45] 희망 인턴십기관 경험하지 못한 이유	101
[그림 46] 인턴십의 진로결정 도움여부	102
[그림 47] 대안학교학생 충남 정주희망 현황	102
[그림 48] 인턴십 후 지역관심 증대여부	103
[그림 49] 인턴십 후 지역정주 관심증대 여부	103
[그림 50] 정주촉진 정책사업분야	104
[그림 51] 인턴십 활성화 필요지원 분야	104
[그림 52] 인턴십 중간지원기관 필요여부	105
[그림 53] 충남 인턴십 플랫폼(안)	113
[그림 54] 가미야마정의 기업귀촌 사례 I	116
[그림 55] 가미야마정의 기업귀촌 사례 II	116
[그림 56] 어드바이저의 역할	118
[그림 57]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	119

제1장 연구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행정안전부 고시(21년 10월)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 중 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표 1]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이는 충남도 시군의 60%가 지역소멸의 위기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 8개 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증감률의 경우 -0.4%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인구감소는 201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이동(률)의 경우 0.4%로 순유입이지만, 청년층(15~39세)만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4,731명으로 순유출 상태이다³⁾. 인구구조를 살펴볼 때 심각한 것은 유소년 비율과 조출생률의 감소로, 유소년 비율(0~14세)은 20년 전 1993년 22.0%에서 2021년 12.8%까지 떨어졌다. 또한 조출생률(천명 당) 역시 1993년 12.0명에서 5.2명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입, 특히 청년유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표 2] 청년 연령별 순이동

구분	총전입(A)	총전출(B)	순이동 (C=A-B)
계	123,765	128,496	-4,731
남 성	67,974	69,141	-1,167
여 성	55,791	59,355	-3,564
15~19세	12,517	13,041	-524
20~24세	24,490	27,666	-3,176
25~29세	34,410	35,240	-830
30~34세	27,547	27,448	99
35~39세	24,801	25,101	-300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청년유입(이주)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대응은 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일자리전략과 연관되어 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우, 노동시장(노동력)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출의 원인으로 취업가능성과 임금의 격차, 기업규모 등의 경제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인구유입(청년정책 포함)을 위한 많은 정책메뉴는 일자리전략에 집중된다. 그러나 안타

3)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2,800명)과 아산(203명)은 순유입이며, 타 시군은 순유출상태이다.

갑게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은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의 본사의 91%, 1,000대 기업 본사의 71.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업 및 정보업은 서울 중심으로 집중 되어 있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대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가깝고 인력수급이 쉬운 일부 지역 외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⁴⁾. 노동시장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은 구인이 어려운 곳이므로 기업들이 꺼려지는 곳이며, 또한 유치된 산업단지의 일자리 역시 단순생산직, 열악한 노동조건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청년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엄창욱 외, 2018).

이는 비단 일자리문제 뿐만 아니다. 지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제공하는 교육 제공 및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어렵다. 또한 창업(벤처)을 위한 수요와 자금 역시 서울 및 판교의 벤처밸리에 집중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지방이 할 수 있는 정책 메뉴는 많지 않다. 지방의 청년유입정책을 연구한 박진경·김도형(2020)은 그린뉴딜과 같은 새로운 전환적 사업 및 사회적경제 기반한 창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는 지방에서 제공 가능한 인프라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 정책사업의 상당부분은 공간/센터구축 등에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대도시의 그것에 비해 열위에 있고, 결국 셀프메이킹(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적인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지방은 일자리·교육·문화향유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하고,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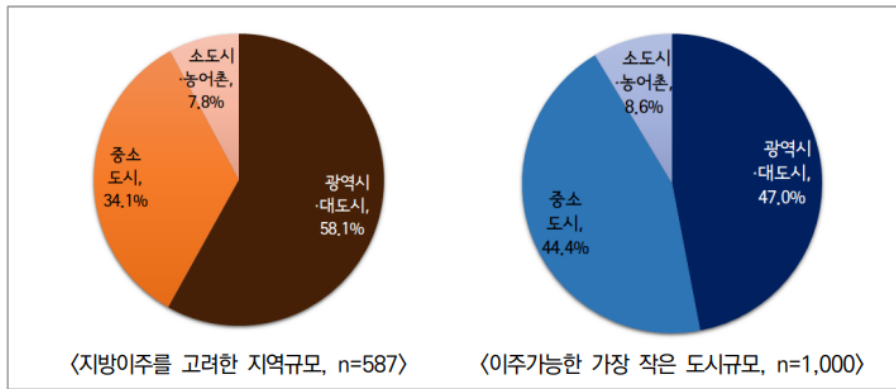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지방은 새로운 도전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일까? 유감스럽게도 청년에게 있어서도 지방은 그리 관심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특히 지방의 소도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박진경·김도형(2020)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청년들⁵⁾중 지방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청년은 58.7%로, 그들의 지방이주는 대도시중심(58.1%)이다. 소수(7.8%)만이 소도시를 선택하였다⁶⁾. 이주가능 도시규모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4) 아산의 경우, 창원 성산구와 함께 수도권의 지역으로 일자리 질 지수 상위 그룹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아산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5) 수도권 거주 1000명 청년(19~39세) 조사

6) 중소도시는 인구30~50만 내외의 도시, 소도시 및 농어촌은 인구 10~20만이하의 지역을 의미

[그림 1] 지방이주고려 지역규모 및 이주가능 도시규모



출처: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그리고 김재홍 외(2018)의 조사에서도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은 27.8% 정도 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본의 조사(2014)에서도 비슷하다. 설문대상자(동경거주자)의 4%만이 지방이주를 예정하거나 검토한다고 답했다(마쓰나가 게이코, 2015). 설문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에서도 2016년 이후 군지역 이하의 이주는 하락추세이다(김정섭 외, 2018)7). 이렇듯 지방은 청년에게 관심이 가는 이주처가 아니다.

그렇다면 소수이긴 하지만, 지방이주의 희망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희망적인, 그 무언가 새로운 활력(운동)을 만들어낼 주체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이것도 긍정적이지 않다. 지역 살이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도시 이주를 고려한 청년들은 55.1%가 일반기업(IT 등 기술창업회사 포함)을 희망하였다. 또한 창업의 경우 카페, 외식업 등 일반창업이 62.7%로 높았다8)9).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 관련조직(16.0%), 영농조합(7.5%)등 관심도가 낮았다. 즉 지방에서 고민하는 농업의 문제, 또는 새로운 활력(사회적경제, 혁신창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 김재홍 외(2018)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경우 지방이주를 고려한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란 급여수준, 복지수준, 직장분위기,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한 일자리로, 일자리가 있다는 것으로 청년들의 이주결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엄창욱 외(2018)의 연구에서도

7) 2015년 7.5%에서 2018년 6.3%로 하락

8) 박진경·김도형(2020)의 조사

9) 일본조사에서도 지방이주의 청년선호 역시 중소기업(37.1%), 기술창업(28.0%)로 농업(9.8%) 순이었다.

(대구)청년들의 귀환의 장애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일자리의 부재이며, 또한 지방의 수직적 기업문화, 직장환경의 열악성, 인적 기반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대구시 청년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귀향을 위해서는 적정한 연봉수준¹⁰⁾과 직장의 안정성을 꼽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년의 지방이주를 정책적 고민은 일자리 전략에서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과 지방의 매력(지역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조성철 외 2019, 마쓰나가 게이코 2015). 특히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삶과 관련되어 청년마을학교 정책은 대표적이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은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데, 대구형 청년보장제와 같이 사회진입시기의 청년(20대~)과 결혼, 육아기의 청년(30대~)의 니즈를 구분하는 생애주기기반 정책사업이 대표적이다.

[표 3] 대구형 청년보장제 이행단계별 주요내용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	프로젝트	지원방향	지원정책(프로그램)
대학생 (교육기→사회진입기)	청년도전 프로젝트	대학생활 지원, 취업준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대학생의 사회진입역량제고	글로벌인재양성 취/창업지원 대학생활지원
취준생·알바·니트 (사회진입기→직업기)	청년희망 프로젝트	졸업생이 구직포기자 등 장기 니트(NEET)화 되지 않도록 사회진입 활동 집중지원	대구형 청년수당 진로탐색 일경험 청년알바돌봄
취업·창업 청년 (직업기→안정기)	청년행복 프로젝트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창직 등 다양한 사회진입경로 지원과 결혼, 주거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자산형성 창업 및 창직 결혼 및 주거 예술가 지원
지역활동청년 (전주기)	청년자강 프로젝트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대구의 도시와 사회를 무대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 지원	공간조성 사회참여 지원기반강화 청년문화
출향청년 (전주기)	청년귀환 프로젝트	학습과 현장체험으로 대구청년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출향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홍보	대구청년 정체성찾기 청년유입지원

출처: 경기도 일자리재단(2020) 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10) 지금 받고 있는 연봉수준을 의미

그러나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들은 도시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지방만들기만이 방법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이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 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들은 지방에 이주해서도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청년니즈를 지방소도시에서 충족할 수도, 아니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외부)청년들의 니즈, 즉 외적 환경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청년들의 내적인 동기를 구축해 가는 방법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청소년기에 지역매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지역의 매력은 지역활성화에 중요하다. 지역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시책과 시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매력적인 요소(정책)들은 쉽게 벤치마킹되어 그 매력이 반감되곤 한다. 이는 행정의 속성, 공익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성질 때문이다. 즉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만족)을 주는 것, 이러한 속성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곤 한다¹¹⁾.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나(정책대상 개인)에게 매력적인 것을 만드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매력 되는 지역, 즉 장소적 유대감¹²⁾을 가지게 하는 정책설계가 유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청년들에게 장소적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관으로서의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과 인턴십 교육과정은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착 활성화관점에서 대안교육 기관 및 활동을 분석하고, 전략적 활용방안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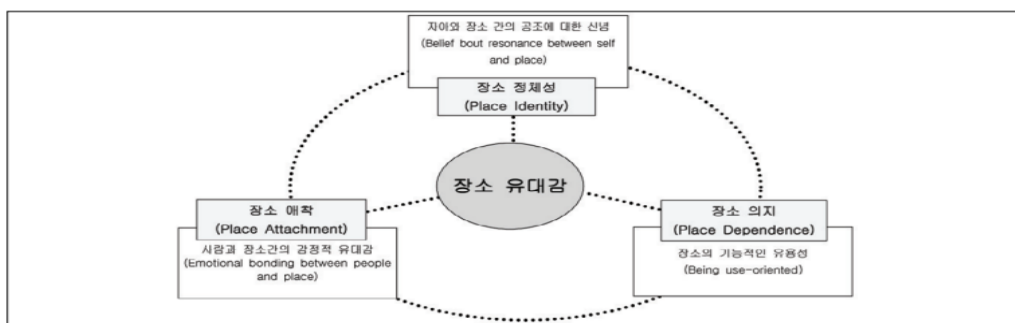
물론 현재도 청년들에게 장소적 유대감을 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00에서 한달살기’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1) 특히 비슷한 관광시설(예, 출렁다리 등)을 지자체가 경쟁적인 설치함으로써 매력의 저하를 경험한다.

12) Nilsen-Pincus(2010)에 따르면, 장소감은 사람과 감정, 인지 및 행동이 포함된 장소적 유대감이며,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됨.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며, 장소 정체성은 자아와의 공조(resonance)신념으로 삶의 목적과 만족, 소속감 강화하며, 장소의지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의존하는 것을 말함(임은진 2011)

대안교육기관의 그것과 비교할 때, 절대시간과 경험의 질을 확실한 차이가 존재한다. ‘00에서 한달살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대상자는 과연 매력을 경험하고 ‘이 지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정책대상자에게 과연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는가? 또한 지역사회는 그들을 지역주민으로서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다행스럽게 실제 지역에 애착을 갖고 이주를 결정한다고 해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김정섭 외(2018)은 단계별과정과 5년의 기간을 제시하기도 한다¹³⁾.

대안학교인 금산의 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인턴십 프로그램(3년)은 그 가능성, 즉 청년에게 장소적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간디학교 고등과정을 경험한 청년들 중 다수가 창업과 지역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청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스스로 ‘이 지역에서 살아보겠다¹⁴⁾’는 장소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경험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대안교육기관의 가능성에 착목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3) 김정섭 외(2018)은 지방이주의 경험을 탐색, 이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지방이주는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전환이 아닌 과정임을 강조한다(정민철, 2019)

14) 2007년 개교후 지속된 인턴십프로그램의 결과로, 2019년 금산인삼축제를 들락날락 협동조합 및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연합이 운영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들의 장소적 유대감은 <우리 청소년 선언문>에서 나타난다.

“ 38회 인삼축제에서 금산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 문화난장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금산의, 충남의 청소년 청년들 모두의 활동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주요내용

이 연구는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가능성, 대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장성 검토, 전략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론·정책 및 사례조사, 관계자 FGI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 이론적 자료

- 이론검토: 1)청년정착 2)장소유대감 등
- 정책동향 검토: 1)청년인구 현황 및 정착정책, 2)대안교육정책 등

■ 사례분석 및 정책수요

- 비인가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활동 분석
- 활동결과 및 요인 등 사례분석
- 설문조사: 대안학교 교사 대상

■ 관계자 FGI 및 세미나

- 경험 및 현황 공유
- 비전 및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개최

■ 정책방향 제시

-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 전략과제 제시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이론 및 정책 검토 등 문헌조사, 사례조사, FGI,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정책동향 검토 등 문헌조사를 통해 청년정주, 대안교육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 방향성(전략)에 대한 insight를 얻는다. 특히 대안교육 방법과 장소유대감 형성에 관한 교육 및 방향 전반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사례조사는 문헌분석·관계자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둘째, 관계자 FGI 및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관계자 FGI는 전문가, 청년 등으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보완사항, 정책적 요구 등 확인, 청년정착 활성화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의 방향성(및 과제), 설문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설문은 충남의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현황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의 교육모델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추진한다. 대안교육과 청년이주 전문가 등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현장성과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사업)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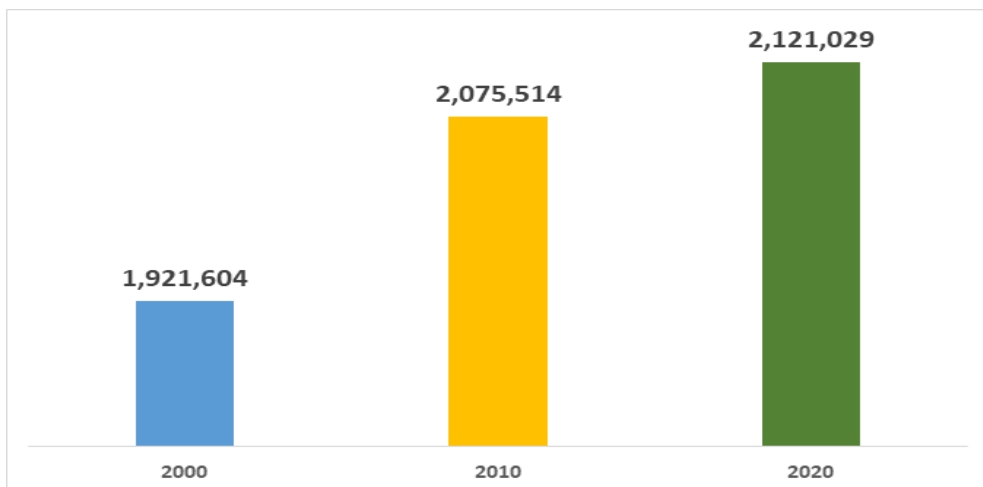
제2장 정책 및 선행연구

제1절 충남 청년인구와 경제활동¹⁵⁾

1. 청년인구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충남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 약 192만명에서 2010년 207만명으로 15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약 212만명에 그쳐 증가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충청남도는 여전히 인구증가 지역임을 확인되었다.**

[그림 3] 10년 단위 충남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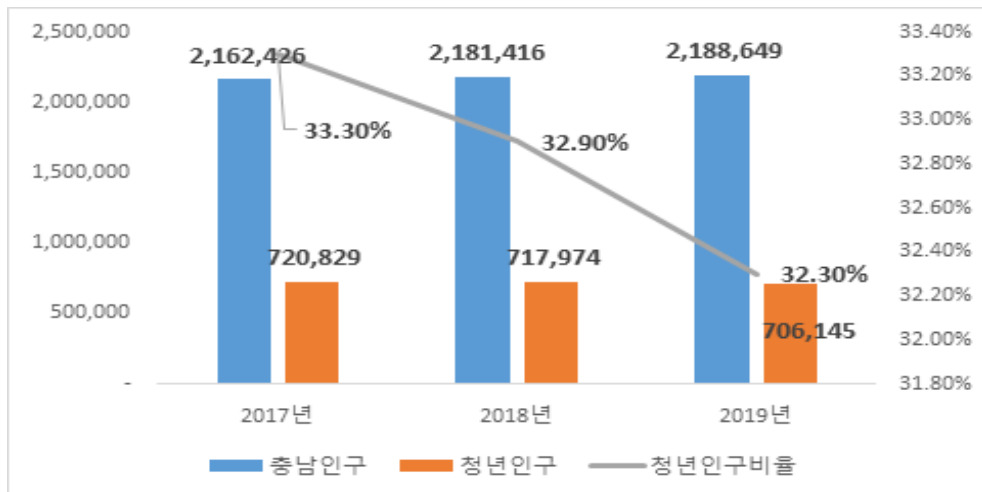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15)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작성

그러나 충남 청년인구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2019년 충남의 청년인구는 약 70만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72만명에서 2019년 70만명으로 감소하여 지속된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성별인구를 살펴보면, 청년인구 중 남성이 약 38만 6천명이며, 여성이 31만 9천명으로 남성 인구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는 청년인구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약 6천 6백명으로 청년인구가 적었다. 이는 청년인구가 유입보다 더 많은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유추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규모가 작고 청년들의 활동인프라가 미흡한 郡(郡)단위 지역유출이 심각했다.

[그림 4] 충청남도 인구 및 청년인구 비교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표 4] 충남 시군별 인구 및 청년인구 비교

구분	충청남도 인구(A)	비율	청년 인구(B)	비율	청년인구 비율(B/A×100)
계	2,188,649	100.0	706,145	100.0	32.3
천안시	679,743	31.1	261,658	37.1	38.5
공주시	109,877	5.0	32,527	4.6	29.6
보령시	99,320	4.5	24,834	3.5	25.0
아산시	347,032	15.9	130,346	18.5	37.6
서산시	175,204	8.0	52,171	7.4	29.8
논산시	122,111	5.6	34,279	4.9	28.1
계룡시	41,153	1.9	11,667	1.7	28.4
당진시	169,171	7.7	51,645	7.3	30.5
금산군	54,442	2.5	14,512	2.1	26.7
부여군	65,337	3.0	13,590	1.9	20.8
서천군	51,826	2.4	10,333	1.5	19.9
청양군	30,783	1.4	6,614	0.9	21.5
홍성군	102,791	4.7	29,621	4.2	28.8
예산군	78,963	3.6	18,602	2.6	23.6
태안군	60,896	2.8	13,746	1.9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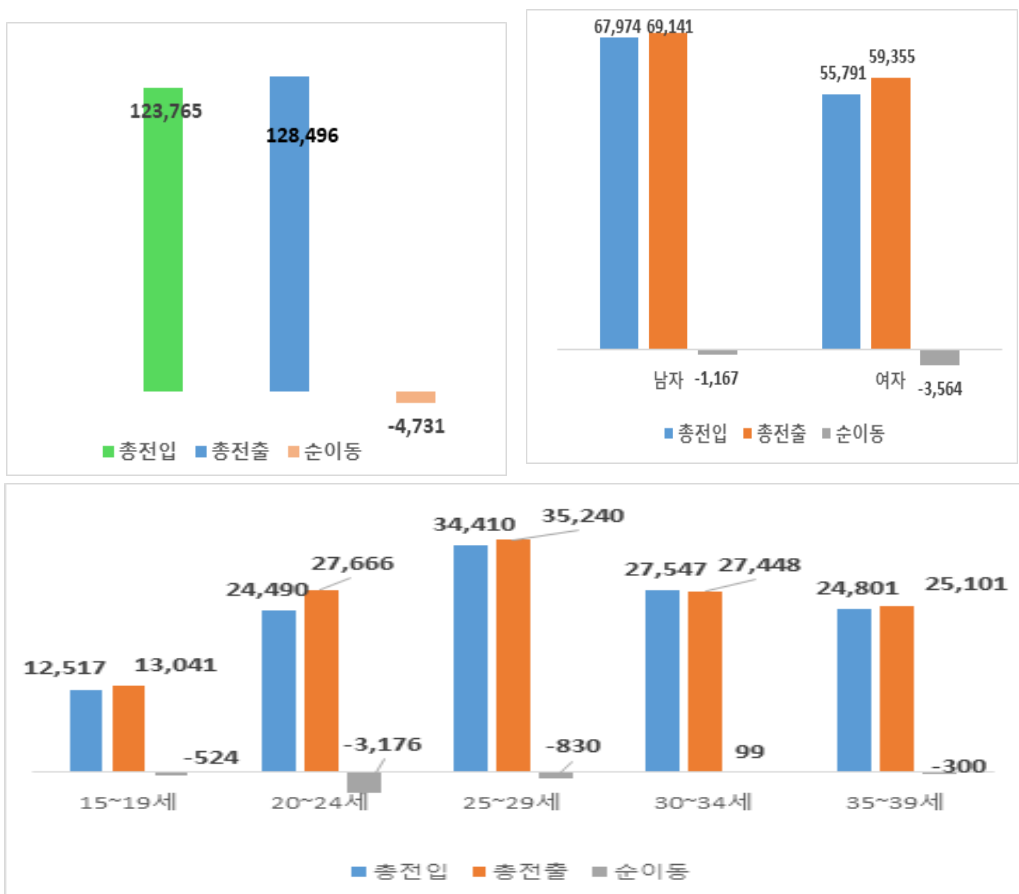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충남의 각 시군별로 보면, 시군지자체의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안시가 38.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충남의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32.3%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다음으로 아산시가 37.6%, 당진시가 30.5% 등의 순이었으며, 서천군이 19.9%로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적었다. 우리가 통상 충청남도의 북부권이라 부르는 천안·아산·서산·당진지역의 청년인구는 충남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청년인구 쏠림현상은 명확히 존재한다.

2. 청년이동

충남 청년의 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총전입은 약 12만 3천 여명이며, 총전출은 12만 8천여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3천 5백여명, 남성의 순유출 규모는 1천여명 수준으로 여성 순유출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편이다.

[그림 5] 충청남도의 청년이동 현황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청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30~3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에서 순유출 규모는 3천여명으로 가장 컸다. 주된 이유는 대학진학(교육) 혹은 취업(직업)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30~34세에서는 순유입이 99명으로 총전출보다 총전입이 많은 유일한 연령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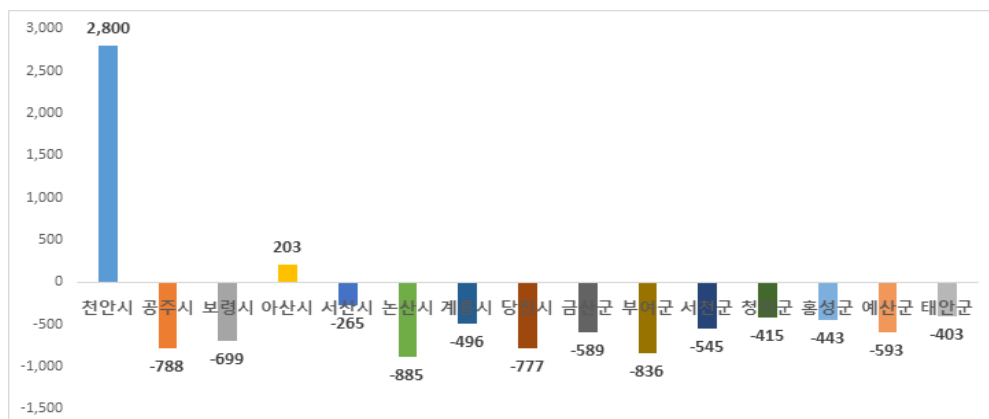
[표 5] 충남 성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구분	총전입(A)	총전출(B)	순이동 (C=A-B)
계	123,765	128,496	-4,731
남 성	67,974	69,141	-1,167
여 성	55,791	59,355	-3,564
15~19세	12,517	13,041	-524
20~24세	24,490	27,666	-3,176
25~29세	34,410	35,240	-830
30~34세	27,547	27,448	99
35~39세	24,801	25,101	-300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지역별로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만 순이동은 양수(+)로 이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순유입이 나타났고, 그 밖에 다른 시군에서는 모두 음수(-)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논산시(-885)와 부여군(-836), 공주시(-788) 등의 순으로 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시군별 청년 인구이동(순이동) 현황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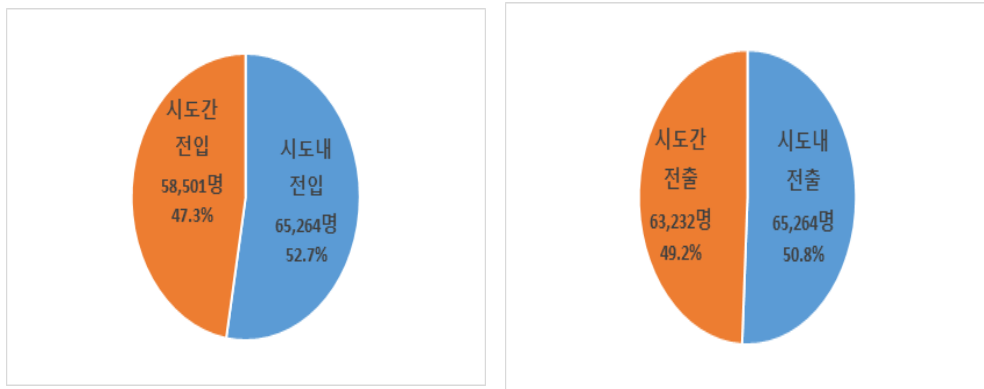
[표 6]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계	123,765	128,496	-4,731
천안시	51,142	48,342	2,800
공주시	5,541	6,329	-788
보령시	4,831	5,530	-699
아산시	19,353	19,150	203
서산시	10,215	10,480	-265
논산시	5,521	6,406	-885
계룡시	3,212	3,708	-496
당진시	8,251	9,028	-777
금산군	1,548	2,137	-589
부여군	1,911	2,747	-836
서천군	1,364	1,909	-545
청양군	1,308	1,723	-415
홍성군	4,621	5,064	-443
예산군	2,623	3,216	-593
태안군	2,324	2,727	-403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충남 청년의 전입인구 12만 3,765명 중 충청남도 내 지역에서 이동한 시도내 전입은 약 6만 5천여명으로 52.7%를 차지하고, 타 시도 지역으로부터 이동한 시도간 전입은 약 5만 8천여명으로 47.3%를 차지하였다. 전출인구 12만 8,496명 중 시도내 전출은 시도내 전입과 같은 약 6만 5천여명으로 50.8%를 차지하였고, 시도간 전출은 6만 3천여명으로 49.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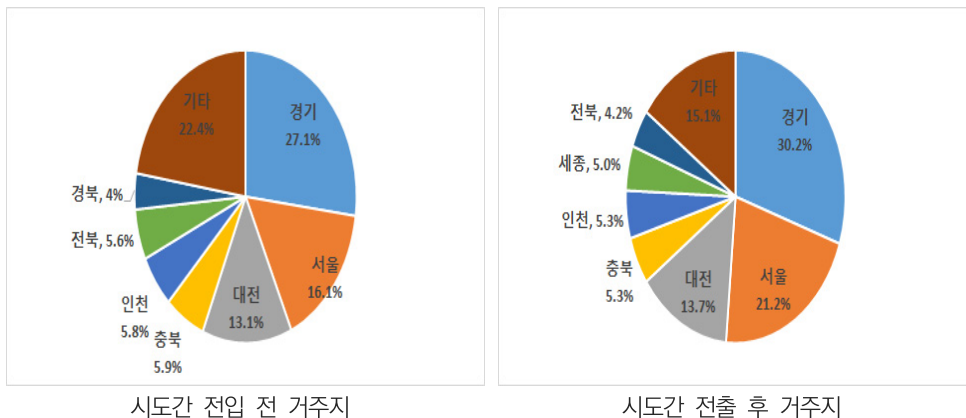
[그림 7] 충청남도 전입 및 전출 현황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청년인구의 이동 중 시도간 전입 및 전입 부분에서 타 시도 지역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청년의 전입 전 거주지는 경기도 27.1%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1%, 대전 13.1%, 충북 5.9%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을 제외하고 주로 근교에 있는 타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출 부분에서는 타 시도 지역으로 전출한 청년의 전출 후 거주지로는 역시 경기도 30.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1.2%, 대전 13.7%, 충북 5.3% 등의 순이었고 전출은 근교의 대도시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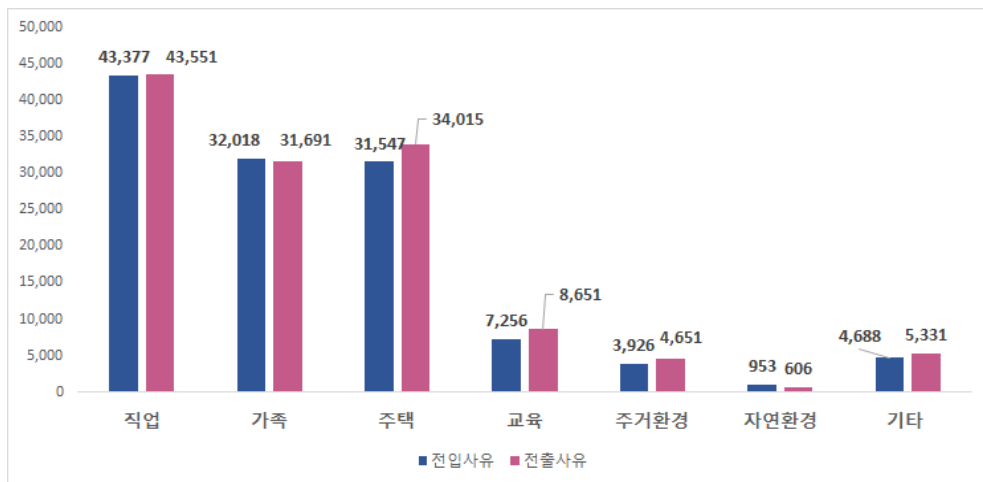
[그림 8] 시도간 전입지 및 전출지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그렇다면, 청년들이 전입과 전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요인은 직업이 각각 35.0%(전출)와 33.9%(전입)로 가장 많았다. 즉,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주변의 대도시로 전출하거나 일자리를 잡아서 충남에 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입요인으로는 가족이 25.9%, 주택이 25.5%등의 순이었고, 전출요인으로는 주택 26.5%, 가족 24.7%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건데 청년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등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9] 청년들의 전입 및 전출사유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그렇다면 충남의 대졸자들의 이동은 어떠한가? 오정아(2020)은 2017년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를 통해 충남의 대학졸업자의 취업 지역 이동 실태 및 이동에 따른 경제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출신학교 기준으로 5가지 이동경로¹⁶⁾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서울 및 경기권은 지역고교-대학의 경우 현재 거주지 같은 경우는 40%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지만, 고교-타 지역 대학의 회귀 경우(□4)가 36~37%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16) □ 1 고교, 대학, 현재 주거가 모두 같음
 □ 2 고교와 대학 소재 지역은 다르지만 대학 소재 지역과 현재 주거 지역 같음
 □ 3 고교와 대학 소재 지역은 같지만 현재 주거지는 다름
 □ 4 고교와 대학 소재 지역이 다르고, 현재 주거지는 다시 고교지역으로 회귀
 □ 5 고교, 대학, 현재 주거가 모두 다름

□ 1과 □ 4는 출신지역과 현재 주거지역이 같은 경우, 서울·경기권은 각각 77%, 78%, 경상권은 73%로 매우 높았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각각 63%, 64% 수준을 보였다.

[그림 10] 권역별 청년이동 비율



출처: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오정아 외 (2020)

충청남도 지역 고교 졸업생의 이동은 □1(충남고교-충남대학-현주거지)는 44%, □2(충남고교-타지역 대학-타지역 거주) 18%, □3(충남고교-충남대학-타지역이동)은 16%, □4(충남고교-타지대학-충남 회귀) 12%, □5(충남고교-충남대학-타지역거주) 10%이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졸업한 56%의 청년이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서울권과 경기권이 77%, 78%로 지역에서 남거나 회귀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2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청년경제활동

2019년 기준 충청남도 청년 취업자는 상반기에 39만 7천여명이며 고용률은 57.6%였다. 이는 전국고용률 57.5%보다 0.1%p 높았으나, 하반기 취업자는 39만 6천여명으로 고용률은 57.9%로 상반기 보다 0.4%p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0.6%p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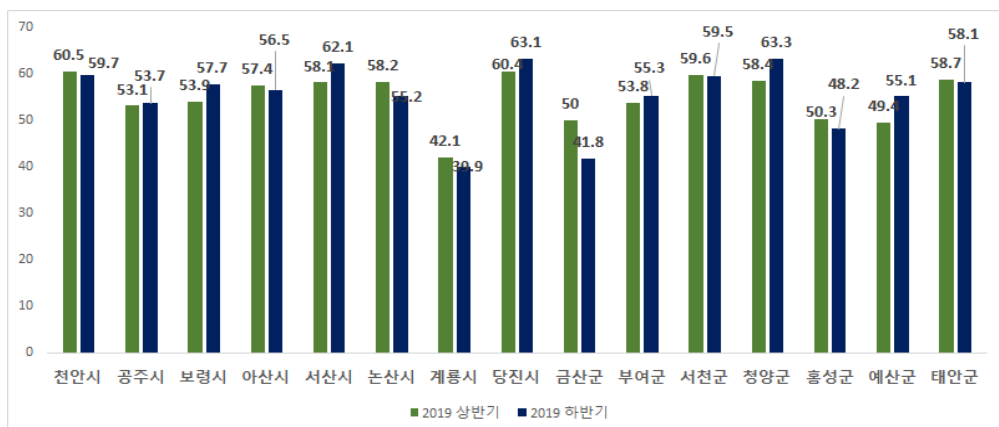
구분		청년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2019년 상반기	전국	16,389	10,170	9,432	57.5	6,219
	충남	689	424	397	57.6	265
2019년 하반기	전국	16,267	9,992	9,513	58.5	6,275
	충남	684	415	396	57.9	270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시군별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청년 고용률이 천안시 60.5%로 가장 높았으며, 당진시가 60.4%, 보령시가 59.9% 등의 순이었다. 하반기에는 청양군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 63.1%, 서산시 62.1% 등의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시군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표 8] 시군별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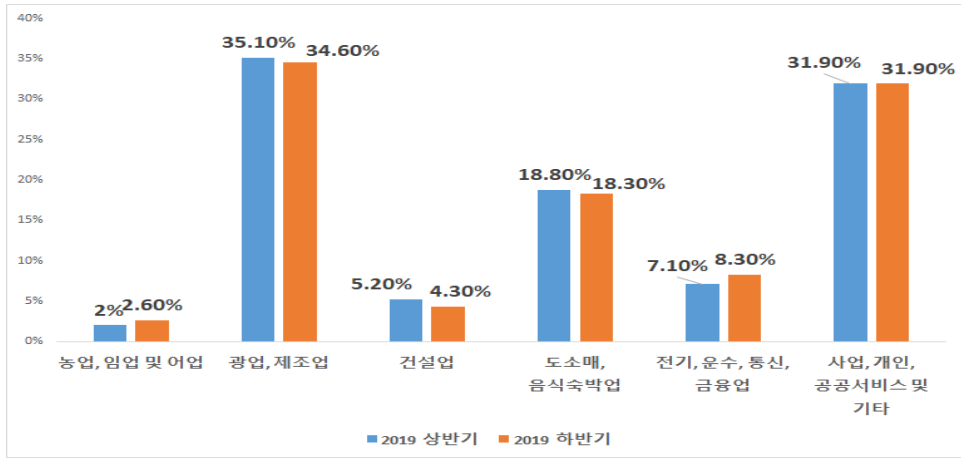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천안시	165	156	60.5	160	154	59.7
공주시	18	17	53.1	18	1	53.7
보령시	15	14	59.9	14	14	57.7
아산시	78	74	57.4	75	72	56.5
서산시	31	29	58.1	32	31	62.1
논산시	19	18	56.2	18	17	55.2
계룡시	5	4	42.1	4	4	39.9
당진시	32	31	60.4	33	32	63.1
금산군	8	8	50.0	6	6	441.8
부여군	8	7	53.8	7	7	55.3
서천군	6	6	59.6	6	6	59.5
청양군	44	4	68.4	4	4	63.3
홍성군	6	15	50.3	15	14	48.2
예산군	9	9	49.4	10	10	55.1
태안군	13	7	58.7	8	7	58.1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광업·제조업에 취업한 비중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에 31.9%,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18.8%등의 순이었다.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로 광업·제조업에 취업한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 31.9%,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18.3%로 상반기보다는 조금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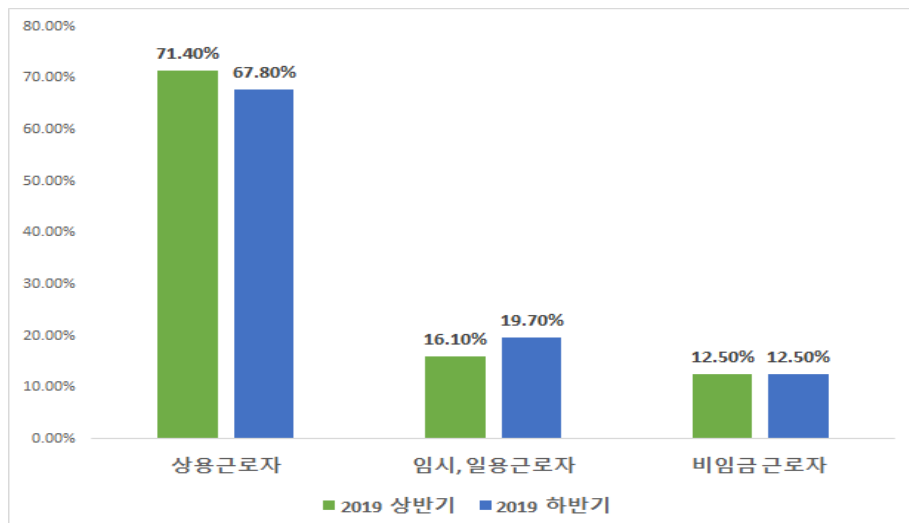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 현황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청년 취업자 중 종사자 지위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상반기에는 상용근로자 71.4%이며, 임시·일용 근로자가 16.1%였으나, 하반기에 상용근로자 67.8%로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9.7%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3.6%p 증가하였다.

[그림 13]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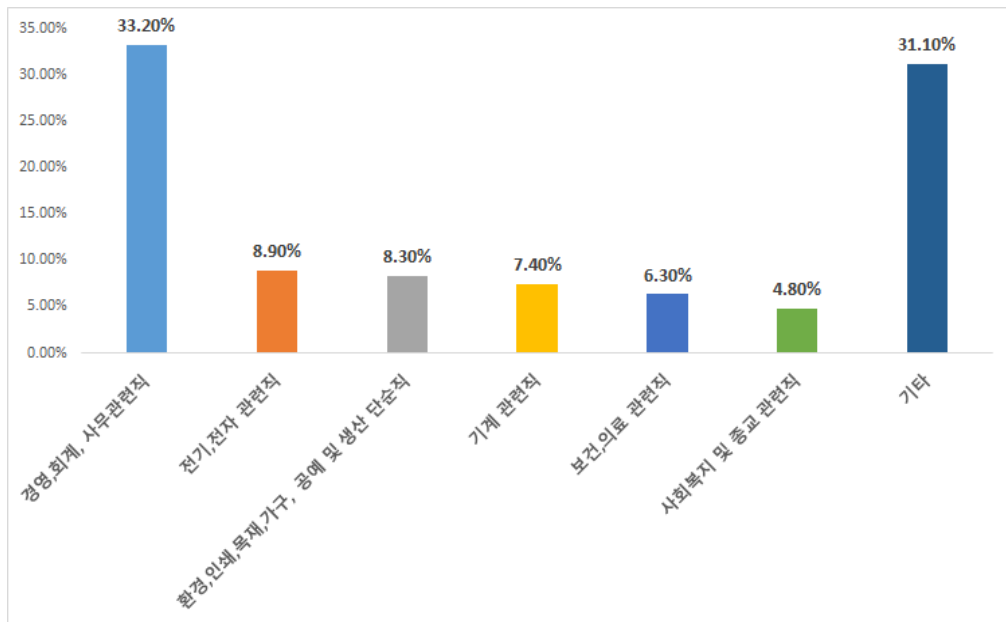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4. 청년구직희망

구직신청을 한 충남의 청년중 33.2%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희망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 관련직이 8.9%,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8.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을 45.5%로 가장 많이 희망했던 반면, 남성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을 희망하는 청년이 16.3%로 상당한 희망구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의 경우 전기·전자 및 기계관련직이 30.2%로 관련업종에 대한 구직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청년 구직희망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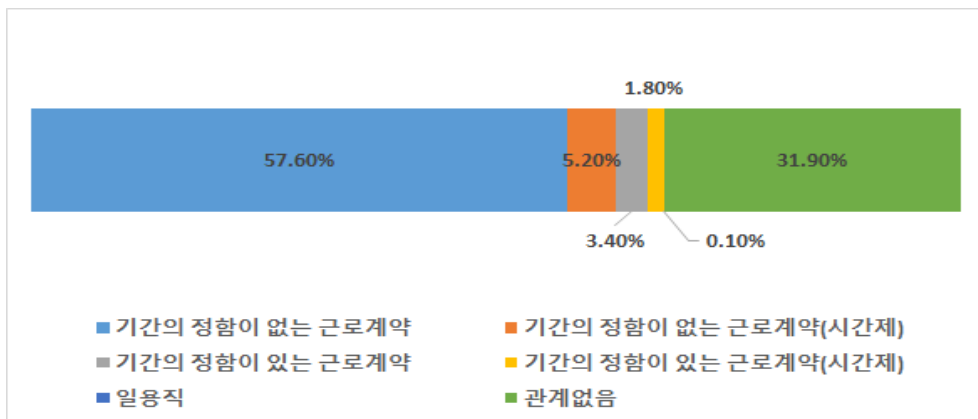
[표 9] 청년 성별 구직희망 직종

구분	계	남자	여자
	67,719	25,426	39,29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2,493 (33.2%)	4,633 (16.3%)	17,860 (45.5%)
전기·전자 관련직	6,043 (8.9%)	4,389 (15.4%)	1,654 (4.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5,611 (8.3%)	3,219 (11.3%)	2,392 (6.1%)
기계관련직	4,983 (7.4%)	4,194 (14.8%)	789 (2.0%)
보건·의료 관련직	4,294 (6.3%)	290 (1.0%)	4,004 (10.2%)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3,228 (4.8%)	411 (1.4%)	2,817 (7.2%)
기타	21,067 (31.1%)	11,290 (39.7%)	9,777 (24.9%)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청년들의 구직희망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하는 청년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관계없음도 31.9%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하는 비중이 63.1%로 여성 53.6%보다 9.5%p 높았으며, 여성은 관계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3.4%로 남성 31.9%보다 1.5%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청년 구직희망 고용형태



[표 10] 청년 구직희망 고용형태

구분	계	남자	여자
	67,719	28,426	39,29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38,992 (57.6%)	17,927 (63.1%)	21,085 (53.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3,553 (5.2%)	916 (3.2%)	2,637 (6.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319 (3.4%)	879 (3.1%)	1,440 (3.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1,200 (1.8%)	230 (0.8%)	970 (2.5%)
일용직	80 (0.1%)	13 (0.0%)	67 (0.2%)
관계없음	21,575 (31.9%)	8,461 (29.8%)	13,114 (33.4%)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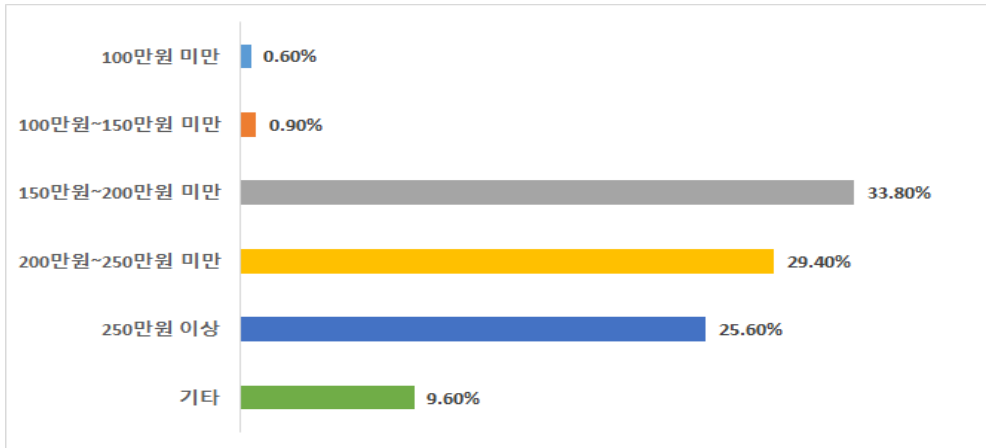
청년들의 월평균 희망임금은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250만원 미만이 29.4%, 250만원 이상이 25.6%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희망임금은 250만원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희망임금은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46.4%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4년제졸취준생 희망연봉이 3,200만원으로 월 250만원이었다¹⁷⁾.

그런데 여성의 희망임금은 100만원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경력단절과 그로 인한 취업 업종의 한정(보건 및 사업복지업무, 도소매업 등)등 으로 추정되며¹⁸⁾, 따라서 낮은 임금을 희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력단절 여성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17) 잡코리아 조사- 4년제 취준생 707명을 대상으로 신입직 취업시 희망연봉수준 설문조사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9067)

18) 한국고용정보원(2019) 청년여성의 경력단절 경험과 임금효과 보고서 및 인터넷 기사 참조([단독] 249만원 vs 199만원... 경력단절여성 임금차 월 50만원 달해-국민일보 (kmib.co.kr))

[그림 16] 청년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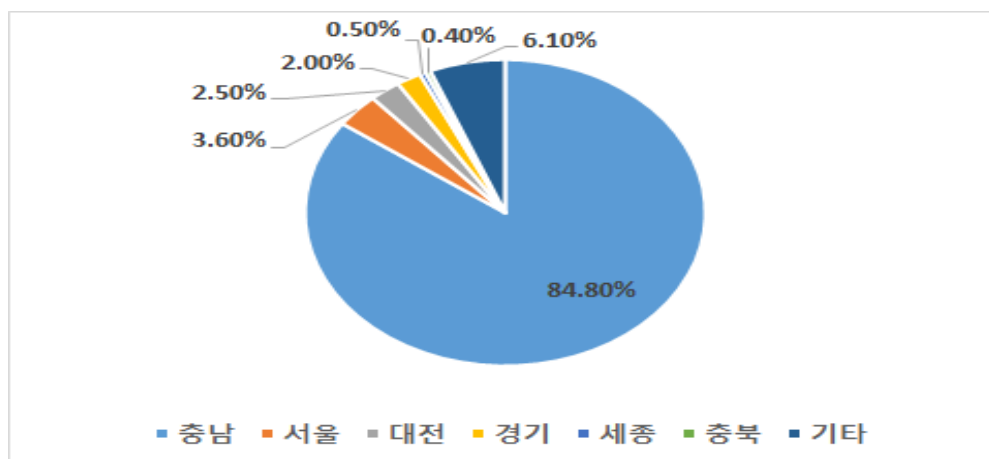
[표 11] 청년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구분	계	남자	여자
	67,719	28,426	39,293
100만원 미만	432 (0.6%)	141 (0.5%)	291 (0.7%)
100만원~150만원 미만	637 (0.9%)	97 (0.3%)	540 (1.4%)
150만원~200만원 미만	22,873 (33.8%)	4,642 (16.3%)	18,231 (46.4%)
200만원~250만원 미만	19,909 (29.4%)	8,372 (29.5%)	11,537 (29.4%)
250만원 이상	17,348 (25.6%)	12,072 (42.5%)	5,276 (13.4%)
기타	6,520 (9.6%)	3,102 (10.9%)	3,418 (8.7%)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중 과반수 이상인 84.8%가 충남도 내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15.2%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은 청년들의 전입 및 전출 사유에서도 확인했듯이 지역정착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7] 청년 구직희망 근무지역



[표 12] 청년 구직희망 근무지역

구분	계	남자	여자
	67,719	28,426	39,293
충남	57,440 (84.8%)	22,725 (79.9%)	34,715 (88.3%)
서울	2,461 (3.6%)	1,030 (3.6%)	1,431 (3.6%)
대전	1,711 (2.5%)	914 (3.2%)	797 (2.0%)
경기	1,384 (2.0%)	782 (2.8%)	602 (1.5%)
세종	315 (0.5%)	139 (0.5%)	176 (0.4%)
충북	291 (0.4%)	185 (0.7%)	106 (0.3%)
기타	4,117 (6.1%)	2,651 (9.3%)	1,46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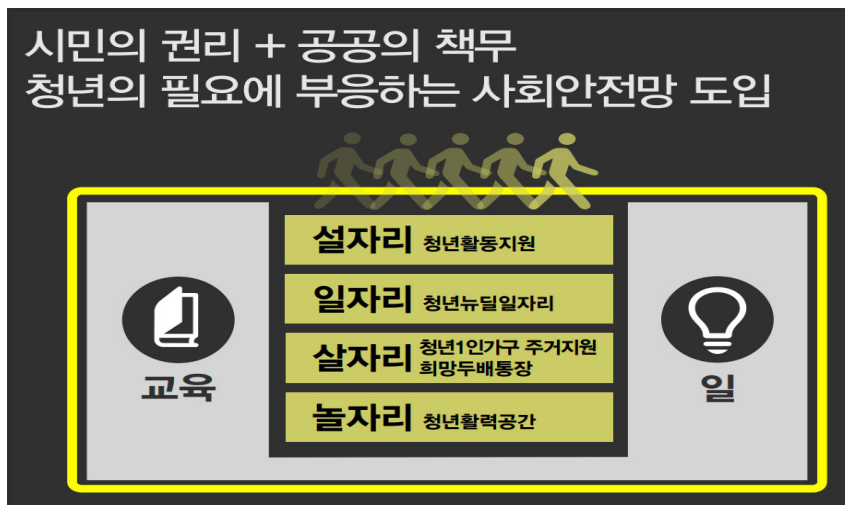
출처: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연보」, 충남도청(2019)

제2절 청년정책 동향

1. 우리나라 청년정책 특징

청년정책은 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¹⁹⁾을 기반으로 사회이행기(진입기)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정책(job guarantee)으로 추진되었고, 우리나라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 등 청년고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사회이행기의 정책 사각지대의 발생한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청년들의 생활안정의 측면, 즉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적용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움직임에 호응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을 수립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의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림 18] 서울시 청년보장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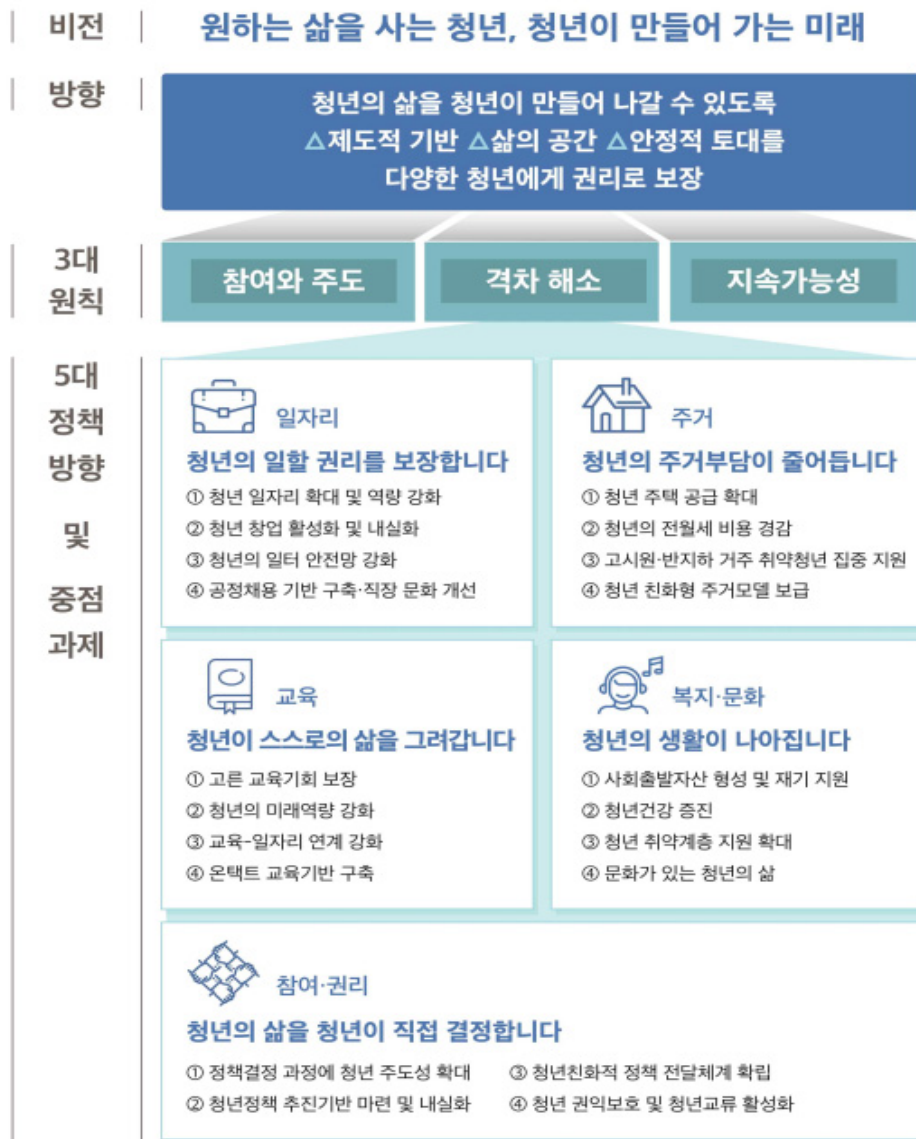
출처: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자료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성의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행기의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19) 정규교육 종료 및 실업상태 이후 4개월 이내의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이는 N포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의 기본적 삶을 누리고 미래에 주역이 되게 하는 사회적 투자개념으로 제도화 했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별 중점사업은 아래와 같다.

[그림 1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체계도



출처: 제1차 청년계획 기본계획

2.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

충청남도 역시 위와 같은 청년의 기회보장·위기극복·자립지원을 선제적 사회투자로 인식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비전)’을 위한 청년들이 지역정착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미래탐색(교육)→진입(취·창업)→정착(주거·복지·문화)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분야는 총 5개 분야 74개과제로, 일자리분야(34개사업), 주거분야(5개), 교육분야(7개), 복지·문화분야(12개), 참여·권리분야(16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989억원(21년)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 예산액 기준으로 각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일자리분야(34개, 471억)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0억),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48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43억) 등이며, ②주거분야(5개, 328억)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263억),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28억), 충남학사관 운영(31억) 등이며, ③교육분야(7개, 35억)은 미래인재육성 장학금(14억),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조성(12억),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2.5억)이었다. ④문화·복지분야(12개, 137억)은 청년희망계좌 운영(41억),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20억), 청년문화예술가 육성(18억),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19억) 등이며, ⑤참여·권리분야(16개, 18억)은 지역청년멘토육성지원(5.6억),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2.5억), 노동 권익센터 운영(2.1억원) 등 이었다. 아래의 표는 21년 충청남도가 시행한 청년사업이다.

[표 13]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리스트

과제명	추진 부서	주요내용	예산액 (백만원)
5개 분야 74개 과제			98,933
I. 일자리 분야(34개)			47,14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지원	18,573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청년정책과	미취업 청년 대상 지역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	4,864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39세 이하 충남청년에게 도내 스타트업 기업 채용 지원	3,846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청년정책과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선도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	3,282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과	도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 지원	909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소상공기업과	직접지원(창업자금 최대 1,500만원) 간접지원(창업프로그램, 멘토링, 공간 등)	544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공동체정책과	청년-공익단체간 1:1 매칭으로 공익활동 체험기회 제공	269
충남형 디지털 뉴딜일자리 청년키움사업	청년정책과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2,370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사회적경제과	도내 청년활동가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452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사회적경제과	도내 청년도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755
충남 일자리 소통 공간 잡 카페 운영	청년정책과	충남지역 청년에게 취창업 정보 제공	450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사업	청년정책과	대학일자리센터(호서대)에 취업희망자 상담 및 지원	30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노동 정책과	취업장려금 지원, 취창업 공모전, 맞춤 상담 알선 취업	462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운영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예산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	청년정책과	도내 청년들과 기업들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취업지원	68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국제통상과	사업참여 대학생의 수출기업 활동 실습 지원	150
청년농업인 2040 심층컨설팅	농업정책과	심층컨설팅 제공 및 성과관리를 통한 피드백	33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훈련농장(멘토), 영농인턴(멘티) 교육비 지원	100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교육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발굴 및 농업인력 육성	61
신규후계농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신규후계농업인에게 멘토링, 워크숍, 스터디그룹, 벤치마킹 등 지원	62
청년농업인 연구 복지 동아리 지원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연구 및 복지동아리 지원을 통한 영농정착	51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768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공통)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4,360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자체)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구축 및 개선, 장비구입)	1,678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기반 조성, 교육 등	180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영농 초기 실패 최소화를 위한 시설 하우스 임대, 컨설팅	600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76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소상공기업과	기업 브랜드 육성 관련 마케팅·판로 및 홍보지원	89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	소상공기업과	마을의 폐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345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소상공기업과	광역단위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470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기업과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에게 창업 초기 운영자금 지원(융자추천, 이자지원)	80

전통시장 고령화 극복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소상공기업과	상인 창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홍보 등)	940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어촌산업과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정착지원금 지급	229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직원채용 관련 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전파	비예산
Ⅱ. 주거 분야(5개)			32,833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건축도시과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26,337
청년 농촌 보급자리 조성사업	농촌활력과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2,830
충남대전, 서울학사관 운영	교육법무 담당관	대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3,116
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청년정책과	기존 건물 임대하여 소규모 리모델링비, 월세 보조	85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정책과	전월세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및 이자 보조	465
Ⅲ. 교육 분야(7개)			3,472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교육법무 담당관	차세대 인재육성지원	1,420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지원	교육법무 담당관	지역청년 역량강화 지원	80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조성	정보화담당관	디지털 청년인력육성 -인공지능(AI), 블록체인(BC)교육	1,250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식량원예과	청년농부 교육, 선진지견학 지원	133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사업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영, 품목별 전문 교육 지원	249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정책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동아리 활동 지원	255
청년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청년정책과	도내 계약학과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2개교)	85
Ⅳ. 복지·문화 분야(12개)			13,686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과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	4,197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과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일자리 창출	125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출산보육 정책과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자립수당 지원	2,083
충남청년의 날	청년정책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행사 개최 (청년토크, 특강, 부스 운영 등)	45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에게 교육·문화·레저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700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72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13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공보관	충남 대표 크리에이터 양성	213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문화정책과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1,808
충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공공 액셀러레이팅, 실감콘텐츠 XR 인력 양성, 입주기업 스케일업 등	1,960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문화정책과	청년 창의인력 양성, 문화 융복합 콘텐츠 발굴, 창작 지원 등	1,650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문화정책과	인프라 지원, 청년예술가 음악 창작·제작 지원프로그램 운영	620
V. 참여·권리 분야(16개)			1,796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정책과	청년 위원 50% 이상 위촉,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의결	12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정책과	청년 관련 위원회 청년 위원 10% 이상 위촉	비예산
충남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정책과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개발과 청년간 소통망 조성	30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청년정책과	청년과의 소통·공감채널 다양화,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 등	7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과	제1차 기본계획 의거 21년 시행계획 수립	비예산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청년정책과	시·군 청년친화정책 사업 평가, 우수 시군 인증 및 포상금 지급	20
청년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청년정책과	청년 정책 및 정보 제공 (일자리, 청년활동, 복지·문화 등)	비예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청년정책과	청년 다목적 공동 공간 조성	25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정책과	청년자립 및 지역활력 제고	100
지역청년멘토사업 육성지원사업	청년정책과	청년멘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	567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살기술학교)	공동체정책과	일하면서 한 달 살기,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공동체 만들기 등	200
청년 자원봉사 콘텐츠 기획단 육성	공동체정책과	청년들의 현장중심 자원봉사 사례 공유, 볼런투어(voluntour) 추진 등	25
청년 금융경제 교육사업	청년정책과	청년의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178
노동권익보호관을 통한 노동권익교육	일자리노동 정책과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제공	31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보호	일자리노동 정책과	도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218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정책과	타시도 청년 대상으로 생활공간, 지역교류활동, 일자리체험 등 2~4주간 충남에 살아보는 프로그램 운영	153

출처: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과 시군간의 청년정책의 격차해소라는 2개의 중요한 정책적 니즈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충청남도는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연대(Solidarity)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년간의 연대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청년사업의 중요한 원칙임에도 충남의 원칙으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은 점, 목표에 따른 전략사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정책적 아쉬움이 존재한다.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 분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멘토 육성, 청년공동체, 충남형 갭이어 등이 있으며, 청년정착의 관점에서 사업을 분류하면, 공간- 지원인력- 프로그램- 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착의 관점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착관점에 집중하여, 집중과 연계협력 등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14] 충청남도 청년정착 사업 리스트

사업명	내용	특징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목적: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활동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알기와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 예산액: 229.5백만원 - 사업규모: 청년학교(시군별1개소) 및 청년커뮤니티(시군별4팀)운영	교육프로그램 (청년니즈·지역향)
청년 활력공간 청년LAB 운영	목적: 도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통 공간 마련, 지역 활력 제고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 사업규모: 4개소(금산, 서산, 청양, 아산)	교육 교류공간 구축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	목적: 지역청년 멘토를 육성하여 청년관련 정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액: 567백만원 · 사업규모: 5개시군	교육 지원인력양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에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산액: 100백만원 · 사업규모: 10개팀, 활동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역향)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충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중인 충남 외 지역 청년에게 2~4주 동안 주거·생활공간과 지역교류 활동, 일자리 체험 등 제공 - 예산액: 153백만원 · 사업규모: 3개시군(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75명	교육프로그램 (지역향)
충남 청년 친화도시 인증제도	시군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기획·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 예산액: 20백만원 · 사업규모: 1개 시군 선정	제도구축

출처: 22년 청년정보(충청남도) 및 다이나믹충남청년 홈페이지(<https://youth.chungnam.go.kr/>) 발췌·수정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대구는 심각한 청년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구형 청년보장제). 대구시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생애이행과정(교육기 → 사회진입기 → 직업기 → 안정기)의 단계에 따라 교육소득 문화주거 등을 지원하는 정책메뉴로 구성하고 있다²⁰⁾. 대구광역시는 청년유입(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귀환프로젝트’로 명명한다. 교육 및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 지역 이주한 청년들의 귀환(출향청년U턴)을 목표로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유입지원사업과 정체성찾기 사업으로 구성된다. 유입지원은 **홍보와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찾기는 **지역이해를 기초로 평생교육, 대학 교양강좌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5] 대구시 청년귀환프로젝트 사업리스트

사업명		내용
청년 유입 지원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적: 지역으로 유입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정착지원 대상: 대구시로 전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목적: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타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구시민이라는 소속감 고취와 지역정착 유도 대상: 대구시로 전입한 대구관내 대학교 재학생
	청년귀환채널 구축사업	목적: 출향청년을 주대상으로 변화된 지역정보 및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입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유입 지원 추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정체성 찾기	대구경북지역학 교양강좌 개설지원	목적: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대구경북지역학 교양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부심 고취 추진: 대구경북연구원
	청년대구학교	목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능동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역정체성 확립 추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처: 대구 청년정책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발췌·수정

20) 표3 참조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유입과 정착연구

청년정착 및 유입은 지역의 인적자본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회적인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①청년이주 프로그램²¹⁾ 분석연구, ②청년유입 의향분석 및 촉진방안 등 연구와 ③ 출향청년의 U턴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1) 청년이주 프로그램 연구로, 정민철 외(2019)는 서울시 청년허브가 진행한 청년 경로탐색 프로젝트(일명, 별의 별 이주00)를 기반으로 도시 청년의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의 상생 및 교류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청년들의 경로탐색, 즉 그들의 지방탐색-이주-정착은 (삶의) 전환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수행한 프로젝트 운영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프로젝트의 중간지원 연결기능 확대, ②타 사업과 연계 가능성 모색(도농협력 및 마을만들기), ③ 프로젝트 운용기간의 확대, ④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호학습 및 전문역량강화 등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의 원칙(관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교육은 청년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즉 **정형화된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②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주체는 지역사회, 즉 민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0] 청년의 지방탐색, 이주, 정착과정



출처: 정민철 외(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확대 및 발전방안

21) 최종적으로 청년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 교류프로그램, 또는 경로탐색 프로그램을 통칭

김정섭 외(2018)은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외 지방이주 지원정책 및 지방이주 청년동기를 유형화하고, 정책사업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으로 이주 청년층의 비율이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분석한다. 또한 청년이주청년의 1~2년미만의 단기지원(일자리 등)은 불충분하며, 적어도 소득회복기간 5년의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방이주와 정착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경험을 한다고 분석하고, ① 탐색-이주-정착의 단계별 통합지원제공, ② 거버넌스 역량강화 ③ 학습과 확장의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1] 청년의 이주경험 단계



출처: 김정섭 외(2018) 청년의 지방 이주지원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2) 청년 이주의향 및 촉진방안 연구로, 박진경·김도형(2020)은 연구에서 청년세대의 선호공간 의향과 분석을 기초로 지자체의 청년정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지금까지의 청년유출과 대응전략을 **일자리문제 및 노동력 이동, 노동시장의 관점의 해결책이 지방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접근법은 지자체의 전략으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청년의 이주희망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①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 ②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③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④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⑤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는 ① 지역뉴딜기반 일자리 및 ②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③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소도시·농어촌지역 이주(정착)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의 소도시·농어촌 지역에 이주할 때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30.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사업화자금지원(17.3%)였다. 또한 선호하는 창업유형은 IT 등 기술창업(37.3%)보다는 카페, 외식업 등 일반 소상공인 등 **일반창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많았다. 또한 **청년플랫폼 등의 거점공간이 조성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일반 상업시설(32.4%), 창작 및 창업공간(19.5%), 엔터테인먼트 기능(16.9%), 문화공간(13.6%)** 순이었다.

엄창환 외(2018)은 청년의 생활과 지역격차의 관점의 조사분석을 기초로 지역간 청년층의 이동요인을 분석하고, 청년이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의 지역간 이동요인은 일자리요인(20대는 진로탐색, 30대는 일자리 요인이 중요)** 그리고 임금 및 근로복지 수준, 생활환경적 측면의 어려움이 청년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이동은 급여수준, 복지수준, 직장분위기, 사회적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의사가 없는 72.2%의 청년²²⁾, 즉 현재 지역에 머물고 싶은 의향을 가진 청년은 가족, 친구, 고향 등 사회적 관계망(34.9%)의 존재, 익숙한 심리적 안정감(33.1%)이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의 이탈은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지역 격차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동원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자체의 정책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인구 유지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방향으로 정립하고, 청년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 만들기 및 귀환 정착할 수 있는 환류의 길을 만드는 것이 단기간에 청년이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3) 출향청년의 U턴 연구로는, 엄창옥 외(2018)은 **대구청년의 유출과 귀환을 지역의 원심력(밀어내는 힘)과 구심력(끌어들이는 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 서울(수도권)이 가지는 구심력은 ① 우수한 교육환경, ② ‘능력자는 서울로’ 라는 인식, ③ 새로운 활로 탐색 등을 확인하였고, ④ 새로운 관계 및 문화적 환경에

22) 청년 500인 대상으로 지역이동 수요조사

대한 만족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상황에 대한 측면에 어려움과 같은 원심력도 작용한다. 반면 지역이 가지는 구심력은 ① 출세보다 친구가 좋아서와 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지역에 대한 강한 소속감으로, 서울생활에 기대감보다 인간관계의 편안함, ② 익숙함, 편안함이 좋아서와 같은 정주요건, ③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 등으로 나타났다. **귀환의 가장 중요요인은 일자리이지만, 청년들은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일자리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수직적인 기업문화), 열악한 직장환경, 인적기반 부족한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의식이 존재하며, 또한 지역으로의 귀환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구시 청년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출향 청년의 60%가 대구로 귀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86.7%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고, 귀향의 최우선 조건은 적정 연봉수준과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후지나미 타쿠미(2018)는 **청년들이 지방유입을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지역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위적인 인구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청년들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이 그들의 인생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그만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단기적인 이주지원책(주택수리비용, 생활비 지급과 같은 사업)은 제한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산업육성²³⁾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재홍·김재홍(2020)은 대졸 청년의 귀환이동의 결정요인과 귀환이동자의 특성을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기반으로 비수도권출신 대학졸업자 귀환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① 비수도권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의 확률 낮았다. 이는 수도권 공간의존성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와 대학이 동일 광역권에 입지할 경우 귀환이동 확률이 높아지며, 지리적 근접성과 귀환이동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②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업 성과가 우수하면 귀환이동의 확률이 낮아지며, 지역의 우수인재는 일단 유출되면 귀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귀환이동 확률은

23) 간병을 일자리 만들기로 생각하지마라

낮아지며, 부모의 학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귀환이동 확률은 증가시킨다. ④ 고교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이 대학지역보다 높으면 귀환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홍·도수관 2020).

이와 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인재의 정착(회귀) 가능성은 낮고 비관적이다. 그러나 이태리 샤르데냐 출신의 귀환이동자 연구를 통해 비경제적 요인을 중요성을 제시한다. 샤르데냐에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 사회적 연계, 삶의 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1년 스웨덴의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귀환하는 대졸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인구센터스 자료 사용), 대졸자의 귀환이동의 중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출산과 같은 가족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Crescenzi et al., 2017, Bjerke and Mellander 2017 ; 김재홍·도수관 2020 재인용). **그러므로 청년층 인구이동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개발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일방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요인이 저개발지역으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금 격차, 주거비용, 어메니티 등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가족, 생활양식,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재홍·도수관 2020)

또한 정동일·박영민(2021) 역시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 대졸자의 지역효과가 낮아지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졸자의 지역이동은 미래의 편익과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기 및 상황적,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고²⁴⁾는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제공하여, 주관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지역에 남게 하고, 이는 심리적 기제일 뿐만 아니라 결속형 사회자본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연고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 등 정보취득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주에게 신용가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신고교에서 맺어진 연고는 대학에서 맺어진 연고보다 강력한 경우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24) 연고는 사회적 속성이나 관계의 공유집단에 소속된 객관적 상태, 또는 이로부터 생긴 주관적 일체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후반·조주은 2017)

2. 일 경험(work experience)으로서의 인턴십

인턴십(internship)은 일 경험과 교육방법 등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턴십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앞서 재학 중에 실제 사회조직과 일에 관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을 의미한다(Howard2004; Linn 2004). 즉 대학생(졸) ‘채용제도와 연관된 현장실습’을 뜻한다²⁵⁾. 실제 인턴십으로 불리지만, 채용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턴십 교육과정모델을 연구한 이치열 외 (2020)은 인턴십의 개념을 정리 및 구분하였다.

우선 그는 인턴십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관련 직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턴십의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미국의 현장실습과 국내의 채용제도로, 고등학교의 경우 대안학교의 인턴십과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였다.

[표 16] 인턴십 구분

대상	대학생		고등학생		
국가	미국	국내	미국	국내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	현장실습	채용제도	1996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 ‘메트스쿨’	2005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현장실습

출처: 이치열 외(2020),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중복형 인턴십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또한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표 17]과 같이 대상과 계기, 운영주체, 노동과 관리자의 구분을 통해 차이를 제시하여 구분하였다. 현장실습이 노동자와 감독의 개념에 입각한데 비해 인턴십은 교육과 멘토의 개념에 입각한다.

[표 17]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차이

구분		인턴십	현장실습
차이점	대상 참여 계기	계열과 나이 상관없음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 선택 참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교육과정의 의무 참여

25)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인턴제도에 참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실무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 잘 훈련된 직원을 낮은 비용에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안선민, 김병섭 2018 재인용)이 있는 반면, 청년인턴십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로 시작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김유선 2015)이 존재한다.

	운영 주체 노동(일) 개념 관리자	기업과 개인 일에 대한 교육 대상자 멘토의 개념	학교 초보 노동자(2019) 관리 감독의 개념
공통점		일정한 기간 해당 기관의 신분 유지 학생과 직장인의 신분 동시 유지 학교가 아닌 직업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 시행	

출처: 이치열 외(2020),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중복형 인턴십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또한 일반적으로 인턴십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개념을 [표 18]과 같이 정리하여 구분하였다.

[표 18] 인턴십 유사개념

구분	내용
직업탐색 (job Shadowing)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즉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일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 이를 통해 직업관 형성
현장실습 (on-the-job training: OJT)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훈련 방법. 실제 작업 수행 시에 사용되는 많은 기능파악이 필수적인 생산직 중심의 직무에서 실시. OJT를 통해 선임자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 이를 통한 자신감 및 동기유발 등의 효과 있음.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
도제제도 (apprenticeship)	장인 기술자의 지도로 직접 일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 학교 수업과 OJT통합형태로 졸업장과 자격증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도제기간 중 노동의 댓가와 교육을 통해 보상을 받음.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
산학협동교육 (co-operative education: co-op)	직업 진로와 관련 OJT와 일의 경험을 교실교육과 결합한 방법으로 중등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교실수업, 산업현장에서 실습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산학협동교육 추진중. 대학의 경우, 학기제를 변형하여 실시. 본래 취지의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에 의해 학생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한받고 단순한 잡무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므로 진로의 동기부여의 산학협동 교육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 발생.
멘토십 (mentorship)	나이가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학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조직의 문화나 문서에 없는 규율 등이 존재하며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와 흥미를 바탕으로 관계맺음 멘토(mentor)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고용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mentee)이 직업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며,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 함
지역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노동에 댓가는 없으나, 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community-based volunteering)	일의 현장과 공동체의 관계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의식 수준 고양 및 촉진
학교기업 school-based enterprises:SBEs	학생들이 직접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아동보호센터, 중고차 거래소, 슈퍼마켓 등 해당. 학교기업 활동이 학생의 직접적인 진로와 연결되지 않으나, 현실감 제공과 학교의 금전적 이득제공의 메리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수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홍성의 풀무학교의 협동조합이 이에 해당
직업시뮬레이션 (job simulations)	구체적인 직업 현장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놓고 실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임.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지식과 현장의 기술을 연결하고 전 직업 분야를 통해 적용될 수 있는 일 중심 학습전략

출처: 이치열 외(2020),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충북형 인턴십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발췌·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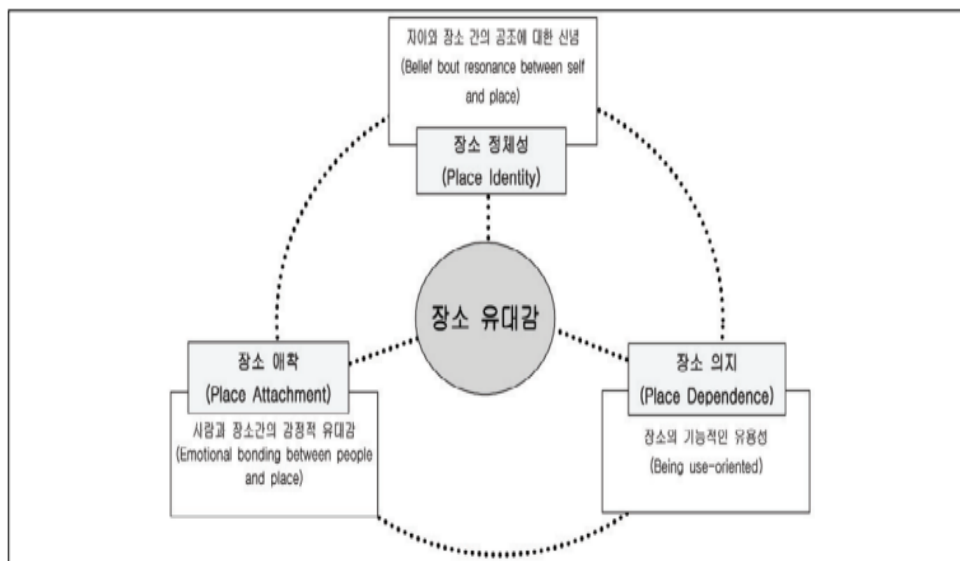
이치열 외(2020)의 정의와 정리에 따르면, 일의 교육은 ①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의 학습, ② 일의 사회적 맥락 등 객관적 지식과 정보 제공 교육, ③ 직접적인 체험의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인턴십은 ① 자발성에 의한 학습동기, ②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작업을 통한 교육, ③ 관계와 소통, 문제해결 능력 고양, ④ 성장하는 체험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자발성텍스트 중심의 형식적 교육에서 직무, 일(work)로의 진로 교육은 유효하지 않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실 밖의 경험학습과 사회적 맥락속에서의 학습을 통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 학습 프로그램으로서의 인턴십은 중요하고 인턴십을 일의 교육으로 바라한다고 주장한다. 손민호·조현영(2020) 역시 인턴십 교육은 단순히 기능훈련과 기술교육을 넘어 '**삶의 실제 체계**'로서 **전인적인 진로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치열 외 재인용).

3. 장소유대감과 획득방법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 장소와의 관계맺기를 통하여 삶을 영위해 나간다. 엄창옥 외(2018)의 연구에서 지역이 가진 구심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요인이 제기되었다. 즉 청년유입의 요인으로서 장소라는 요인은 중요성을 지닌다. 우선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다.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서의 사람의 사회화와 관련되어 자아 정체성, 서사적 정체성을 이룬다. Relpa(1976)는 **장소**는 고유한 입지, 경관, 공동체 보다는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으로 의미, 실제 사물, 계속적 활동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한다. 장소는 공간과 대비된다. Tuan(1977)은 공간은 추상적, 물리적, 기능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비해, **장소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억,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에 의미가 부여된 곳이 장소가 된다.** 즉 어떤 장소가 친밀한 장소가 될 때 장소감(sense of place)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감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한 유대감으로서 장소유대감(place bonding),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정체성(place dependence)간의 관계 속에 재구성된다. 장소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며, 장소의지는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해 원하는 것을 할 장소를 찾고 그곳을 의존하는 것이다. Nilsen-Pincus(2010)은 장소감은 사람과 감정, 인지 및 행동이 포함된 장소적 유대감이며,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며, 장소 정체성은 자아와의 공조(resonance)신념으로 삶의 목적과 만족, 소속감 강화하며, 장소의지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석환(1998)은 장소정체성은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 지역사회에 지역감의 향상, 일들을 장소와 연계하고 관련짓는데 영향을 미치며, 즉 **장소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임은진 211, 이-푸 투안 1995).**

[그림 22] 장소 유대감의 구성과 관계



출처: 임은진(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장소성, 즉 지역적 유대감(애착)은 청년들의 지역정주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마쓰나가 게이코(2015)는 인구감소시대에는 목적지향형 계획이 아니라 유연하게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유한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장소성을 개발할 수 있다면 청년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관련사례도 점차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마쓰나가 게이코, 2015). 또한 대구시의 청년정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농촌귀환 이동자 연구에서도 가족, 사회적 연계, 삶의 질과 같은 정서적 요인, 즉 비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엄창욱 2018, Crescenzi et al., 2017, Bjerke and Mellander 2017 ; 김재홍·도수관 2020 재인용).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방으로의 이주(정착)에는 진로장벽이 존재하는데, **그러므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장소유대감(애착)의 획득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인적인 구체적인 자기탐색 시간과 기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wanson·Tokar 1991, 김재홍 외, 2017 재인용). **그러므로 유대감획득을 위한 방법으로는 ① 학습, ② 사회참여, ③ 인턴십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① 학습, 즉 장소기반교육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자연적 환경의 직접적인 학습경험을 통해 애착(유대감)은 발달시키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Powers 2004: 조수진 외 2015 재인용). 장소기반교육은 문화연구, 자연연구, 실생활 문제해결, 인턴십과 취업 기회, 지역사회 과정으로의 유도의 형태로 존재한다. 김정섭(2018)은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한 집단적 유대감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이주와 정착에는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며, 학습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장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 과정은 지역 주민과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의 정착을 잘 도울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과 다름이 없다. 앞서 언급한 주체 육성의 과제 역시 이런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학습이 일어난다.** 여럿이 모여 대화를 통해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 과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학습이다. 이러한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체’로 변화하며 지역사회 연결망이 형성된다. 따라서 학습은 사회적 인프라의 필연적 기능이다²⁶⁾”

또한 유대감은 ② 지역사회와의 참여 경험으로 강화된다. 황여정(2017)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애착을 높이고, 시민성 고양과 타 활동으로의 관심을 촉발시킨다. ③ 인턴십 역시 유대감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ith (2002)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믿음을 깨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서 지역내 직업의 기회를 연결하는 교육, 즉 인턴십과 같은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길러주어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남게 한다고 주장한다(조수진 외 2015).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일 경험(work experience) 제도는 ‘직무 기반 일경험(job-based work experience)’ 학습으로서 장소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현장실습의 근거규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정의²⁷⁾는 직무기반 일경험에 국한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여정 2018).

제4절 시사점

1. 청년정책을 위한 전환적 발상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의 청년인구는 감소세에 있다. 특히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17.2%(365천명)으로 2000년 23.6% 이후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학령인구(만6세~21세)의 비율 역시 16.4%로 2000년 23.5% 이후 감소하고 있다²⁸⁾. 또한 인구이동 역시 순유출 많다. 천안과 아산시 외 충남의 전 지역에서 순유출 현상이 두드러졌고, 지역규모가 작은 군 단위(남부권)의 지역 유출은 심각했다. 순유출은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3배이상 많았다. 또한 **충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고교졸업자)의 경우, 지역정책(회귀)²⁹⁾의 비율이 56%로, 서울과 경기권의 청년정책(회귀) 77%, 78%와 비교하면 20%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현황은 충청남도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유입, 즉 청년들의 정주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일자리이다.

26) 김정섭(2018) 61페이지 인용

2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28) 충남지역 2017년 청소년통계

29)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 중 충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충남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현재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을 지역정책(회귀)한 청년으로 표기

충남의 일자리 현황의 경우, 고용율의 전국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취업비중은 광업·제조업의 비중이 35%대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반영하여 남성을 중심으로 제조업(전기·전자·기계 등) 구직수요가 30%가 존재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구직수요는 경영·회계등 사무직 관련직(45.5%)에 높았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의 현실을 볼 때 왜 여성청년들이 충남을 빠져나갔는지 추측할 수 있다. 여성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같은 현실 속에서 충청남도의 청년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원칙)은 미래탐색(교육)→진입(취·창업)→정착(주거·복지·문화)의 단계와 연대를 제시하고 있어, 총론적으로 지역 정착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명확히 이러한 방향(원칙)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계별 진행여부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한 단계별 진입과 연대(협력)을 위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의 필요가 존재하며, 대구시의 예와 같이 청년귀환프로젝트의 교육(정제성)→유입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묶음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충남에 맞는 청년 정착(회귀)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2. 대안교육 인턴십의 연구적 의의

청년유입과 정착에 있어서의 주요전략은 일자리 문제와 노동력 이동이라는 노동시장의 관점의 해결책, 예를 들어 창업·취업 지원(교육, 생활비(주거), 자금 등)이었다. 그러나 청년유출 심화와 유입 감소의 흐름을 바뀌지 않고 있다. 즉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창업·취업에 청년들이 원하는 급여·복지·인지도 등의 요소(청년선호일자리, 매력적인 지역일자리)가 결합된 지원이어야 한다(엄창욱 외 2018, 후지나미 타쿠미 2018). 그러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어렵다. 환원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시스템적 한계 때문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그러므로 **지역은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新전략으로 지역매력도를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도 고려할만 하지만,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나고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의향³⁰⁾을 높이는 방법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요인 외 가족, 생활양식, 사회적 자본을 고양하는 방법

(비경제적 요인 활성화)을 말한다(엄창환 외 2018, 김재홍·도수관 2020). 특히 이와 같은 방법은 장소성, 즉 장소맺기와 연관된다. 장소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이-푸 투안 1995), 장소는 단순히 입지, 경관, 공동체보다는 생활세계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Relpe 1976). 장소성을 고양하는 방법론으로 ①학습(장소기반교육), ②지역사회 참여 경험, ③인턴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Powers 2004, 황여정 2017, Smith 2002),

특히 인턴십은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로 판단할 수 있다(조수진 외 2015). 여기에서 의미하는 인턴십은 현장실습과 같은 직무를 기반하지 않은, ‘삶의 설계 체제’로서 교육, 자발성과 구체적인 경험, 관계소통, 성장체험 등을 특징을 지니는 교육 과정이다(이치열 외 2020). 최근 청년이주 지원프로그램의 지역기반 연계협력 상호학습(교육)과 민간주체 이주프로그램 운용 등 사회적 인프라·역량강화 전략은 일종의 ‘장소성’ 고양전략으로 볼 수 있다(정민철 외 2019, 김정섭 외 2018 등). 그러므로 지방이주를 희망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전략보다는 사업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나고자란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경험’을 매개로 한 지역살이의 의향을 높이는 방법(장소성 고양)**, 즉 본 연구의 대안학교 인턴십 연구 그 의의가 있겠다.

30) 또는 회귀하고 싶다는 의향

제3장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분석

제1절 대안교육기관 정의와 특징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³¹⁾. 대안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 중심으로 학습내용 및 방법 결정, 학교운영을 하며, 공동체와 생태주의에 가치를 두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에 있다(이종택 2007). 그러므로 대안학교의 운영적 특징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수평적 인간관계 지향, 공교육의 안티테제로서의 완결적 교육과정, 학비기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 들락날락 2021). 특히 공교육의 안티테제로서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 한마디로 각 학교마다 철학과 교육방법이 다르며, 입학자들은 역시 이러한 철학과 교육방법에 동의하고 들어오게 된다.

다양한 사상과 방법론에 입각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 중 공교육의 틀 안이나 밖이나 즉 인가와 비인가의 구분은 대안학교의 교육철학과 직결된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 지원금과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감사와 간섭을 받게 되어 ‘지율’과 ‘다양성’을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 감사와 간섭은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많은 대안학교가 비인가로 남아서 그들의 교육철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입학수요 저하와 대안교육적 요소(교육방법론 등) 공교육내 확산 등 여건의 변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의 시행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이행 여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학교진로(존폐)와 결부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2022.1.13. 시행)의 정의이며,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대안학교)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대안교육의 시작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운동과 1970~80년대의 민중교육 등을 대안교육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황준성·이혜영 2010). 대안교육³²⁾의 제도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연구에서는 대안교육의 1990년대 중반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본다.

최초 대안학교는 특성화 중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제도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제도화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시작되며, 개혁방안에서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한 학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여러 유형의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당시 이슈였던 중도탈락자의 해결방안인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립 대안학교가 다수 설립됨에 따라 정부는 대안학교 지원하는 방향으로 1997년 고교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하고, 199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³³⁾와 2001년 제76조³⁴⁾를 신설한다. 초기 대안학교의 제도화는 학교부적응 대책 및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특성화학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체계 내의 한계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황준성·이혜영 2010, 여태전 2021). 특성화학교는 당시 교육부에서 미국의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을 학교 다양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춰 추진된 상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만화학교, 요리학교, 디자인학교 등 직업특성화고등학교였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안학교 제도화(법제화)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개념까지 포함한 특성화학교로서 추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초기 대안학교의 불분명한 제도화에 따라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문제아 집합소’ 또는 또 하나의 특수학교처럼 인식하게 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여태전 2021).

정부에서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추진의 목적인 중도탈락 학생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지만, 미흡하여 2001년에는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에 맞지 않는 학생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학습해도 출석이 인정

32)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대안학교)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33) 제91조의 1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34) 제76조의 1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되는 제도로, 소속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교육 교육기관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각 시도별 교육감이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한다.

대안학교가 법정용어가 된 것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이 신설되고, 2007년 6월에 시행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대안학교 측에서는 학교설립 인가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물적 조건(시설)이 과도한 점, 기존의 학교 교원이지만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신분 문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과정 조향, 학교로서의 인가와 별개로 학력인정 문제, 그리고 재정지원 근거조항 부재 등 에 대해 반발하였다. 초기 이 조향의 신설을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하였으나 실제 학교는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1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 중요변경 내용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 설립된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50개 중 21개가 공립학교로 개교하였다(황준성·이혜영 2010, 여태전 2021).

최근 2022년 1월 시행령 공포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의 큰 특징은 우선 초·중등교육법 1조의 취학의무 때문에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미인가 대안학교를 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제10조), 즉 학교의 교육독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제5조)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등록된 대안교육의 안정적 도전을 보장하는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교육청의 인가기준, 즉 물적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사비용, 의무교육과정 수준 등의 조건이 대안교육이 지향성과 배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등록을 망설이는 대안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교육적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하태욱 2022³⁵⁾).

35) 한겨레신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기대와 우려’ 2022. 3.1 컬럼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태욱(2022)은 대안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안교육 등록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국회입법처(2021)는 등록제 시행과 미등록 교육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인센티브의 필요성과 시·도차원의 자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덕난·최재은 2021).

3.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대안학교³⁶⁾는 인가형과 비인가형 대안학교³⁷⁾로 분류한다. 인가형은 초·중등학교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와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3의 규정된 각종학교인 대안학교가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각종학교인 대안학교는 50개교,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는 19개교,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25개로 총 94개의 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36)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지 않음

37)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대안교육시설을 뜻함

[표 19] 대안학교(각종학교) 현황(2022년)

시 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인가 연도	소재지	시 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인가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고)	사립	'09	중구	강원	해밀학교(중)	사립	'18	홍천군
	여명학교(중·고)	사립	'10	중구		노천초등학교(초)	공립	'19	홍천군
	지구촌학교(초)	사립	'11	구로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0	음성군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종로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고)	사립	'12	제천시
부산	송정중학교(중)	공립	'19	강서구	충북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사립	'17	청주시
대구	대구해울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공립	'18	달서구		은여울중학교	공립	'17	진천군
						은여울고등학교	공립	'21	진천군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고)	사립	'11	연수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아산시 염치읍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드림학교(고)	사립	'18	천안시 충절로
	인천한누리학교 (초·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충남다사랑학교(고)	공립	'19	아산시 둔포면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사립	'14	서구	전남	월광기독학교(중·고)	사립	'18	함평군
대전	새소리음악고등학교(고)	사립	'11	서구		성요셉삼호문학교고등학교(고)	사립	'18	강진군
	새소리음악중학교(중)	사립	'16	서구		이음학교(중)	공립	'20	광양시
울산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21	울주군		송강고등학교	공립	'21	담양군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초·중 통합)	사립	'08	고양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포항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연천군		글로벌선진학교문경 (중·고 통합)	사립	'12	문경시
	쉐마기독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양주시		산자연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용인시 (휴교중)		나무와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이천시		링크중고등학교(중·고 통합)	사립	'17	김천시
	광성드림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4	고양시	경남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고)	사립	'17	경산시
	하늘꿈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5	성남시		경남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진주시
	중앙예담학교(중·고 통합)	사립	'18	용인시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고성군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9	가평군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밀양시
	군서미래국제학교 (초·중·고 통합)	공립	'21	시흥시		김해금곡고등학교(고)	공립	'20	김해시
	신나는 학교(중·고 통합)	공립	'22	안성시		거창연극고등학교(고)	공립	'20	거창군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공립	'21	남해군	

[표 20]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현황(2022년)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창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사립	'22	광주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함평군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경남	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대병중학교	사립	'21	합천군

[표 2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현황(2022년)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4	동구	충남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서천군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완주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팔려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청주시		합천평화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비인가 대안학교는 400~600개 학교가 운영 중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하태욱(2018)에 따르면 전국에 287개교가 운영 중이고, 초등과정³⁸⁾ 140교, 중등과정 257개교가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충남의 경우, 12개소로 파악되었다.

[표 22] 비인가 대안학교 전국 현황

서울	초	중 고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강원	초	중 고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 계
	1	1	3	36	1	7	52		0	2	4	5	0	2	13
	초등								초등						
	8								6						
		중등								중등					
	51					13									
부산	초 등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경북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 계
	2	3	4	2	0	1	12		0	0	2	5	0	3	10
	초등						10		초등						
									2						
		중등								중등					
						10									
대구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경남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 계
	0	0		1	0	1	3		3	0	0	2	1	1	7
	초등								초등						
	1								3						
		중등								중등					
	3					4									
인천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충북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 계
	3	1	5	3	0	1	13		0	0	7	5	1	1	14
	초등								초등						
	9								7						

38) 초등, 초등-중등통합, 초등-중등-고교과정 통합과정을 초등과정으로 분류, 중-고등 통합,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중등과정으로 분류함

		중등								중등					
		10								14					
광주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충남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1	0	2	10	0	1	14		1	1	3	6	0	1	12
	초등								초등						
	3								5						
				중등								중등			
				13								11			
대전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전북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1	3	0	0	0	0	4		0	0	1	1	0	0	2
	초등								초등						
	4								1						
				중등								중등			
				2								11			
울산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전남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0	0	0	2	0	0	2		2	2	2	6	1	0	13
	초등								초등						
	0								6						
				중등								중등			
				2								11			
경기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제주	초	초 중	초 중 고	중 고	중	고	총계
	16	16	43	29	1	8	113		0	1	0	2	0	0	3
	초등								초등						
	75								1						
				중등								중등			
				97								3			

출처: 하태욱 외(2018),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제2절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현황

1.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2022년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독자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충남도는 별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경우,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2019년 12월 시행)를 마련하여 비인가 대안학교³⁹⁾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현재(시행 1년) 3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55.3%)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조례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사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적구조, 시설 및 안전,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남의 경우, 별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의 지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⁴⁰⁾의 보호와 교육, 자립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학교의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⁴¹⁾으로서 지원⁴¹⁾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39) 대안교육기관법 시행후,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으로 변경
40) 학교밖 청소년이란, 아래와 같다(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1) 일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2. 대안교육기관 현황

충남에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3곳과 각종학교인 대안학교 1곳 총 4곳의 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하태욱 외(2018)과 충남도(2020)의 차이가 존재한다. 충남도의 내부자료⁴²⁾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1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426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역별 통계는 [표 23]과 같다.

[표 23] 충청남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별 현황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합계
3	1	3	1	1	4	1	14

출처: 송미영(2020), 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및 타시도 실태조사

[표 24] 충청남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별 학생수 현황

	유치원	초	중	고	기타 코스	합계
천안시		138	24	9	-	171
공주시	9	30	-	-	-	39
서산시	-	18	180	214	18	430
논산시	-	-	-	87	-	87
당진시	-	-	28	25	-	53
금산군	-	12	310	312	-	634
부여군	-	9	3	-	-	12
합계	9	207	545	647	18	1,426

출처: 송미영(2020), 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및 타시도 실태조사

42) 송미영(2020) 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및 타시도 실태조사 인용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2021)의 통계는 총 14개소, 1,371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충청남도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운영 과정	학생수		운영주체
계	14개소		과정별	소계	
높은뜻 씨앗스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무길84-4	초중 통합	초등 90 중등 31	121	높은뜻연합선교회
드리미학교	천안시 동남구 봉천면 봉황로 9	고등	고교	65	재)드리미협동조합
나지르학교	아산시 법곡길 21-6	초등 중등	초등 8 중등 2	10	아산소망교회
꿈의 학교	서산시 대산읍 영전1길 321	중고 통합	중학 137 고등 146	283	사)킹덤드림선교회
헤브론 원형학교	서산시 운산면 원평 2길	초중 고 통합	초등 18 중등 27 고등 44	89	헤브론 연합선교회
산티학교	서산면 지곡리	중고 통합	중학 17 고교	17	사)산티교육공동체
벨국제 아카데미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528	고등	고교	87	벨본부교회
시내산중고 등학교	당진시 정미로 683-12	중고 통합	중학 28 고교 25	53	당진 동일교회
별무리학교	충남 근산군 남일면 별무리길56	초중 고 통합	초등 10 중등 138 고등 133	281	사)교사선교회
사사학교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사사길 21	중고 통합	중등 87 고등 94	181	사사학교교회
리버트리 스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284	초중 고 통합	초등 20 중등 10 고교 15	45	비영리단체 리버트리스쿨
레드스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중학 고등	중등 25 고등 30	55	자체운영
다니엘 TCS 국제학교	태안군 원북면 두음로 466-64	초중 고 통합	초등 44 중등 28 고등 12	84	자체운영
금산 간디학교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로811(중) 금산군 남이면 숲속마을길 7(고)	중학 고등	중등 52 고등 56	108	(사)숲속마을작은 학교

출처: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2021),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발췌 및 재정리

위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역적으로 금산군에 5곳(충남도 2020년조사 4곳)으로 가장 많이 있고, 천안시와 서산시 각 2개소,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태안군에 각 1 개교가 존재한다. 또한 초-중-고등 통합과정, 초등-중등 통합과정, 중-고 통합과정 등 통합과정의 학교운동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각 초등, 중등, 고교과정을 각각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별무리학교, 꿈의학교와 같이 300명 가까운 규모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나지르학교와 같이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도 있다. 또한 금산간디학교와 같이 20년 이상 운영한 대안학교 운동의 산실과 같은 학교도 있으며 고교 학점제와 같이 혁신적 모델을 실천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제3절 대안교육기관의 특징과 시사점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특징과 진로

인가형 대안학교는 특성화학교와 각종학교로 구분한다. 우선 특성화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준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수업일수 규제 등의 제한이 존재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과목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이수 등이 적용되는 만큼 특성화 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학교의 교육이념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전체 교육과정 50%정도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비해 각종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1/2 이수원칙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특성화학교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전인적 관점에서의 인성교육 및 통합적 교과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토론 및 발표 등 학생의 참여적 방식의 수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실이라는 장소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현장체험, 봉사활동, 해외기행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이수제, 분기 집중제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이수광 외, 2008).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이 요구되지 않고, 학교의 교육이념과 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일반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수광 외(2008)은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 지향, ② 전인교육의 이상실현 노력, ③ 자기주도 학습장려, ④ 진로교육 강조, ⑤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 ⑥ 대안적 평가방식(자기평가 및 발표회) 등을 제시하였다. 하태욱(2008)은 비인가 대안교육과정을 생태·평화, 자립·진로, 문화·예술·감성, 기초지식으로 분류하였다.

[표 26] 대안교육과정 특징

분 류	교과명	수업행태	비정기 활동
생태·평화 주제 교과	살림, 숲공부, 텃밭 가꾸기, 자연놀이, 생명과학, 밥살림, 생태교실, 일과놀이, 관찰 나들이, 인권과 평화, 여성학, 노동인권직업, 문화철학사회참여, 시민사회학습, 인권과 사회계층 등	체험 주제프로젝트 교과수업	학교 내 생태연못, 꽃밭 조성
자립·진로 주제 교과	생활교과, 자립교과, 길찾기(논문 준비), 살림, 졸업프로젝트, 와 식 주 자립교과, 자기주도적 학습 노작활동, 인턴십, 직업특강, 직업체험 등	체험 주제프로젝트 교과수업	노작 및 진로특강
문화·예술·감성 주제 교과	음악(각종 악기 다루기), 미술, 영상 미디어(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체육과 몸(몸놀이 및 운동), 공연(연극, 마임등), DIY(목공, 소품, 효소 만들기 등)	체험, 주제프로젝트 교과수업	공연 및 문화기획
기초지식 주제 교과	우리말과 글,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지리, 신화와 역사, 언어교육 등	주제프로젝트 교과수업발표	다양한 과목 선택 자기개설 교과 운영

출처: 하태욱 외(2008),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현장 교육과정 운영연구, 대안교육연대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④ 진로교육의 강조하는데, 이는 대안교육의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기존 교육과정을 따른 일반적인 삶이 아닌 '비주류'의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로가 불투명하다면 대안교육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수광 외 2008). 따라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발견과 진로탐색, 대안적 삶에 대한 학습, 인턴십 등에 적극적이다.

2. 시사점: 제도(틀)과 실험사이

1990년대부터 대안학교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대안학교가 가지는 ‘대안적(Alternative)’ 교육과정(의 가치)을 인정하고 지원했다라고 보기 보다는 공교육체계에서 맞지 않는 학생을 지원하는 의미의 보충적, 또는 잔여적 의미에 국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는 ‘대안적’ 교육방법에 대한 일정한 동의(인정) 하에 -공교육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 대안학교는 여태전(2021)이 언급한 것과 같이 승자독식의 과잉경쟁교육 방법에 대한 대안적 교육과정이다. 특히 대안학교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승자독식의 과잉경쟁교육은 부적응 학생, 즉 학교 밖 청소년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부적응자, 낙오자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고,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는 사회운동(하태욱 외 2018, 여태전 2021, 들락날락 2021)으로서 1990년대 정책화에 성공했다. 주지의 사실처럼 대안학교라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국가는 특성화 학교 → 인가형 대안학교 → 등록형 대안학교와 같은 정책적 틀을 제시하고 이 틀에 맞는 대안학교를 지원해 왔다.

대안학교의 지원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공교육의 안티테제로서의 교육과정의 핵심인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방법론 유지⁴³⁾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대안학교 내에서 지속되어 왔다(들락날락 2021). 그러한 논쟁 가운데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50% 이상이 서울형 대안학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대안학교가 가지는 다양성을 제도권으로, 즉 ‘대안적’ 교육과정의 틀거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며 등록을 망설이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존재한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교육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생활과 삶의 대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관은 진로교육에 적극적이며, 현장체험→인턴십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프로젝트)이 활발하게 시도되는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인턴십과 지역정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수 감소 등 사회여건 변화는 대안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대안학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3) 특성화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폭은 20%로 제한(여태전 2020)

제4장 사례분석

제1절 미국 공립 대안학교 ‘메트스쿨(The Met School)’

1. 개요

메트스쿨(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은 1995년도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와 엘리엇 워쇼(Elloot Washor)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이 1996년 개교한 첫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학생이 학습의 중심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목표를 가진 학교이다. 메트스쿨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에 위치하며, 여섯 개의 작은 학교가 세 개의 캠퍼스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당 학생수는 140~180명 정도이다.

설립 당시 로드아일랜드는 학업 중도탈락률 5%를 넘겨 공교육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혁신적 학습모델로 메트스쿨을 추진하게 된다. 메트스쿨은 혁신적인 학습 환경과 학습모델로 개발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갔다. 2000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률 95%, 대학진학률 98%(지역 학교의 졸업률 56%, 대학진학률 38%)의 탁월한 성취도를 나타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과에 따라 메트스쿨의 운영방식을 따르는 학교가 늘어 미국내 20개 주에 70개의 학교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100개교 이상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 메트스쿨의 인턴십 특징

메트스쿨, 즉 빅픽처러닝의 학교는 아래와 같은 10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메트스쿨의 교육의 핵심은 인턴십(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이다. 인턴십은 메트스쿨의 교육 목표, 즉 학생이 학습의 중심이 되는 교육방식 추구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인턴십은 관심사를 찾기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프로젝트 계획→후보지 및 멘토

선정→ 세부계획 → 인턴십 실시 및 완료 → 발표(평가)의 순으로 실시된다.

[그림 23] 메트스쿨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

1	관심사 파악	자신의 관심 분야 상세히 알기
2	인턴십 찾기	관심 분야의 멘토 찾기, 멘토 인터뷰
3	일일 직업체험	멘토 관찰, 정보 수집
4	인턴십 목표 수립	인턴십 과정 설명, 학생에게 맞는 학습 목표 세우기
5	인턴십 시작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 경험하고 배우기
6	장기 프로젝트 계획	학습 목표 향상, 인턴십 최종 결과물, 연구, 성찰
7	인턴십 평가	학습평가회, 공개 프레젠테이션, 서술식 평가서

출처: 서희주(2020) 미국 메트스쿨 현황과 시사점

우선 ① 학생이 관심을 가진 영역의 프로젝트 주제와 내용을 계획한다. 프로젝트 계획안이 결정되면, 인턴십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담당교사, 인턴십 진행 담당자 면담과 조사를 통해 인턴후보지를 파악하고, 이후 후보지의 조사, 후보지 멘토(Mentor)와 면담 실시한다. 인턴십 장소와 멘토가 결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메트스쿨 학생들은 일 년에 한 가지 인턴십을 수행하고 보통 가을부터 시작하여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5~6개월 가량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인턴십의 기간은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 3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인턴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발표한다(허경철 2017⁴⁴).

44) 에듀인뉴스 '교육과정 선진화 구상: 미국의 메트스쿨' 2017.7.3. 기사

[그림 24] 빅픽처러닝의 10가지 특징

한 번에 한 학생 씩 지도하기 - 학습 경험 전체는 개별 학생의 흥미, 재능, 필요에 의해 개인화되어 있다. 개인화는 단순한 교과목 수준을 뛰어넘으며, 개별 학생을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담당교사제도 - 담당교사는 빅픽처러닝학교의 핵심 구조적 및 관계적 제도이며 학교의 마음이자 정신으로 학생들은 종종 “두 번째 가족”이라 부른다. 학생은 한 명의 담당교사와 동료 반 친구들과 4년 동안 함께 하며 평생 유지할 만큼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쌓는다. 흥미와 인턴십을 통해 학습하기 - 실세계 학습은 실세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빅픽처의 학생인턴(종종 일주일에 이틀씩 전체 학교 일과 시간을 보냄)은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실제적인 과제를 완수한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흥미가 실세계와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그 경험을 쌓는다. 학부모 및 가족의 참여 - 학교공동체는 학부모를 그 일원으로써 환영하고 중요시한다. 학부모는 학생 과업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협조하며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산을 활용해 학교의 일을 도우며 종종 잠재적 인턴십 멘토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문화 - 빅픽처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그리고 학생과 성인 간의 믿음, 존중, 평등이 매우 분명하게 존재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성인의 문화는 협력정신으로 가득하다. 학교의 의사 결정에 있어 학생의 목소리는 존중되며 방문자들은 학생들이 성인과 쉬이 소통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진실된 평가 - 학생은 시험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대신, 학생이 흥미로워하는 분야에서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담아서 자신의 학습을 공개적으로 전시한다. 전시의 평가기준은 학생 개인과 과업의 실세계 기준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다. 학생은 매 해 다 회 전시를 하며 자신의 학습적 성장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학우, 멘토와 함께 논의한다. 학교 구조 - 학교는 협동과 소통의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학교는 건물, 시간표, 수업 중, 학사 일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다. 운영 - 지도자성은 강력한 선구안을 가진 교장, 책무성을 가진 담당교사진과 기타 직원, 그리고 학생이 공유한다. 이 공동체는 민주적으로 기능한다. 만연하게 공유되는 주인 의식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고등학교 이후의 계획 -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성공을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대학 입학, 상업, 훈련, 여행, 군대, 직장 등이 있다. 교사 연수 - 일반 담당교사 연수는 각 학교의 교장, 다른 교직원들, 빅픽처러닝의 교직원과 코치진이 실시한다. 빅픽처 학교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자의 공동체이다.
--

출처: 서희주(2020) 미국 메트스쿨 현황과 시사점

메트스쿨 인턴십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관심분야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한 가지 직업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분야의 인턴십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교육방법은 한 가지 직업교육으로 실패(중도포기)할 확률을 낮춘다. 또한 인턴십은 인위적인 학습(언어, 논리, 수리 중심)의 최고의 학습자가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실수를 연발할 수 있는 최저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의 교육방식에 직접체험학습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방법론은 하워드 가드너의 연구(다중지능이론)와 맥이 닿으며 현장체험은 교육의 상승효과를 얻게 한다(엘리엇 레빈 2004).

인턴십은 학생의 탐구 활동이면서 개인의 진로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학생은 인턴십을 통해 현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를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인턴십의 멘토를 통해 학생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의 경제적·직업적·교육적 영향을 받는다(서희주 2020). 그러나 메트스쿨의 교사인 엘리엇 레빈(2004)은 인턴십의 성격을 ‘학문적’과 ‘직업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교육활동이자 직업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메트스쿨의 인턴십을 직업교육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직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능력을 익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메트스쿨의 학생 중에는 한 학생이 교육과정 중 요리와 정치 등 전혀 관계없는 인턴십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특히 메트스쿨의 인턴십은 공동체의 개념을 포함한다. 메트스쿨의 개인적 특질을 고양하는 학습목표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창의력과 상상, 생산적인 마인드 셋, 웰니스'의 세부역량이 부과되어 있으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첫 번째 역량으로 모든 활동에 공동체를 포함한다. 특히 졸업반이 되면 시니어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에 기반한 프로젝트'이어만 한다. 메트스쿨의 교사인 엘리엇 레빈은 인턴십뿐만 아니라 메트스쿨의 봉사활동 중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이 인턴십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한다(엘리엇 레빈 2004).

3. 메트스쿨 인턴십의 시사점

메트스쿨의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배움의 영역을 실제 세계까지 확장하여 학습의 본질적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학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와 연결되게 된다. 이에 대해 서희주(2020)는 실제 교육현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인턴십, 즉 학생의 흥미기반 현장체험형 학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기반을 갖춘 멘토 또는 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지역 또는 교육열이 높은 보호자가 직접 인턴십 장소 구축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통해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메트스쿨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유쓰망고⁴⁵⁾(2019)는 메트스쿨의 인턴십은 직업관의 확대와 세상과 연결된 학교라는 시각에서 관심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인턴십의 개념은 특성화고 또는 채용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으로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턴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인턴십의 형태의 학습은 '고급지식'이 아니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턴십 기반 학습은 단순한 직업체험이 아닌 관계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의 기회이자 변화하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과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5) 리얼월드러닝을 전파하고 촉진하고 위한 비영리단체

제2절 비인가 대안학교 ‘금산간디학교’

1. 개요

2001년에 설립된 금산간디학교는 금산군 남이면에 위치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2002년 고등과정, 2008년 중학과정을 개교한 중고등과정 통합운영학교이다. 1997년 산청간디학교가 개교한 이래, 제천과 금산, 필리핀에 대안학교를 개교한 간디학교는 우리나라 최초 대안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은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기초한다. 때문에 교육주체가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금산간디학교의 교육 목표는 전인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자연과 조화된 인간이며, 교육철학은 현재 경쟁적 공교육을 지양하고 삶의 봉사자, 대안 문화의 창조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습활동은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개개인의 개성과 학습스타일을 존중하여 매 학기 초 개인별 학습계획을 결정하되 일부 교과, 공동체, 전인교육 등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수업은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하여 피드백과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졸업학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금산간디학교 홈페이지, 이태문 2014).

2. 인턴십 교육과정 특징과 현황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은 “진로 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학습 방법론을 기반으로 창직, 창작, 창업 등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학년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협업과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25]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3년 교육과정 표

3년 교육과정 표

	1학년, 적응기		2학년, 활동기		3학년, 도전·정리기	
교육목표 핵심지향	사람과 더불어알기	지역과 더불어알기	세상과 더불어알기	세상과 만나기1	세상과 만나기2	세상으로 도전하기
학년 프로젝트	함께알기 공연예술 결기여행	연극·뮤지컬 지역나눔활동	해외이동학습	진로 탐방	졸업프로젝트 기획	졸업프로젝트 진로연구
진로 프로젝트	진로탐색					진로 탐색의 심화
	인턴십 탐방					
	자기소개서, 소풍 트레이닝, 현장 정보 검색					
	인턴십 1, 2					
	자기소개서, 현장 섭외, 포트폴리오 작성, 현장 활동, 자기평가, 멘토평가, 발표원고 작성 등					
	성장기록으로서의 포트폴리오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진로교육의 핵심은 인턴십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2년 개교 이래 추진되어 왔으며, 학교와 현장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또한 인턴십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현장 멘토와의 관계,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온 교육과정⁴⁶⁾이다.

고등과정 친구들은 졸업을 한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실험해보고 싶어 했다. 다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한 교육적 경험은 현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탐색하고 발견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으며, 학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기반을 실제로 경험하고 구체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인턴십 담당교사).

46) 구체적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금산간디학교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어떤 직업,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고민에서 출발하며, 때문에 금산간디학교는 대안적인 삶과 문화의 창조자, 나아가서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인재상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목적을 지향하고, 인턴십은 사회 속에서 방향을 찾고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고 섭외를 하고 탐방을 가거나 일정 시간 이상 현장을 경험하고, 관계를 확장해가는 것이 인턴십의 특징이다.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인턴십의 변화는 2015년 이전까지는 담임교사(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전담 코디네이터 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즉 학사 일정과 인턴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업무부담 노정되어 변화하게 되었다. 전담코디네이터가 배치되면서, 상시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3년의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코디네이터는 담임교사와 함께 각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현장을 소개해주고, 준비 수업을 통해 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7]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인턴십 교육과정



금산간디학교 인턴십 교육과정은 3가지로 분류한다. 일회성 인터뷰에 해당하는 탐방 활동과 최소 80시간, 150시간의 세 가지이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추진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계획서 제출→일지 작성→발표의 과정을 거치는데,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3인 이상의 인터뷰’와 같은 인턴십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장치를 만들어, 학생들이 삶을 고민하고 현장에 녹아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현장에 흩어지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멘토와의 소통하기 위해 전화, SNS 온라인 카페 등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응 필요와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대한 동의하고 있으며, 방법론으로 메트스쿨의 교육철학인 리얼월드러닝을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다.

[표 27] 금산간디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트스쿨 자료(학교에 대한 기대)

관계	연관	의미	적용	선택
삶에서 중요한 인물 만나기	배움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	미래의 직업과 일을 준비하는 진실한 경험	현실을 반영하는 직접적 경험	스스로 결정할대 생기는 책임감?
선생님과 학교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관심사 재능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내 관심사와 연관성이 있는가?	학교에서 내가 하는 학습과 작업이 학교 밖의 직업 공동체 전문가 가족 고용 주로 부터 의미있게 여겨지는가?	내가 배우는 것을 실제 세계의 환경과 맥락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학습하고 내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가?
도전	놀이	연습	시간	시기
자기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탐색하고 실험하고 실패해 보는 기회	기술과 수행력을 더 예리하게 기다들기	학습이 아닌 성장을 위한 시간	오로지 스스로 배움을 원할 때
학습이나 작업을 할 때 나는 적절하게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실패로 낙인찍힐 염려 없이 실수를 하고 또 그로부터 배울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탐험할 기회를 누리는가?	내가 배워야 할 기술을 익힐 때 깊이 있고 꾸준한 연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가?	나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가?	표준화된 과정을 벗어나서 나만의 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가?

출처: 엘리엇 워셔 외(2014), 넘나들며 배우기

최근 5년간 금산간디학교 인턴십 참여자 수는 평균 15명이다. 한 학년에 2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되는 학교 규모로 볼 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턴십 교육과정제에 대한 참여와 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최근 5년간 인턴십 교육과정 참여학생수와 참여현장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참여학생수	11	14	12	19	20	중복 참여 있음
참여 현장	11	14	12	22	27	

현장은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며,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기 까지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된 우리나라 특성 상 서울 경기권의 현장이 수적으로는 다양하고 많다. 하지만 지역의 현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산간디학교 인턴십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장과 네트워크를 해왔으며, 학생들은 지역의 현장에서 활동한다.

[표 29] 금산간디학교 인턴십현장 현황(최근 5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충남	금산 인삼골건강마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금산 신명나는 지역아동센터 조사장커피	젊은협업농장(홍성) 평촌 요구르트(홍성) 민택기 사진관(홍성) 들락날락 협동조합 두루미책방	두루미책방 들락날락 협동조합카페 단텔리온(아산)	금산평화 지역아동센터 들락날락 협동조합
충북		청주 사슴클러스터 극단 청사			
대전	우금치 케치업	대전 김재연 작가님 대전 유기동물 보호소			나우심리 상담센터
경남 부산		팜프라	간디어린이학교	열매지기공동체	창업지원센터 스테이션K 쿠루미제과 허니랩타로 박소희 간디어린이학교 팜프라
경북 대구					hoola
전북				성평등 전주 완주미디어센터	협동조합 마고 청년목수 협동조합(완주)
전남	영암선애빌				목포 공장공장

서울 경기	강북실버요양원 극단 고래 송연옥연극치료 연구소 유쓰망고 이츠케이스 택매직	L E O V A D GRAFFITI 미리내미술 뮤지스땅스 파크집 충정로점 씨티알사운드 창 감독	제비다방 씨티알사운드 김민섭작가님 한국다양성연구소 아트스튜디오 아카데미 책방이음	김준성 공공선 연구소 알맹상점 과천맑은샘학교 아트스튜디오 향기숲힐링 프렌즈술편 Flowith 박수련(한스아동 청소년상담센터) 박준희 안무가 이파슈(수제케익) 모예(타투) 여성환경연대 인테리어임송 (매니저) wisegirl.vintage 키스카르마	제비다방 매거진 쉼 베이비베어 빈티 지숍 라보빈티지 브루멜테일러 김창원(드러머) 사교육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 사람들 조렌즈 까르띠스
제주		착한여행사			

3. 인턴십의 성과 1)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착

인턴십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지만, 유리되었던 공간을 ‘장소’로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3가지의 관심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①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금산 양조장의 규모는 저희 학교 큰아람 두 개의 크기 정도가 되고 사장님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시고 총무님이 생산을 하십니다. 사장님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금산양조장으로 오신지 6년이 되셨습니다. 사장님은 주로 막걸리 판매와 트럭을 타고 납품이나 배달을 하러 가십니다. 사장님을 따라다니면 금산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그분들 한분 한분 마다의 성격 그리고 금산에 모든 곳을 여행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걱정은 과연 40년이 지나도 이런 지역양조장들이 살아있을까 었습니다....단순히 술을 마시러 오시는 게 아닌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나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금산양조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편한 전혀 부담 없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2016년 참가자).

특히 도시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생각해보지 못한 선택지이지만,

경쟁과 성과에 내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오히려 ②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인턴십을 다녀오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 지역 청년공동체 같은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 살롱드마고에서 인턴십을 하며 협동조합마고의 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 늘 도시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원에 머무는 동안 작은 도시에서 일하며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아보였다. 그런 삶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삶이 좋아보였다(2021년 참가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관심은 금산에서 ③ **실제 다양한 실험과 창업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3년부터 금산간디학교 졸업생들은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면서 활동(별에별꿀 등)을 시작하였고, 2015년 금산 문화의 집에 지역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청년 네트워크 들락날락⁴⁷⁾(이하 들락날락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들락날락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청년자립학교 아랑곳(2016년)’은 졸업 후의 배움터이자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금산간디학교의 졸업한 청년들을 지역에 남게 하였다. 한때 20여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창업의 경우, 2014년 마을기업 별에별꿀(청년자립공동체), 2017년 카페 조사장 커피, 빵집 안녕하식빵, 술집 술하다, 연하다 여관(금산 유일 게스트 하우스), 두루미책방 등 금산시장을 중심으로 탄생한다. 또한 청년활동은 후술할 청년정책사업 및 문화예술, 축제기획, 도시재생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금산의 청년정주와 활동에 큰 타격을 주어, 창업자, 활동청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지역을 떠나거나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 현재 남은 청년들이 10명 정도⁴⁸⁾로 크게 축소되었다.

47) 이후 임의조직이었던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은 이후 협동조합으로 조직됨

48) 필리핀 간디학교 출신자 1인 포함

[그림 28] 금산간디학교 졸업생의 창업공간



출처: 월간 토마토(6월 134호), 블로그 미미의 일상, 안녕하식빵 페이스북

[표 30]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청년활동·기간·현황

번호	이름	정주이유	인턴십내용	금산에서의 일	정주기간	금산정주	떠난 이유	현 거처
1	조00	창업	주제가 있는 카페(예: 흥대 제비다방)	조사장커피	2017~2021	세어하우스 원룸 임대	코로나로 매출급감 ,서울 확장이전	서울
2	김0	창업, 청년활동	사진, 베이커리	안녕하식빵(제 빵)	2017~2019	세어하우스	창업 경영의 어려움	서울
3	이00	창업, 청년활동	청년복합문화 공간	술하다 (카테일바)	2018~2021	세어하우스	진로 변경	서울
4	이00	창업, 청년활동	잡지사	두루미책방	2019~2021	금산 숲속마을	진로 변경	전북
5	손00	청년활동	음악, 문화기획	버스킹, 밴드활동, 청년커뮤니티	2018~2019	세어하우스	사회복무 요원	서울
6	강00	청년활동	만화, 미술	청년커뮤니티 활동, 공방 운영	2018~2019	세어하우스	진로 변경	경북
7	전00	창업	사진, 영상	청년스튜디오 창업	2018~현재	세어하우스 원룸 임대		금산
8	이00	청년활동	공동체, 문화예술기획	청년커뮤니티	2018~2019	세어하우스 원룸임대	진로탐색, 문화활동	전북
9	전00	창업, 청년활동	공동 육아어린이집	연하다여관 창업, 들락날락협동 조합 대표	2017~현재	세어하우스 금산숲속 마을		금산

10	이00	창업, 청년활동	문화기획	들락날락협동 조합 창업	2015~현재	금산숲속 마을		금산
11	조00	창업, 청년활동	노동, 문화기획, 극단	들락날락협동 조합 창업, 두루미책방 창업	2014~현재	세어하우스 가족 이주		금산
12	이00	창업	청년창업	술하다 공동 운영	2019~2020	세어하우스		옥천
13	오00	청년활동, 아르 바이트		인삼시장 택배 매니저	2018~2021	세어하우스		경기
14	양00	청년활동, 아르 바이트			2018~2020	세어하우스		제주
15	태00	청년활동	청년공동체	들락날락협동 조합, 두루미책방 협력	2022~현재	자가		금산
16	원00	청년활동	음악가	들락날락협동 조합, 두루미책방 협력	2022~현재	자가		금산
17	최00	청년활동	문화기획	들락날락협동 조합, 두루미책방 협력	2022~현재	세어하우스		금산
18	안00	청년활동	문화기획	들락날락협동 조합, 두루미책방 협력	2022~현재	세어하우스		금산
19	김00	청년활동	문화기획	들락날락협동 조합 협력, 삼선재단 청년인턴십	2014~현재	세어하우스		금산
20	이00	청년활동	문화기획	청년커뮤니티 운영	2015~현재	원룸 임대		금산
21	변00	청년활동	문화기획, 공방운영	복잡문화공간 공방 운영	2018~2019	자가(본가 귀촌)		서울
22	김00	청년활동	문화기획, 공방운영	여우잡화점 운영, 유리공예	2018~2019	세어하우스		서울
23	민00	청년활동	문화기획	들락날락 커뮤니티 운영, 별에별꼴 창립	2013~2017			-

4. 인턴십의 성과 II) 대안학교와 지역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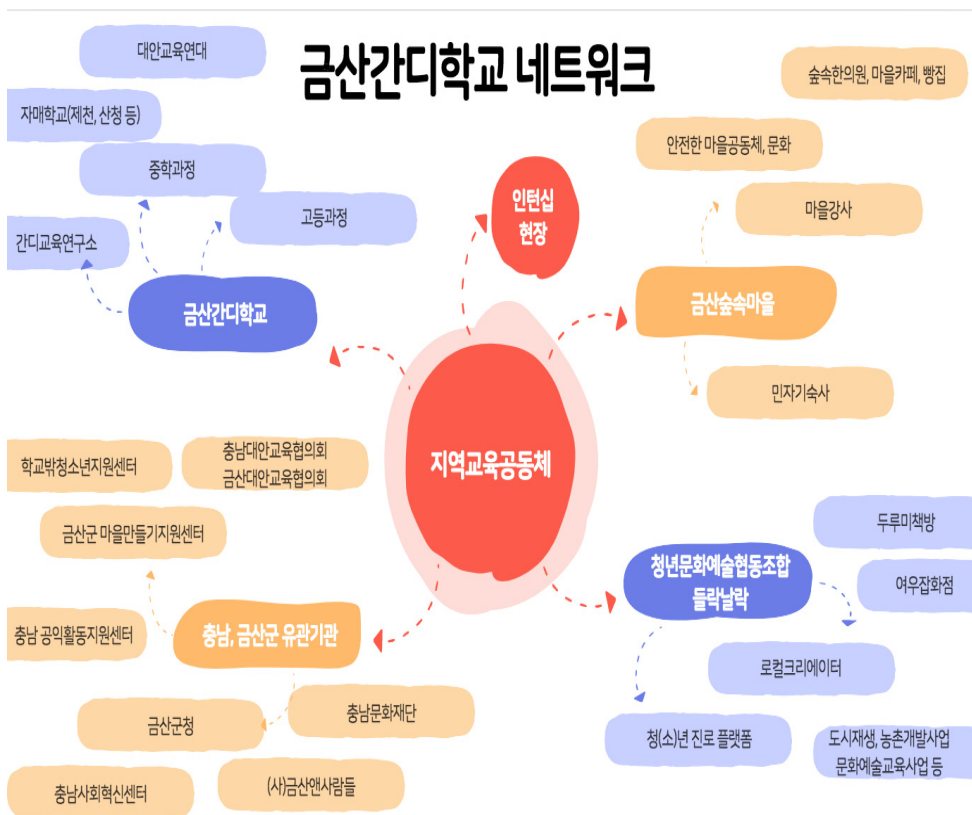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연계프로젝트와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① 우선 다양한 지역활동 참여하게 된다. 2019년에는 들락날락협동조합이 금산 금빛시장 월장프로젝트(축제)를 추진하게 되는데, 들락날락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산간디학교 재학생들도 참가하게 된다. 나아가 월장프로젝트는 금산간디학교와 들락날락뿐만 아니라 인근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와 레드스쿨 등의 청소년들도 참여하게 하는 성과를 이룬다. 이후 2019년 금산인삼축제 등과 기획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대안학교가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표 31] 금산간디학교가 수행한 지역프로젝트

프로젝트와 활동	내 용
독거노인프로젝트(2017)	매곡리 독거노인들과 만나서 건강을 위한 반찬 나눔
지역나눔프로젝트(2018)	인삼골건강마을 공연, 사회복지법인 다솜 장애인과의 만남, 소풍 등
예술공방프로젝트(2018)	금산 향교 앞 세월호 추모제 개최 및 실패찌 판매, 기부
에너지전환프로젝트 (2018~2021)	금산 월장 참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판매, 모금
창업 프로젝트(2018)	금산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창업인큐베이팅 교육 및 실습 참여” 닭강정, 공예, 밀크티, 호떡 등 먹거리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2019)	금산을 청년몰 졸업생 창업 특강, 청년몰 창업자 만남을 통한 관계맺기,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분식, 핸드메이드 약세사리 등 아이템 개발
홍삼 창업 프로젝트(2020)	홍삼액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 신고 등
창업 프로젝트(2021)	중부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지원, 창업 교육 및 사업계획서작성, 빈티지 카페, 청소년들을 위한 무알콜 칵테일바 등 아이템 개발
금산 시장 월장(2019)	판매부스, 체험활동, 스텝, 공연 등의 참여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2019)	들락날락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4개 대안학교 및 지역 학교 참여,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공연(밴드, 연극, 오케스트라 등), 청소년 선언문 낭독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인삼축제 참여

② **지역과 지자체의 정책사업의 참여 및 기획**을 하게 된다. 2015년에 시작한 들락날락 청년 커뮤니티는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네트워크파티, 지역자원 이해하기,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실험하면서, 2016년 충남도의 지역착근형인재육성사업,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랩공간 조성사업 등 청년정책위원회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만들었다. 특히 지역 착근형 인재육성사업은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의 모델을 정책화 한 것으로 충남 청년정책과 청년 커뮤니티 육성에 큰 기여를 한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들락날락 청년 커뮤니티 활동 현황을 보면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금산간디학교의 지역 교육 네트워크



[표 32] 청년네트워크 들락날락의 연도별 활동내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코로나19	
참여 청년수	약15명	약20명	약25명	약35명	약20여명	약 20여명
커리 컬럼	문화예술분과 -인문학(언어 구조학, 페미니즘, 신화 등) -몸치유이야기 (한방치유) 소셜커뮤니티 분과 -숲에서 살기 -시골집고쳐살 기 창업분과 -창업을 위한 힘 기르기	- 몸치유이야기 - 퍼머컬처 디자인코스 72시간(7기) - 생활기술분과 - 소통의 글쓰기	- 몸치유이야기 - 퍼머컬처 디자인코스 72시간(8기) - 금산 MAKERS - 소통의 글쓰기	- 퍼머컬처디자인 코스&폴학교(15 회기) - 소통의 글쓰기(10회기) - 지역문화콘텐츠 와 청년 비즈니스(10회기) - 도농교류청년캠 프&워크숍 "섬표"(4회)	-도시재생과 청년활동 -마을교육공동체 와 청년의 역할 -창업 비즈니스 컨설팅(사회적기 업가 육성사업 10기)	-지역로컬 비즈니스 -금산군 청년활동 가능성(중간 지원조직가 의 만남) -완주군 사례 공유
청년 커뮤 니티	알파밴드(음악) - 낭만포차(창업) - 주머니 사정(청년주거) *청년커뮤니티 지원은 충남도청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후원	내가대장간(생활 기술) - 숲에서 활쓰기(생활기술) - 동동동 밴드(음악) - 전환마을축제 기획 - 알고떠들자 (시사토론) - 예술하다(공공예술)	- 페미니즘 - 숲에서 활쓰기(생활기술) - 버스킹(음악) - 청년문화기획 - 공방(문화예술) - 예술하다 (공공예술) - 주말극장(연극)	청년문화기획 '청길동 동아시아 청년연대 여성주의 심리학 예술하다 지역청년문제 연구	극단 이중생활 두루미 책방 글쓰기모임 타로카드 지역청년 네트워크 방방공공(사회혁 신리빙랩사업)	극단 이중생활 나무스페이 스 (목공) 자원발굴단 금산햇빛초 친환경생활 용품만들기 비누방울랑(영상)
	3팀	6팀	7팀	6팀	4팀	6팀
단계	실험과 도전기	정착기	완성기	발전기	자립초기1	자립초기2
	-청년자립학교 아랑곳, 거버넌스 시작	-청년자립학교 아랑곳의 정착,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 시작	-배움, 주거, 네트워킹 세 가지 키워드의 완성 -청년문화예술협 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지역 청년비즈니스 모델개발 -도농교류 등 청년인구유입 캠프, 실험	-청년문화예술협 동조합 들락날락 설립 및 운영 -온라인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문화상품 디자인	-금산군 도시재생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및 사업 영역 확대 -디자인, 행사 이벤트 기획 등
후원	교보생명,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	충남도청, 금산군청	충남도청, 금산군청	충남도청, 금산군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충남사회혁신 리빙랩	충남도청, 금산군청 충남사회 혁신센터 충남연구원 충남공익 활동 지원센터 등

제3절 사회적기업 ‘K-2 International’

1. 개요

K2 인터내셔널(K-2 International)은 일본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1989년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니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2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동생활서비스, 자립 및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기회 제공이다. K2 인터내셔널은 일본의 요코하마 및 이시노마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호주의 시드니, 한국의 서울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설립해 활동을 시작했고,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청년들에게 자립프로그램인 공동생활 쉼어하우스와 견습 훈련소 ‘슬로 카페 달팽이X시시:밥’을 운영했다⁴⁹⁾. 또한 2012년부터 한일 청년들의 고민과 자립문제를 논의하는 한일청년포럼을 기획하고 운영하였고, 서울과 요코하마에서 7회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킹에도 참여하고 NEET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니트·히키코모리 청년들에 지원활동 추진했다.

2. K-2인터내셔널의 사업특징과 현황

K2 인터내셔널의 목표는 ‘네트워크의 힘으로 청년들이 활력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지원사업, 취업지원, 주거지원, 지역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의 K2 인터내셔널의 경우, 사업은 청년자립지원부문과 음식료부문으로 나뉜다.

49) 2021년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 중단중이다.

[표 33] K2 인터내셔널 사업부문

청년자립지원 부문	음식료 및 기타부문
Y-MAC요코하마 APPRENTICESHIP센터 쇼난·요코하마 서포트스테이션 청년일응원학원 '유스서포트·유스워크 후지사와'	오코노미야키 전문점 '콜롬버스' 식당 '니코마루' 요코하마미나토종합고교 학교식당 임대오피스 'Negishi Live Box M6' 게스트하우스 'GS-K2 등

출처: K2 인터내셔널 홈페이지(<https://k2-inter.com/k2japan/>)

K2 인터내셔널은 청년들에게 은둔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 취업기술 → 취업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립지원은 공동생활 서비스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이거나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청년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매너를 알려준다. 두 번째 자립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의 청년(15세~40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및 취업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합숙형 견습센터를 운영중이며, 청년들 중 취업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의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취업기회 제공서비스다. K2 인터내셔널은 위의 훈련, 즉 기초적인 생활습관, 직업훈련을 수료한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카페, 세탁소 등의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30] K-2 인터내셔널 청년사업 범위



「함께 살기」

-공동 생활-

혼자 있을 때는 몰랐다.
함께 사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



「함께 일하기」

-직업 훈련-

같이 고생하는 기쁨,
내 몸으로 돈을 버는 자존감!



「연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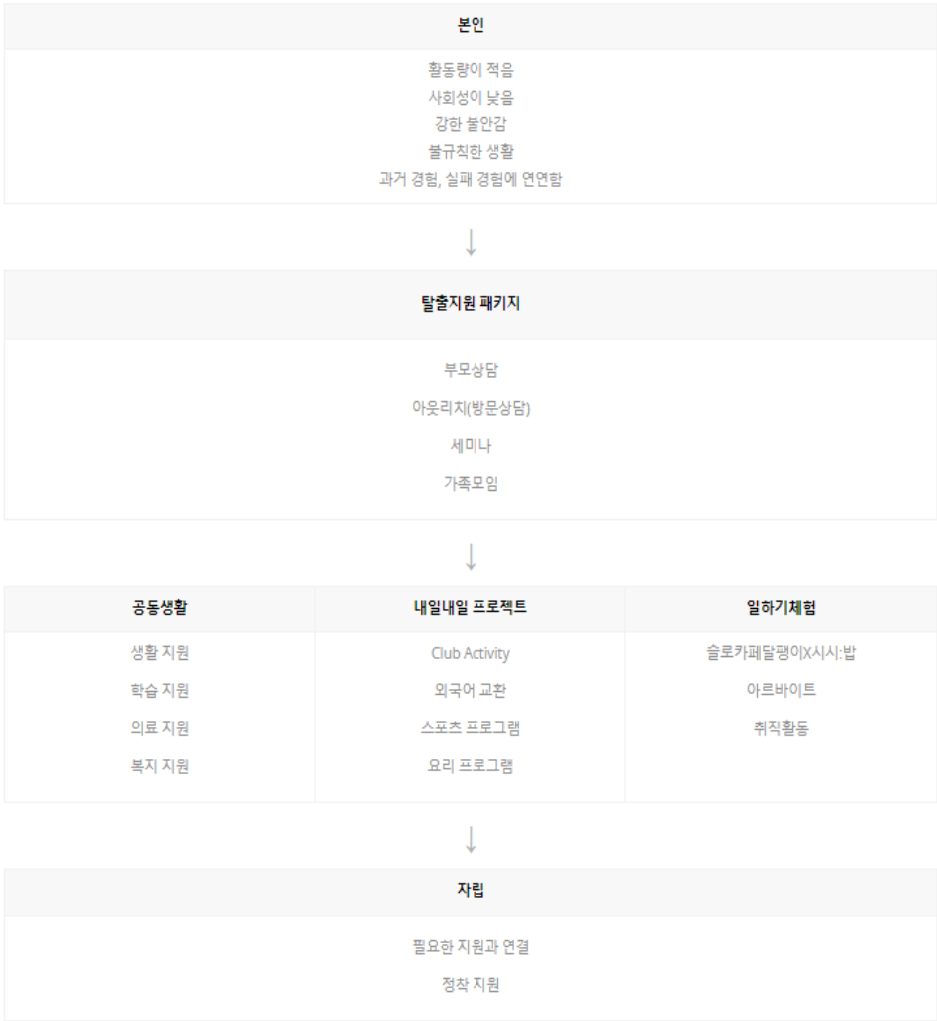
-다양한 네트워크, 포럼 활동-

한일청년포럼, 청년정책네트워크
성북구의 다양한 청년 지원활동 등등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로!

출처: K2 international korea 홈페이지(k2-kr.com)

현재 근무하는 대다수가 K2 인터내셔널 서비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며, k2인터내셔널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목적인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실제 기업체 운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경우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추진되고 있다.

[그림 31] k-2 인터내셔널 지원범위 및 방법



출처: K2 international korea 홈페이지(k2-kr.com)

제4절 시사점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가지는 공통적 목적은 **진로(교육)에 있다**. 특히 메트스쿨의 경우 공교육의 실패를 인턴십이라는 교육방법론을 채용하여 성공시켰다. 그들의 교육방법론과 철학(리얼월드러닝)은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교육 과정의 중요한 방법론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메트스쿨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교육방법론은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기반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특히 메트스쿨의 졸업반의 경우 공동체 기반한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금산간디학교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동체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금산간디학교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실제생활의 경험을 통해 지역정착에 대한 관심과 자신만의 삶을 살 수 갈 수 있는 용기(자신감)를 제공했다(Ralpa 1976, Smith 2002). 금산은 그들에게 애착하는 ‘장소’가 되고, 다양한 실험(활동)과 창업을 통해 지역정착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아래는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졸업년도별 정주경험자 수이다.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졸업생의 수가 20여명임을 감안하면, 지역정주를 시도하는 청년들은 매우 많다. 많은 때는 졸업생의 25%, 4명중 1명이 지역에 남았다.

[표 34]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지역정주 경험

졸업연도	2016년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주경험	5	5	3	2	-	-	4

그러나 단지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험만으로 청년들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산간디학교(Anker 기관)와 교사(인턴십 매니저, Connector), 다양한 지원정책(청년학교, 셰어하우스)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때 가능하였다. 졸업생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초창기(2015년) 모인 청년들은 교사의 ‘부름’과 ‘일자리’를 매개로 자리를 잡는다⁵⁰⁾.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나도 저들(졸업생)처럼

50) 제5장의 졸업생 전00, 이00의 인터뷰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아볼 수 있는 용기(실험을 할 수 있는)까지 얻는 눈덩이효과(Snow bowling)를 보였다⁵¹⁾. 더 나아가 금산간디학교출신들이 만든 들락날락협동조합의 경우 인턴십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K-2 International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확대된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진로교육(현장기반)의 목적과 성과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에서처럼 지역과의 관계성,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청년 개개인의 장소성(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51) 제5장의 졸업생 조00의 인터뷰

제5장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인터뷰조사의 경우, ① 인턴십 운영자 및 ② 인턴십 경험자(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① 인턴십 운영자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천받은 대상지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3곳을 선정하여 방문 인터뷰 실시하였다. 선정된 3곳은 인가형 대안학교 1곳, 비인가 대안학교 1곳, 사회적협동조합 1곳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인턴십 프로그램 대표 또는 담당자였고, 인터뷰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② 인턴십 경험자의 경우, 추천을 받은 금산간디 학교 졸업생(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대면인터뷰)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 경우,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① 대안학교 재학생과 ② 관계자 대상으로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1) 인터뷰조사의 조사내용은 ① 인턴십 운영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전반, 인턴십 중심 교육과정 현황, 지역사회 연계성과, 정책수요 등이었다. ② 인턴십 경험자의 경우, 인턴십의 경험, 인턴십의 자기진로 도움 및 지역관심 촉진관계, 지역정주 및 정책필요 등이었다.

2)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①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인턴십의 경험·지역정주 관심도·정책수요 등 이었고, ② 관계자의 경우 ① 인턴십 운영현황·지역정주 관심도·정책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제2절 인터뷰조사

1. 운영자대상 결과

1) 이우학교 (인가형 대안학교)

1. 설립배경
- (시작) 97년에 새로운 학교(대안학교)* 필요성과 방향 논의시작 - (설립이념과 목표) '21세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인간' * 당시 '새로운 학교'의 목표는 경쟁교육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였음 - (위치 등) 수도권에 대안학교와 생태마을을 동시에 설립하기로 결정. 대안학교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과 적정규모*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 * 적정규모: 서로를 알 수 있는 규모 - (설립위원회) 협동조합 운영 검토하였으나, 당시 협동조합은 학교운영불가로 학교법인으로 추진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설립자모임인 이우교육공동체 구성하고, 100인 중 이사회 선출
2. 주요연혁
- 2003년 이우학교 개교 - 2005년 이우생활협동조합 이전(학교→마을) 개소 - 2006년 사단법인 이우교육연구소(함께여는교육연구소) 설립 - 2010년 경기도혁신학교 지정 - 2018년 교교육점제 연구학교 지정 - 2020년 학교협동조합 이우락쿰 창립
3. 운영 및 현황
- (현황) 학생수 중학교과정(정원120명/현원126명), 고등과정(정원160명/현원161명) 교수 총 51명이며, 중학교과정 23명, 고등학교 28명 - (특징) 교육부인가 대안학교(대안형 특성화중고등학교) 및 비기숙형 대안학교 민주적 운영 및 결정구조 중요시하며,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교사회의임
4.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 (개요) 개교당시부터 현장에서 배워야한다는 마인드로 공통교육과정으로 추진 - (내용) 봉사활동 2회, 여행2회, 그 외에도 선택활동으로 NGO활동 추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 (초창기) 인턴십프로그램 사업장을 학부모들이 소개시켜주거나, 학부모들의 회사에 가서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딱히 배울 것은 없으나 이후 정착함 - (현황) 인턴십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오프라인 사업장은 동네 자영업업을 하는 학부모(졸업생 학부모 포함)가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인턴십으로 학생 선호직업에 대해 인터넷강좌, 학원강좌 수강가능(최소시간 인정) - (마을 인턴십 필요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아짐. 그러나 지역사회 인턴십 연계사업장이 부족함. 적극적인 지역사회 성장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존재. 마을공동체에서 여러 지역사회 기획프로젝트 추진 중
5. 성과 - (시작) 2014년도부터 기획한 애프터스쿨레(애프터스쿨, 일종의 갭이어), 즉 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해서 마을을 활용해야겠다는 고민에서 추진하였음 - (현황) 현재 열일곱 인쇄학교, 우주소년, 쿠키무이*, 해피쿠키, 사다리 등 지역사회사업장에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졸업생의 사업장(우주소년 등)이 존재 *쿠키무이- 성남 지역아동센터 졸업생들과 이우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쿠키 가게 운영 (청년의 자립과 추진내용) 청년들의 지역에 남는 이유는 다음단계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가 대부분. 청년작업장은 고등학교 이후의 삶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다음의 단계가 필요. 마지막단계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 협동조합의 목적은 청년지원에 있음 (성과) 청년작업장을 운영해보니 아이들의 20대초반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보니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있음
6. 정책제언: 마을인턴십과 중간지원기관 설치 - (마을 인턴십 필요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아짐. 그러나 지역사회 인턴십 연계사업장(현장)이 부족함. 적극적인 지역사회 성장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존재. 마을공동체에서 여러 지역사회 기획프로젝트(일명, 마을인턴십) 추진 중 -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성 확보) 이우학교의 경우, 마을에 학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많은 편. 지역의 경우 이런 마을어른들과 연계할 점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마을어른들과의 관계가 중요함. 이를 통해 인턴십을 확장시키고, 지역생태계 활용, 발굴이 중요 - (회귀시스템 구축 필요) 대안학교만으로는 지역에 남으려는 청년이 많지 않음.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나 남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필요.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청년)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시스템 조성이 필요 - (중간지원기관 육성) 지역마다 교육공동체와 같은 센터가 필요하고, 그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벤치마킹이 필요. 또한 지역간류 청소년(청년)과의 지역생태계 구축필요
 

2) 별무리학교 (비인가형 대안학교)

1. 설립배경
- (시작) 2012년에 기독교학교이자 공립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공립학교 교사들이 시작하고 학교 시작, 공립학교 교사들이 기금을 모아 지원함. - (설립이념과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지향하며, 공동체, 살롬(정의), 제자도, 소명의 4대 핵심가치와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의 3대 역량을 교육과정 전반에 녹여내고 실천 - (위치 등) 충남 금산군 남일면에 소재, 산을 매입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한 가운데 학교를 운영, 교사들이 만들고 살아가는 교육마을 공동체와 학교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정신을 구현. * 적정규모: 초중등 150명, 고등 150명으로 초중고 통합학교이나 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설립위원회) 자발적 연구모임으로 시작하여, 사단법인 교사선교회의 이사를 중심으로 학교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2. 주요연혁
- 2012년 별무리학교 개교 초5,6,7학년 약 60명 동시 선발하여 기숙형 학교 운영 - 2014년 9학년(중3)인도이동수업 8개월 과정 운영 - 2014년 학교 부속 별무리교육연구소 설립 - 2015년 별무리고등학교 과정 시작 - 2016년 미래형 학생맞춤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 개정 - 2018년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2019) - 2022년 고등학교 6회 졸업(누적 졸업생 약 220여명) - 2022년 충청남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3. 운영 및 현황
- (현황) 학생수 초중등과정(정원186명/현원147명), 고등과정(정원160명/137명) 교사수 총 41명이며, 중학과정 20명, 고등학교 21명 - (특징) 충청남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 기숙형 대안학교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7년차)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학생 인정, 개설수업은 교사만이 아닌 학생 가능하며,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등을 활성화하여 운영 - (민주적 운영) 대학입시를 너머 학생의 역량개발과 참된 진로탐색과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며, 학교 운영을 민주적 운영 및 결정구조와 재정적 독립과 공공성을 추구.
4.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 (개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정신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과 학교 문화를 조성 - (내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주간을 조성하여 프로젝트 심사 및 지원금 지원(팀별 30만원 이내, 20개 팀)지원하며, 지역사업 공모전 참여(신활력지원사업) 및 예산활용하고 있음. - (인턴십) 고2학생 대상 금산지역 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신문사 등), 금산 대전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연계 진로의 날 운영 등

-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사례) 주요 사례로, IOT기술 기반의 스마트팜 프로젝트(지역 농업인기술교육),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지역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 이타적 자서전 프로젝트(지역 어르신 자서전 제작), 똑똑똑 프로젝트(지역 어르신 복지지원, 도시락배달, 자동화 물주기 시스템 지원 등), 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3D앨범지원프로젝트(대전 맹학교, 한국정보통신연구원과 협력), 금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신활력사업 지원) 등
- (읍내 거점 시설 필요성) 학교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배치 필요, 교육과 사업성을 충족하는 모델 개발 필요

5. 성과

- (개요) 2022년부터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 출범 예정, 졸업생들이 돌아와서 창업 도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참여
- (현황) 졸업생 4명의 갭이어 참여, 졸업생에 의한 이드베이커리* 창업, 졸업생과 마을, 교가 함께 하는 마을 협동조합 출범
 - * 이드베이커리의 작업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 사용(마을허락)
- (청년의 자립과 추진내용) 청년 자립과 정주지원을 위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졸업생을 위한 학사건축, 6명의 거주 공간과 사무 공간 마련, 협동조합의 센터가 될 카페 및 도서관 건물 건축 추진(2023년완공예정),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개팀 참여
- (성과) 졸업생 및 지역청년과의 연대와 소통, 2명의 졸업생 합류, 청년 및 졸업생 지원의 취지에 동참하는 펀드 조성, 교육 및 IT, 외식 분야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2022)

6. 정책제언: 청년 정주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청년들의 일터 및 지역멘토단 확보)** 지역 내 청년 지원사업을 돕고자 하는 인증된 일터를 확보하고 그 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청년들에게 경험과 조언을 해줄 지역사회 멘토단 풀을 확보
-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장소 확보)** 청년들이 모여 대화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 확보, 청년의 고민을 나누고 문화활동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 확보
- **(청년 정부지원금)** 졸업생들의 갭이어와 청년 정주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대안학교에 운영비 지원
- **(청년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도농,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교육프로그램, 청년 특강을 마련하여 지역을 넘어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일하는 학교(사회적협동조합)

1. 설립배경
- (시작)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설립 - (역할) ①진로길잡이: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 ②시작점: 경험과 만남(해보고 싶은 일을 직접해보고, 나를도와줄 전문가를 만남) ③비밀언덕: 취업하고 잘 살때까지 오래 함께함 - (위치 등)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405-2번지
2. 주요연혁
2012년 성남시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공모사업 선정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설립 2014년 고용노동부 위기청소년 취업지원사업 위탁운영 2018년 카페 매장 운영시작(분당구 수내동) 2019년 청년맞춤제작소 개소(성남이로운재단 협력사업) 2020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0년 카페 그런날 오픈(성남시 금광동)
3. 운영 및 현황
- (현황) 일하는 학교 인력은 총 7~8명이며, 비공식인원은 1년 프로그램을 마치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의 목표는 20대 중후반 성인기 이행을 위한 일경험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학교임. 대안학교의 한계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함. 현재 조합원 160명 중 진로 현직자 멘토* 혹은 사업주*가 64명.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준조합원의 차원까지 넓히면 120명 정도 활동중 * 인턴십현장 및 멘토 발굴- 기존 네트워크(아는 기업)+면대면 소기업 설문조사 통해 발굴 (운영) 재정규모는 6억원 정도이며, 카페 운영 수익 1억원, 성남시 지원금 1억 3~4천, 센터(청년재단) 운영 1억, 지원사업, 공모사업 1억, 후원자 기부금(회비) 7~8천만원 정도
4.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길찾기 학교) 20대 초반 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직업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기초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마을에서 활동해보고 지역기업에서 인턴십 활동을 수행

(청년맞춤제작소) 19~34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들에게 생계형 알바 대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진로설계, 다양한 경험, 직업능력 개발, 차근차근 취업준비,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 중 다양한 경험에서 현직자 멘토링이나 일경험·인턴십은 지역기업에서 주로 수행

(카페 그런날)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취약계층 청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돌봄으로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 사회진출, 자립지원활동을 수행

5. 성과

- (카페 그런날) 2015년부터 길찾기 학교 과정에서 바리스타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2016년 분당구 수내동에 카페사업(카페 온더 테이블) 운영을 시작함.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과 청년들이 인턴십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지역행사나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에 대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기업의 의미를 찾기도 함
- 재정부족으로 2019년 카페사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2020년 매장크기를 줄여 이전함. 그리고 스타벅스 재능기부사업 12번째 지원 대상이 되어서 공간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 매장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음

6. 정책제언:

(위기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통상적으로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지역에서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성장을 추구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함.



2. 졸업생대상 결과

이름	성별	졸업년도	출생지
전00	여성	2015.2	서울
조00	남성	2018.2	대전
이00	여성	2012.2	공주

1. 현재 하는 일

- 전00: 0000협동조합 이사장, 문화기획 및 청년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조00: 00책방 대표, 기본소득 관련 단체활동, 축제 등 예술프로그램 운영
- 이00: 청년자립학교 000 대표 등 청년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디자인업무 수행

2. 금산에 남은 이유와 활동

- 전00: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아 고민. 금산과 간디학교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맞음 발견하고, 간디학교(박00)선생님으로부터 협동조합 들락날락의 보조강사로 활동. 이후 금산문화의집 취직(2016), 연하다여관 창업(2017), 청년교육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다.
- 조00: 졸업 후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선배·단체·멘토가 있는 금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연극 및 축제기획)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남았다.
- 이00: 처음에는 금산에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졸업후 해외봉사활동(1년), 한국에 돌아오니 청년문제가 심각하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 대전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한계를 경험했고, 당시(2015년) 간디학교(박00)선생님과 의기투합하여 협동조합 들락날락 설립후 활동해 왔다.

3.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험

- 전00: 수도권의 미용, 디자인업종 기업과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인턴십을 하였다.
- 조00: 노동이슈와 연극을 좋아해서 민주노총충북본부, 우금치마당극단에서 활동하였다.
- 이00: 웹진을 만들고자 홍대의 인디문화축제기획팀에서 인턴십을 하였다.

4. 인턴십 프로그램과 진로

- 전00: 인턴십을 통해 자기가 생각했던 진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알았고(**“막연함을 깨우치다”**), 자신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조00: 관심있는 직업군의 생활패턴을 알 수 있었다. 인턴십을 통해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겠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 이00: 자신의 시기에는 금산간디학교에서 인턴십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멘토 등 지원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했다. 자립적인 활동의 시작이었다.

5. 인턴십과 지역(정주)관심 관계성

- 전00: 인턴십이 지역적 관심을 극적으로 높인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역에 인턴십이 많아지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본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높인다고 본다
- 조00: 인턴십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 이00: (자신의 학창시절)예전과 달리 인턴십이 지역과 관련된 곳이 많고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생태계가 구축이되었다고 본다. 인턴십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정주를 위해서는 **인턴십(현장경험)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의 경험, 이후 창업(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6.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전00: **인턴십을 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단순 진로탐색만이 아닌 현장에서 일에 대한 사전교육 등이 필요하다.
- 조00: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인턴십 장소에 대한 소개 및 인턴십교육 등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 이00: 금산간디학교의 코디네이터선생님(박00)과 같은 분이 한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소개시켜주실 분이 말이다.

7. 기타(지역적 관심을 높이는 방법)

- 전00: **서울에서는 소비자입장이지만, 금산에서의 나는 생산자 입장에 서 있다.** 서울에서는 내가 왜소해 지는데(이유는 단순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금산)에 있으면 다르다. 지지해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00: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간적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기 어렵다. 금산에서는 인사하는 관계를 통해 이런 것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하고 일도 잘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금산에는 청년 관계인구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관계와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이00: 지역적 관심(장소)는 지역만을 생각하면 청년들은 거의 떠난다. 그러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존재하여 남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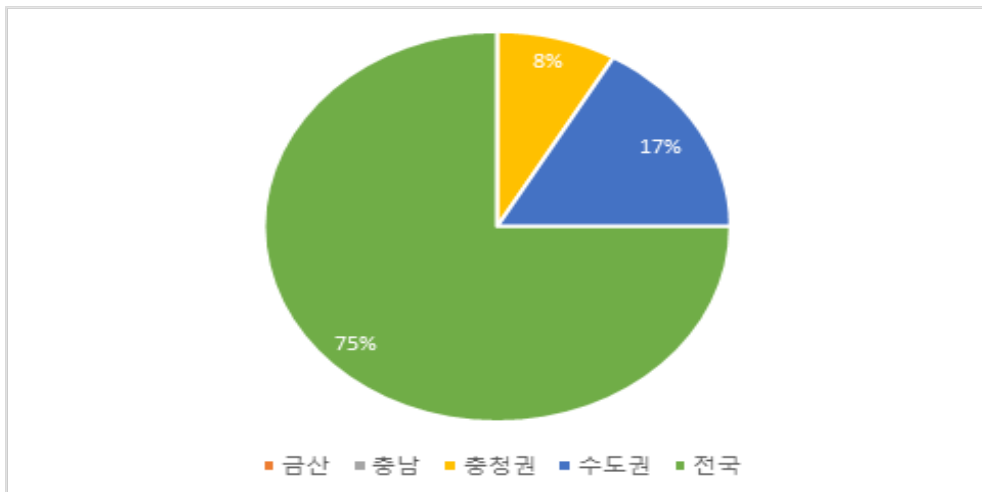


제3절 설문조사⁵²⁾

1. 재학생대상 설문결과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학생들의 인턴십은 전국적 이루어지고 있었고(75%), 수도권 (17%), 충청권 (8%)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인 인턴십의 경험은 2학년 공통인턴십 프로그램(서울, 공주, 옥천, 제주 등)의 경험이 크게 좌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학년의 경우, 전국, 수도권, 충청권 등의 선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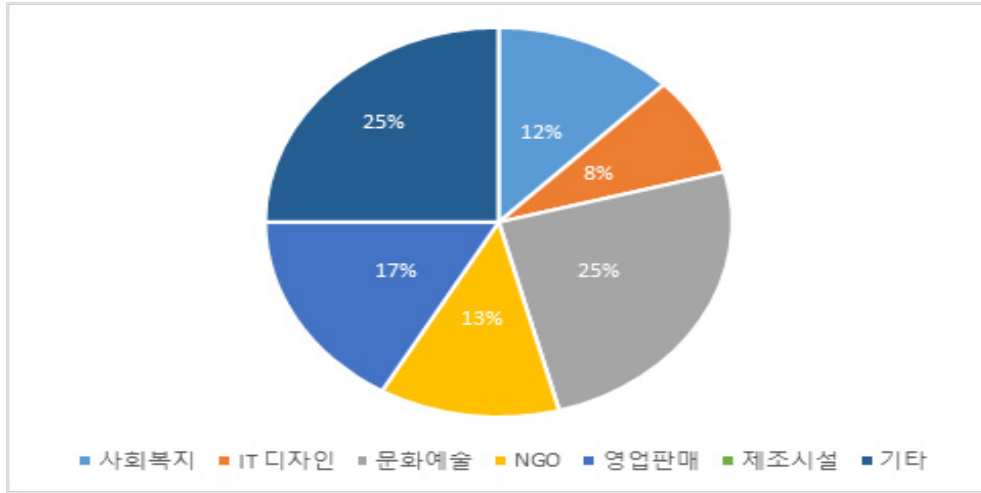
[그림 32] 인턴십 지역



인턴십의 기간은 50.0%의 재학생이 1주~1개월 정도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외의 학생들은 탐방형식의 인턴십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턴십 기관은 문화예술 기획관련 기업장(25.0%), 상점 및 영업판매 관련 사업장(16.7%), NGO 등 공익기관과 사회복지 등 대인서비스 기관(12.5%), IT 및 디자인 관련기관(8.3%) 등 순이었다. 기타(25.0%)로 인턴십 기관으로 사회적기업과 대안학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생산기업에는 한명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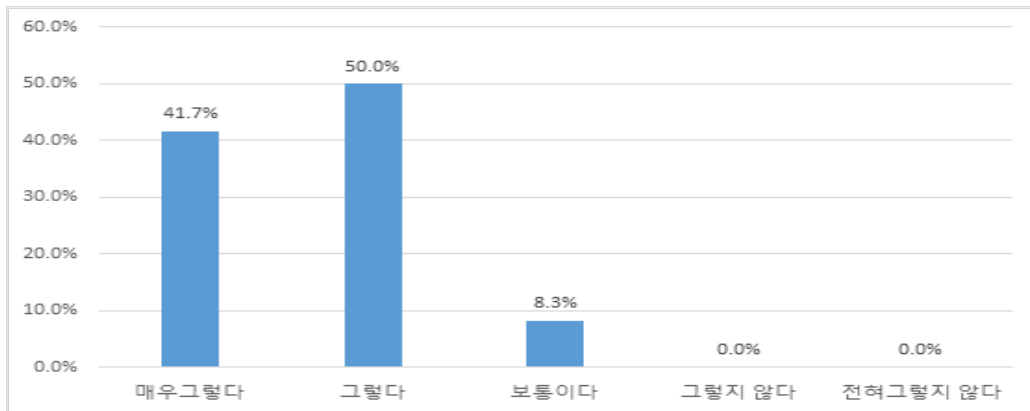
52) 설문조사는 인턴십 참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턴십 참여자는 금산간디학교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학년 8명, 3학년 4명이 응답하였다. 운영자 대상으로 설문참여한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남성은 9명 여성은 3명, 직위로는 대안학교 교감 2명, 교사 9명, 교육연구소장 1명이었다.

[그림 33] 인턴십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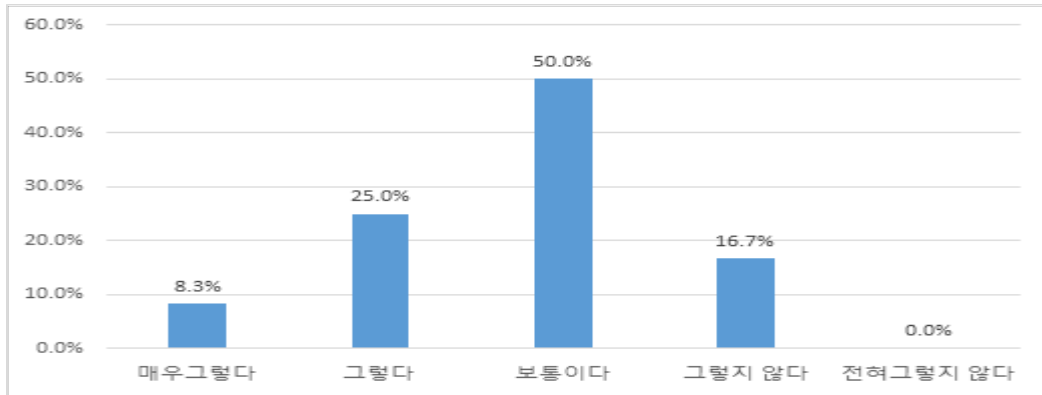


인턴십이 진로탐색에 매우 도움이 된다(5점)과 도움이 된다(4점)이 91.7%로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행과 지역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때, 긍정적 반응(33.3%)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16.7%)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반응(50.0%)로서 큰 유인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인턴십은 직접적인 지역정주(한번 살아볼까)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58.3%의 학생들이 지역(금산)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턴십프로그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살아가야할 지역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정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 인턴십 후 진로결정 도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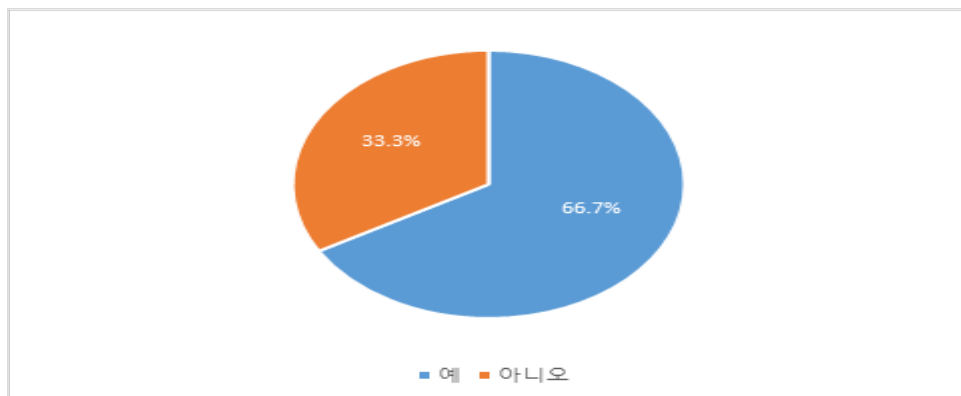


[그림 35] 인턴십 후 지역관심 증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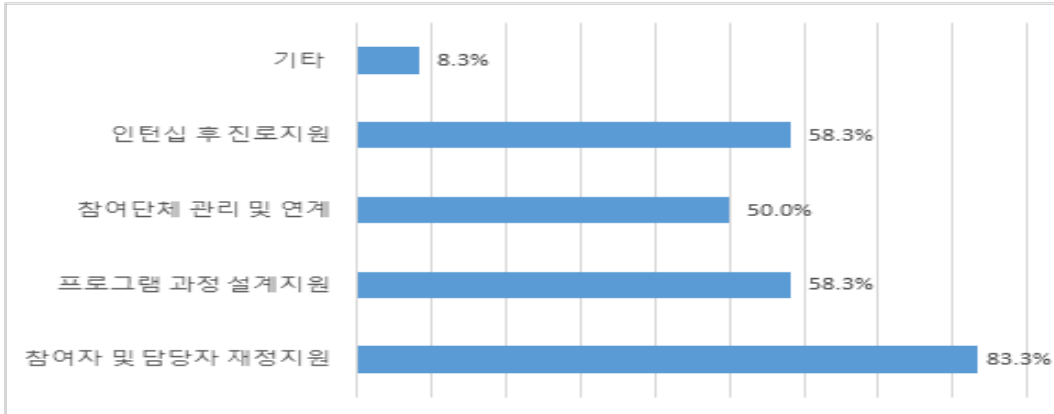
현재 자신이 원하는 인턴십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보다 충남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느냐의 질의에는 66.7%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변하여, 충남에서 적극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및 사업장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충남에서 인턴십 의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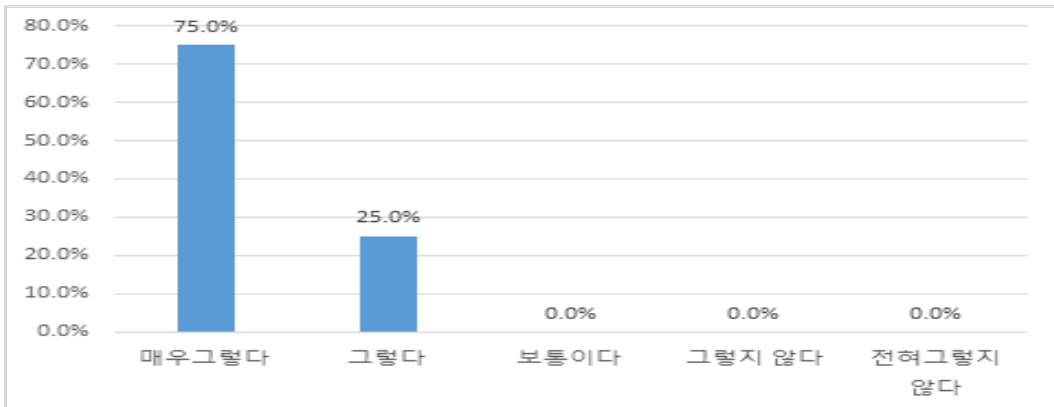


또한 인턴십 활성화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적 지원(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설계 컨설팅 및 인턴십 이수 후 참여자에 대한 진로지원(58.3%), 참여단체 관리 및 연계(50.0%) 순이었다. 인턴십 참가자들의 경우, 숙박 및 교통비 등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7]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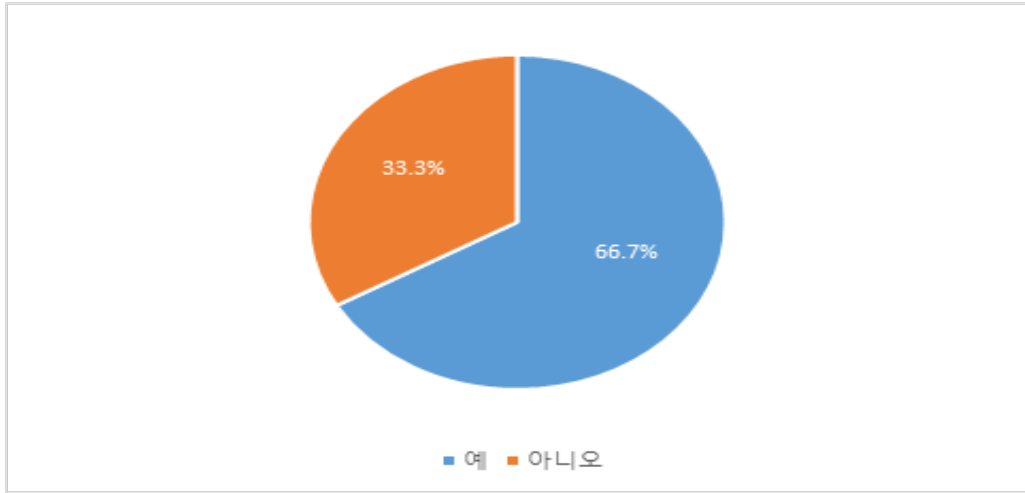


[그림 38] 인턴십 지원기관의 필요여부



졸업 후 금산(또는 충남)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66.7%의 학생이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다음과 같은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이 존재하였다. 즉 금산(충남)이 가지는 지역적 특징에 대한 바라봄(시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동시에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성장가능성에 대한 도전정신도 존재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정착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이다. 금산간디학교의 졸업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자신도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은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의 성과가 지역자원(Stocks)의 형태로 지역에 내재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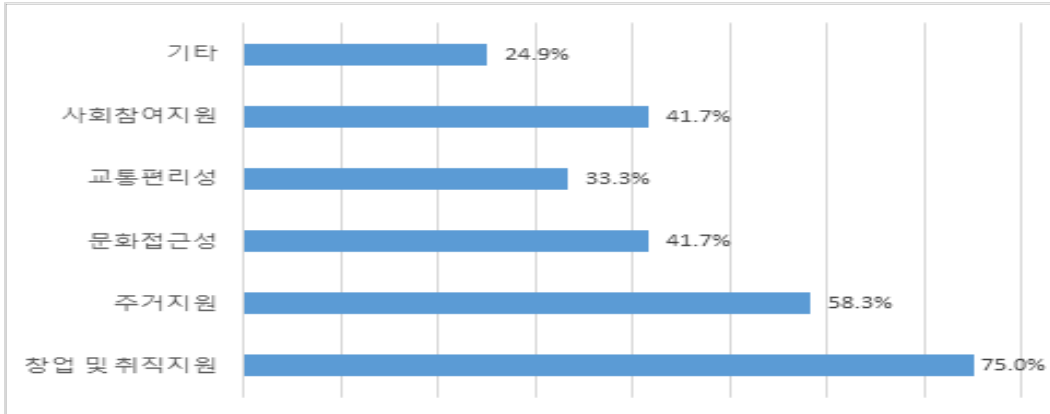
[그림 39] 졸업후 금산(충남) 정주의향



살아보고 싶은 이유
- 죽어가는 수도권 외 지역사회를 청년들이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턴십 탐방을 하며 보았다. -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도시를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 - 도시보다는 지역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역들을 살려보고 싶어요 - 자연환경이 좋아서요. - 마음이 좋아진다 여유로워짐, 활력을 얻음 - 금산 자연 환경이 좋고, 정착한 졸업생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다른 지역에서 보다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이 많고 졸업 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졸업이후에도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다 - 지금 사는 데라서
살기 싫은 이유
- 다른 지역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굳이 여기에서 살고 싶은 장,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매리트가 없다 - 인프라 부족, 제가 원하는 규모, 직업의 회사가 금산에는 없다고 생각되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충남은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간디학생들이 금산(또는 충남)에서 살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75%), 주거지원(58.3%), 문화접근성 및 사회참여지원(41.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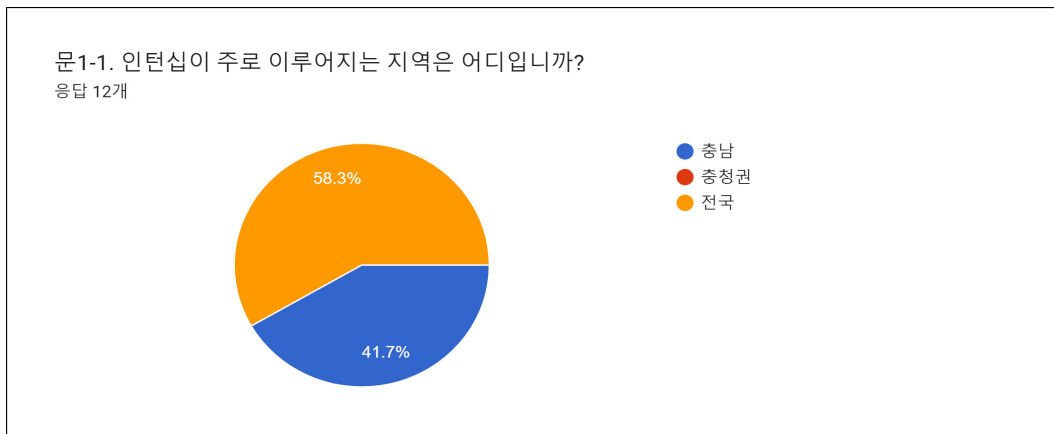
[그림 40] 지역정주에 필요한 자원



2. 관계자대상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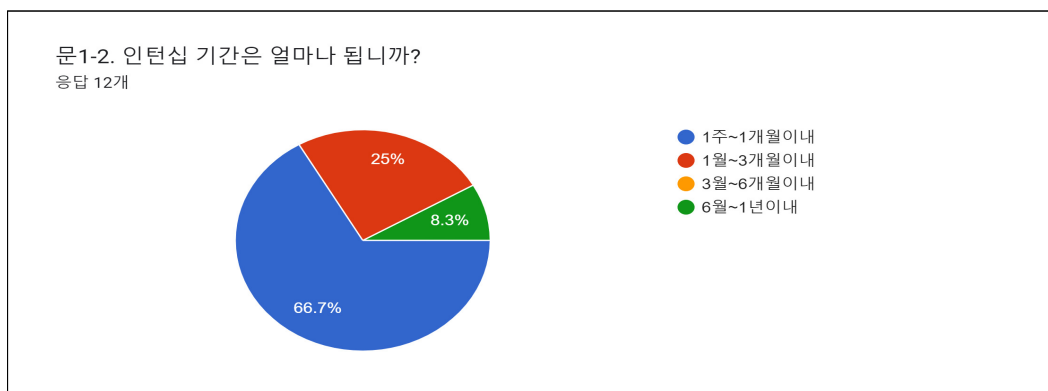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묻는 물음에 전국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3%였으며, 충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7%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FGI 역시, 인턴십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업을 학생이 직접 찾아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학생들은 충남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니즈에 맞게 전국단위로 기업을 찾아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인턴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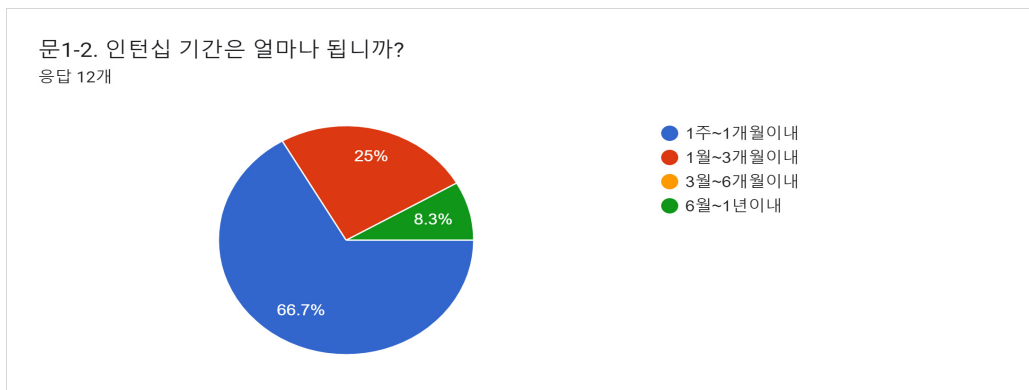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묻는 물음에 1주일~1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중이 66.7%였으며, 1개월~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중이 25.0%, 6개월~1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중이 8.3%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인턴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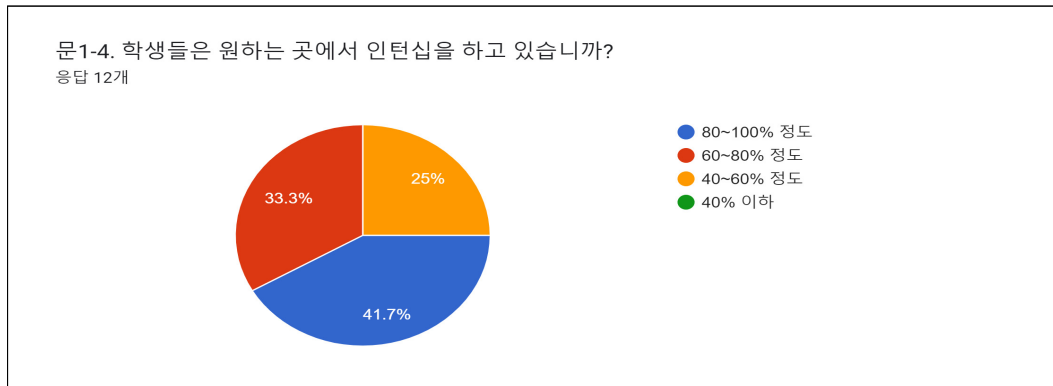
참가자들이 원하는 인턴십 장소를 묻는 물음에 사회복지 등 대인서비스 관련 사업장이 83.3%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턴십 장소였고, NGO 등 공익관련 사업장이 75%, 문화예술 기획관련 사업장이 66.7%, IT 및 기획관련 사업장이 58.3% 등의 순이었다. 공익활동에도 관심이 많으며, 문화예술과 IT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3] 인턴십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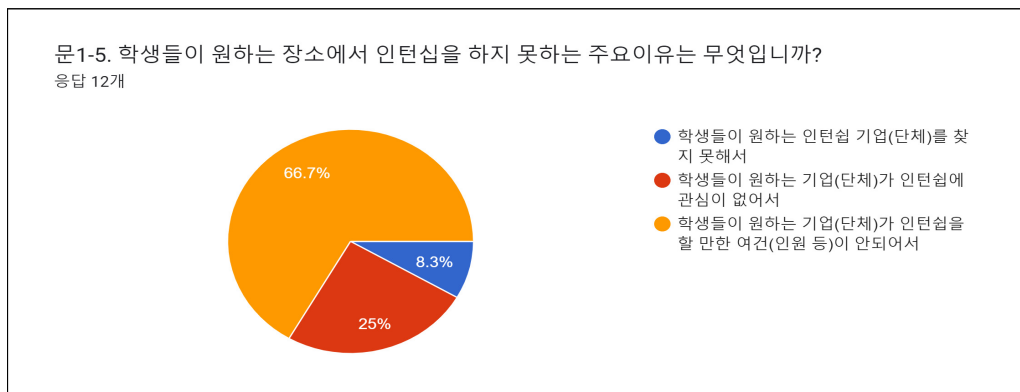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80~100%정도 원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1.7%로 가장 높았고, 60~80%정도가 33.3%로 대체적으로 원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4] 희망 인턴십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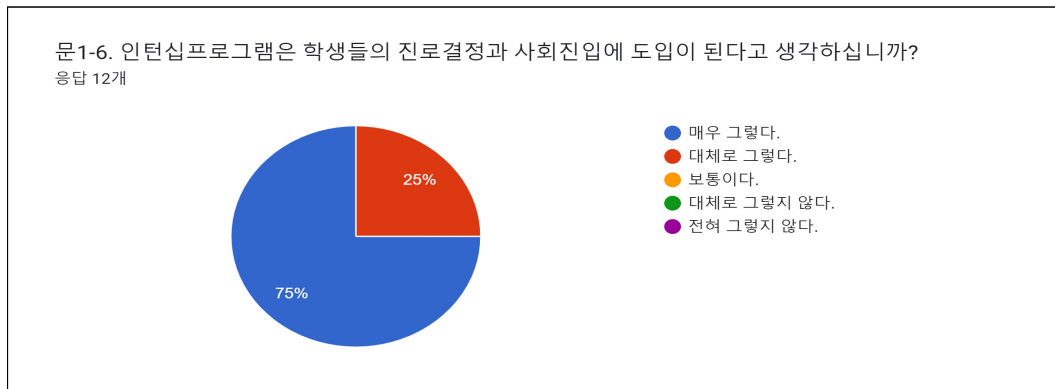
학생들이 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물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인턴십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인턴십에 관심이 없어서가 25%, 학생들이 원하는 인턴십 기업을 찾지 못해서가 8.3%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해 보고 싶은 기업의 인턴십 여건개선과 관련 역량개발이 인턴십활동의 활성화에 필수지원 항목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희망 인턴십기관 경험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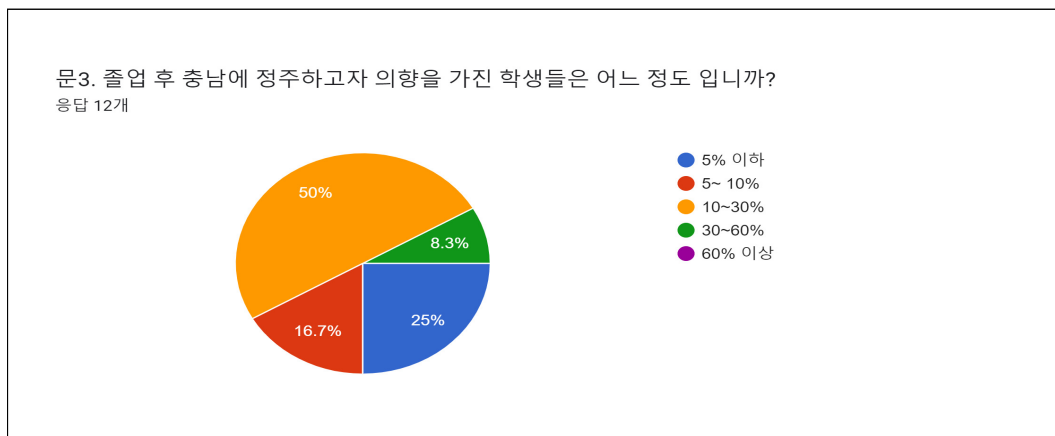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사회진입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5%,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25%로 대체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사회진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인턴십의 진로결정 도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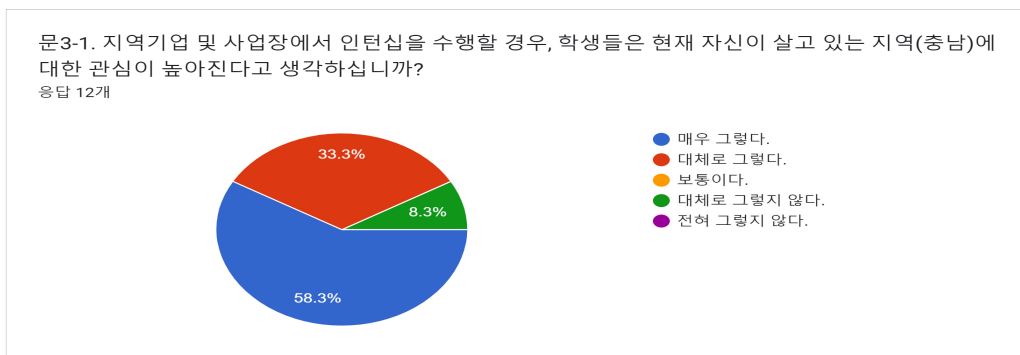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졸업 후 충남에 정주하고 싶은 의향을 가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문항에 10~30%라고 응답한 비중이 50%였고, 5%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25%, 5~10%라고 응답한 비중이 16.7% 등의 순이었다. 졸업 후에 충남에 정주하고 싶은 학생들은 높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대안학교학생 충남 정주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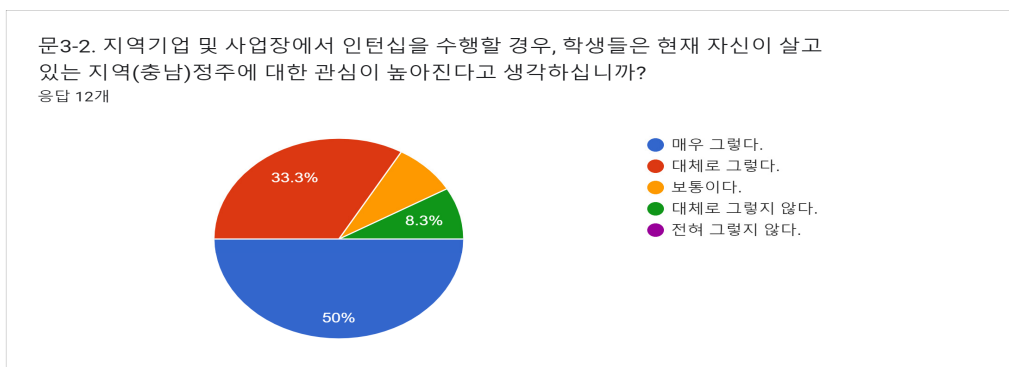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진행했을 경우,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는지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3%,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3.3%였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8.3%였다.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8] 인턴십 후 지역관심 증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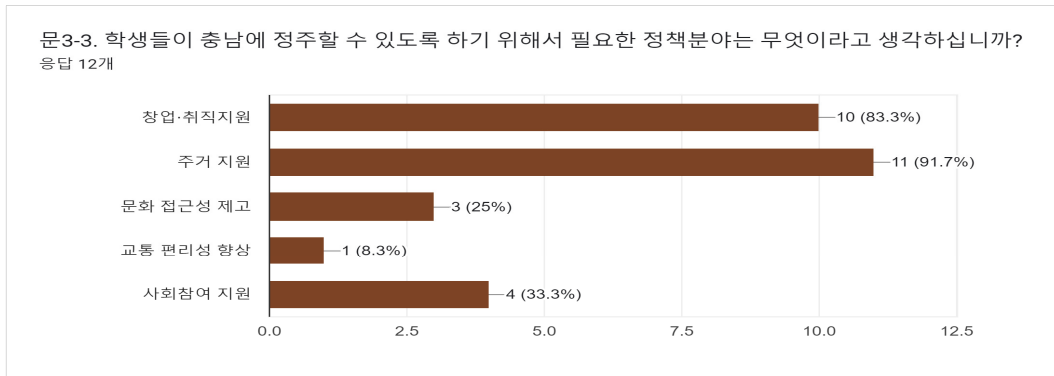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진행했을 경우,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정주에 관심이 높아지는지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0%,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3.3%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역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9] 인턴십 후 지역정주 관심증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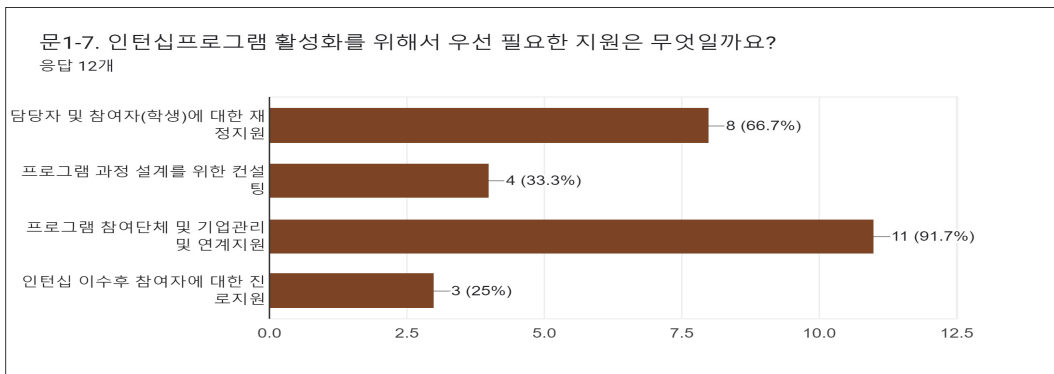
학생들이 충남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분야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업·취직 지원이 83.3%, 사회참여지원 33.3%, 문화접근성제고 25% 등의 순이었다.

[그림 50] 정주촉진 정책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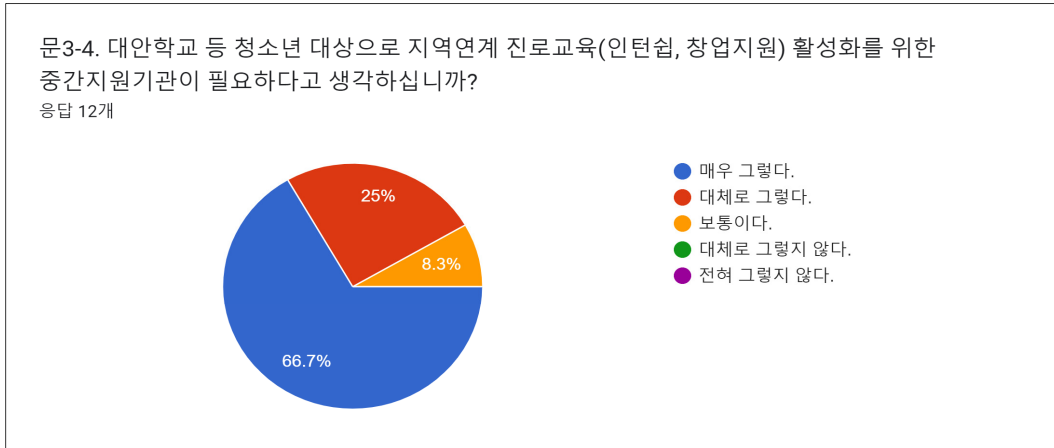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 프로그램 참여 단체 및 기업관리와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담당자 및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66.7%, 프로그램 과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이 33.3% 등의 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인턴십 활성화 필요지원 분야



대안학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계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6.7%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25%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52] 인턴십 중간지원기관 필요여부



제4절 시사점

이번 조사를 통해 연구진은 대안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가능성은 청소년들에게 ①새로운 일 경험, ②도전의식 고양, ③지역 사회 관심제고, ④지역사회의 참여 및 기여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계로 ①인턴십 현장부족, ②지역사회 및 담당교사의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우학교의 마을인턴십의 경우, 현장의 부족을 지역사회의 어른(부모포함)들이 인턴십 현장으로 내주거나, 프로젝트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였다⁵³⁾. 일하는 학교의 사례에서도 인턴십 현장의 발굴 중요성이 나타났다. 인턴십의 장소는 현장(기업 및 단체)이 인턴십 대상과 인턴십 의미에 동의를 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발굴은 쉽지 않고, 확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족현상은 역으로 인턴십을 위한 사회적기업(일하는 학교, k-2 인터내셔널)등으로 전개되거나, 마을공동체(이우학교)가 적

53) 이후 관련 프로젝트들은 안착하여 청년창업기업 및 공간으로 자리잡음

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의 부족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담당교사의 역량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장여부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이우학교의 담당자는 지역마을 공동체의 주요한 행위자로, 적극적으로 인턴십현장 및 프로젝트 기획의 중심축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도 청년작업자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후술하겠지만, 어드바이저이자 멘토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별무리 학교의 경우, 다양한 외부자원(예산 등)을 활용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동네)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마을자원을 졸업생들의 일 경험의 장소(이드베이커리)를 만들어 내고, 관련기능을 가진 졸업생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⁵⁴⁾. 이와 같은 것은 초기의 활동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스템이 아닌 일부의 인적자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의 제한성은 인턴십의 확장과 확대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일하는 학교의 경우, 인터뷰에 응한 담당자⁵⁵⁾는 대안학교 교사였다가 한계를 경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대안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한정된 현재의 틀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4)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55) 기관의 주요설립자중 1인

제6장 정책제언 및 과제

제1절 기본구상

1. 정책 필요성

우리나라의 초기 청년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청년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 등 청년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청년고용은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⁵⁶⁾을 기반한 사회이행기(진입기)의 어려움 개선정책(job guarantee)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용(일자리)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청년의 사회이행기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확장한 것, 즉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의 전 분야인 청년주거, 청년문화, 정치참여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반면 충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청년정책은 비단 청년의 사회이행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감소라는 인구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청년인구 감소는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추세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지역이주에 관심 있는 수도권의 청년들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 조사와 논의를 확인하면, 현재의 생활(급여 및 주거 등)이 유지되는 조건에서의 약 과반수가 지역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주고려 대상지는 광역시급 대도시(약60%) 또는 20~30만의중소도시(약 35%)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인구소멸지역(소도시, 10만이하 등)에 대해서는 신술적으로 따져서 실제 5%도 되지 않는 도시청년들이 지역이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제는 자신의 삶이 유지되는 조건이다.

56) 정규교육 종료 및 실업상태 이후 4개월 이내의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또한 충남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의 50%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에서의 청년정책은 기존의 사회이행기의 어려움 극복정책(Job Guarantee)에서 심화 또는 전환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청년의 삶의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절실하다.

‘나는 왜 여기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삶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경우, 일명 청년귀환프로그램이라 하여, 청년유입과 정체성 찾기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정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원(주거·활동·육아 등)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즉 지역애착·연고·유대감을 기저에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에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현장경험 없는’ 교육적인 이해가 실제 지역관심으로, 나아가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 존재한다.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참여할 때 청년의 지역정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김정섭 2018, 김재홍 외 2017, 황여정 2017, 조수진 외 2015 등). 이에 연구에서는 일의 경험(work experience)은 지역애착의 고양과 정주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Smith 2002),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과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의 지역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장소성을 고양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교육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인턴십은 일반적으로 현장실습과는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관련 직업현장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과 자발적인 선택, 그리고 멘토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존재한다(이치열 외 2020). 이는 기능의 습득과 초보 노동자라는 개념에 입각한 현장실습과는 궤를 달리하는 개념이며, 전 세계적으로 혁신학교(메트스쿨 등)에서 채용하는 방법론으로, 사회와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은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입시에 방해된다’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이

57) 금산간디학교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졸업한 청년들이 지역정주(창업 등)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주에 대한 관심은 재학생과 대안학교 관계자간 차이(재학생 58.3%, 관계자 83.3%) 존재한다.

존재한다(이치열 외 2020).

이에 비해 대안학교는 다양한 대안적 교육방법론을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금산 간디학교의 경우 적극적인 인턴십을 도입하여 청년(졸업생)들의 지역정착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지역정주에 관심을 높이는 등 내면의 동기(‘한번 살아볼까’)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대안학교(Anker기관), 교사(Connector) 등 사회적 자본과 함께 시간에 따라 축적된 졸업생 정주자(인적자본)은 재학생들에게 도전해 볼 만 용기를 주었다. 더 나아가 대안학교 및 지역청년들과의 지역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지원까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제껏 학교(교육)가 마을과 지역네트워크의 협력(마을교육공동체⁵⁸⁾)의 수혜자였던 것에서 적극적인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의 중심에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인턴십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담당교사의 역할(어드바이저)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우선 ①대안학교의 운영적 어려움이다. 대안학교의 장점들은 내부적으로는 공교육체계내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입학생의 둔화, 재정적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학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②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의 한계이다. 단순히 기능의 습득이 아닌 학생들의 세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또 다른 교육의 장(場)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사, 멘토의 역량과 인턴십현장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인턴십 현장의 준비부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고, 또한 이 때문에 인턴십을 거절하는 예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턴십 멘토와 인턴십현장의 확보는 인턴십프로그램의 성공에 직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김국희 2022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해 배움자리 자료)

2.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청년유입(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대안학교 인턴십프로그램을 양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대담한 정책 목표(비전 및 방향)와 중점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비전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충남의 청년들(나고자란 청년 및 유입된 청년)이 충남에 정착하는 것으로 삼았다. 물론 청년정착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도 모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략과제는 크게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된다. 정책의 특성상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과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표로, ①인턴십 도입 및 현장발굴, ②충남형 갭이어 운영, ③청소년 인턴수당

지급을 제시한다. 중장기 과제는 ①인턴십 플랫폼 구축, ②충남청년 회귀센터 운영, ③충남형 대안학교 지원을 제시하였다. 우선과제는 소프트웨어 지원적인 성격인데 반해 중장기과제는 인프라 기반의 구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점과제의 우선과제-중점과제는 축적과 확장이라는 관계성을 지닌다. 인턴십현장과 멘토발굴 축적 및 확장을 통해 충남형 인턴십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남형 갭이어 운영의 축적 및 확장으로 충남청년 회귀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청소년 인턴수당 지급의 축적과 확장을 통해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2절 전략과제

1. 인턴십 도입 및 자원 발굴(→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구축)

□ 교육과정 인턴십 도입·자원 발굴

우선적으로 대안학교 인턴십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금산간디학교와 같이 교육의 중점과정으로 인턴십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거의 없다. 부분적 인턴십 도입 역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턴십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높다. 따라서 지역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 인턴십기반 공공형 대안학교 ‘진로탐색 대안학교(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의 개교를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도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턴십 현장과 멘토는 인턴십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턴십 참가자들의 이야기처럼 인턴십은 지역을 경험하는 계기이자, 정착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것은 인턴십을 운영하는 담당자(교사)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인턴십의 지원필요 요소들 중 단연 높은 응답이 인턴십의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단체와 기업관리, 즉 인턴십의 현장과 관리(91.7%)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턴십 현장은 청소년·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①일과 가치의 학습과 경험과 동시에 ②취·창업이라는 실제적인 과업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이어야 한다. 일본의 K-2인터내셔널의 경우, 일과 가치의 학습을 추구하면서도 ②취·창업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K-2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하는 학교 역시 ①, ②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현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 역시 필요하다.

인턴십의 중요한 커넥터(connector)로서의 역할은 대안학교의 인턴십프로그램의 담당자(교사)의 역할이다. 참여자의 관심사항과 계획방향 공유, 관찰 등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마을활동가 및 교사 등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현장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수도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전문적인 멘토의 발굴⁵⁹⁾은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턴십현장 및 멘토 발굴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턴십 현장 ‘인턴스터디기업’ 및 멘토 ‘인턴마스터’ 발굴〉

- 추진방향: 인턴십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현장 및 멘토 지정 후 심화교육 실시
- 내용: 인턴십 현장기업 공모 및 선정 추진
인턴십 분야별 멘토(인턴마스터) 양성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인력의 질 담보
- 참고기관: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충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혁신과 등

□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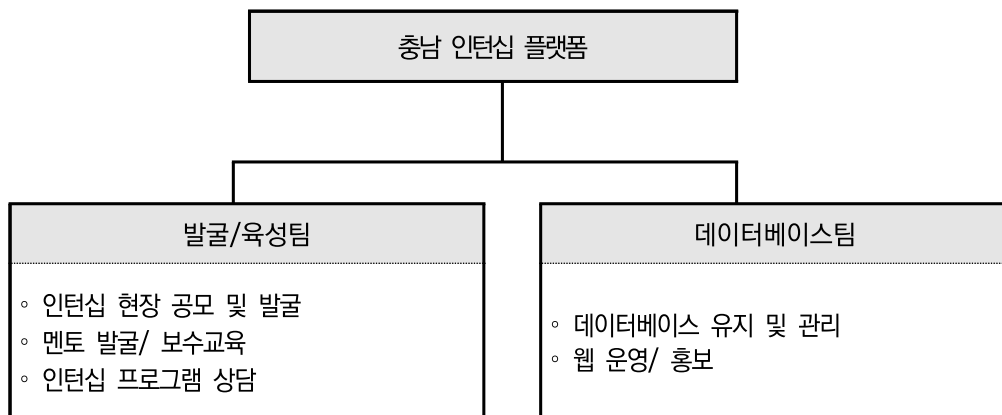
초기 인턴십 도입과 자원발굴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직접사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3년)기간을 마친 후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특화된 대안교육 기관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중간지원기관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인턴십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중간지원기관은 연구조사, 정보제공, 인력양성, 교육홍보, 네트

59) 충남 사회적경제 도제교육 사업 등 참고

워크, 평가,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요구하지만,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의 경우, 중간지원 기관 기능중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홍보 등의 플랫폼기능에 특화된 기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하고 있는 메트스쿨에서도 앱기반 인턴십 플랫폼(ImBlaze)를 개발하여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해당 멘토를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운영 및 조직으로 추진한다.

<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운영개요>	
- 운영근거:	(가칭) 충청남도 대안교육 지원조례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기관:	대안교육기관 중 역량있는 기관
- 위탁사무:	
1) 인턴십	
2) 충청남도 인턴십 현장 및 멘터 발굴·육성	
2) 충청남도 인턴십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3) 충청남도 인턴십 프로그램 홍보 등	
- 참고기관: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충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혁신과 등

[그림 53] 충남 인턴십 플랫폼(안)



2. 충남형 갭이어 II 운영 (→ 충남청년 회귀지원센터 운영)

□ 충남형 갭이어 II 운영

갭이어(Gap year)는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여행, 인턴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가치관을 탐색하는 기간을 말한다.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주요대학에 확산되었다. 최초 발상지 영국의 경우, 800개 이상의 갭이어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라는 갭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2020년까지 누적 프로그램 6천회가 넘고, 2021년 기준 9억 5천만원의 예산 투입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 청년으로 베이직 코스, 워크앤라이프 코스, 프로젝트 코스가 있으며, 베이직 코스의 경우 8주 과정으로 진로탐색, 주제콘텐츠,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교육과 청년수당을 제공하여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시작하여 상·하반기 100명씩 활동비(150만원)를 지급한다. 진로탐색을 위한 여행, 봉사활동, 역량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하다.

충남의 경우, 충남형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정책과)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의 갭이어 프로그램은 충남의 지역의 청년들에게 2~4주 동안 주거 및 생활공간, 지역교류 및 일자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는 외지청년들이 충남을 경험하는 '00살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을 충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에게 확대하여 충남을 알고, 또는 다양한 지역청년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신을 진로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 인턴십을 한 청년들에게 장기 갭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의 신분에서 졸업생(반학생)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충남형 갭이어 프로그램의 충남청년에게 확대하여 운영한다.

〈충남형 깎이어 II 프로그램〉

- 방향: 충남청년들은 누구나가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한번쯤 기회 제공
- 대상: 충남에서 소재 고등학교(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졸업자 및 인턴십 경험자
- 사업내용
 - 1) 대상지역: 충남 및 국내외로 확대
 - 2) 기간: 단기(1달 이내), 장기(~1년)*
 - *장기는 인턴십 경험자에서 선발
- 참고기관: 충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충남 회귀지원센터 운영

최근 일본의 고향회귀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련기관인 NPO법인 고향회귀지원센터의 경우, 고향회귀의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3만 3천건에서 2021년 4만 9천여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대 청년과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여성의 경우 2015년 전체의 상담의 30%정도에서 2021년에는 45.4%로 증가하였다. 20대 청년들은 2021년 21.9%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근교로 이주하려는 수요⁶⁰⁾가 증가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향회귀지원센터 이나가키 후미히코).

이러한 경향성은 비단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가미야마정이라는 인구 5천명의 시골산골 마을에 위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원격 오피스 및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현재 IT,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 15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우리나라 네이버 역시 국내 춘천과 도쿄, 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에서 원격오피스 등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60) 충남청년통계에 따르면 순유출은 남성청년보다 여성청년 3배 높다. 여성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그림 54] 가미야마정의 기업귀촌 사례 I



출처: 일본, 프로젝트 디자인 온라인(<https://www.projectdesign.jp/201805/local-design-2018/004879.php>)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충남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충남으로 귀환(회귀, U턴 청년)을 원할 경우, 또는 외지 청년들(U턴 청년)과 기업들이 충남으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수요에 맞는 대응센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에는 비영리단체로서 고향회귀지원센터가 활동 중이고, 각 대학별로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역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림 55] 가미야마정의 기업귀촌 사례 II



출처: 일본 NPO법인 고향회귀지원센터 및 와세다대학 홈페이지

3. 청소년 인턴지원 (→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

□ 청소년 인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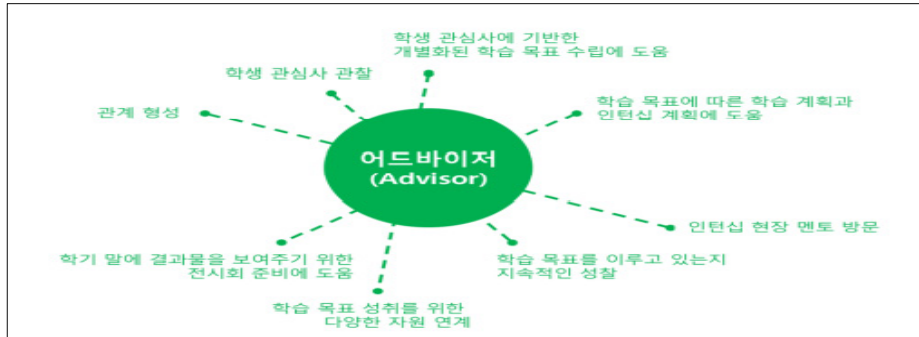
학생들이 활발하게 인턴ships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주거비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는 재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인턴ships 재정적 지원(83.3%)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턴제(취업)지원 관련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교졸업자(예정자) 이상으로 한정적이며, 재정적 지원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최소 20~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또한 참여기업(멘토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지원사업으로는 충남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한해 지급되는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으로 채용인건비, 인센티브 등 최대 2년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당을 벤치마킹하여 **충남 인턴ships 참가자 및 멘토지원(어드바이저)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관부서를 청년 정책과,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등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5] 청소년 인턴 지원내용(예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인턴비*	인턴ships 참가자	1주일~1년이내	실비지급 (식비·교통·통신·주거비등)	*청년정주지원수당
멘토비	기업(멘토)	최대 1년	인턴1인 월 30만원	
인턴지원비	담당교사	최대 1년	인턴제도운영시 월 100만원	*어드바이저

특히 대안학교의 인턴ships프로그램의 성패는 어드바이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드바이저는 학생(인턴)의 관심사 관찰 및 목표지원, 현장 및 멘토 등 자원연계, 인턴ships 발표 등 인턴 프로그램의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메트스쿨 경우, 2~4년 동안 학생을 지원하고, 금산간디학교 역시 2년이상 장기간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6] 어드바이저의 역할



출처: 유쓰망고(2019) 빅뱅컨퍼런스 2019 탐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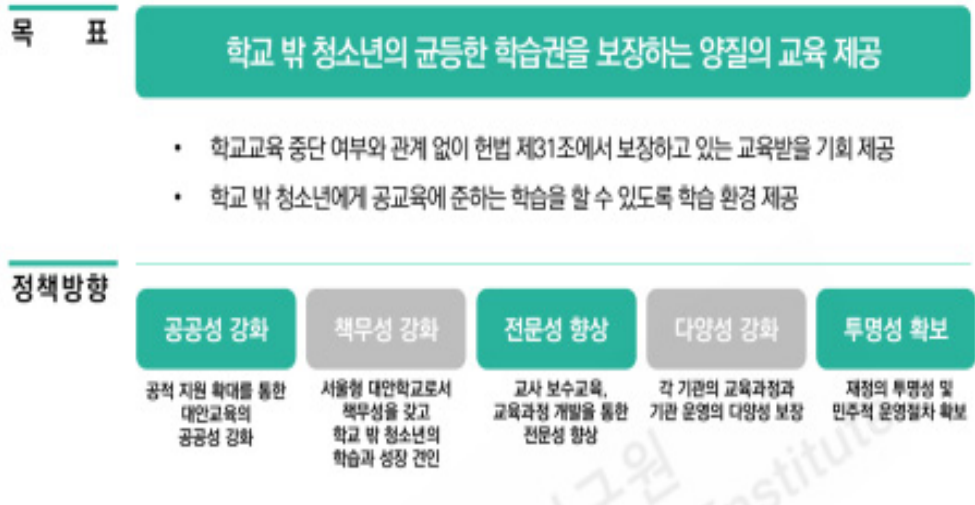
□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①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대안학교의 공공성 강화, ② 대안학교의 책무성 강화, ③ 교사·교육의 전문성 향상, ④ 교육의 다양성 강화, ⑤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절차 확보라는 원칙과 운영 실태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다(이혜숙 외 2020). 지원항목은 비인가 대안학교 재정(교사인건비 및 사업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비 및 전문컨설팅, 학교안전 공제회가입, 직무역량강화 등 특화지원사업을 포함한다.

충남 역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있지만, 이는 대안학교 지원예산으로 볼 수 없다. 도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기회는 동등하다는 원칙하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 대안학교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주활동 지원학교’로서 **추가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은 청년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함과 함께 지역 활동과 취·창업을 연결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바, 인턴십프로그램 도입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의 현재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또는 서울시와 같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의 제정⁶¹⁾이 필요하다.

6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소관

[그림 57]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



출처: 서울연구원(2020)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방안

제3절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이 연구는 청년정착 방법론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방법, 즉 청년들의 니즈, 즉 일자리, 주거 등 외적 환경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내적인 동기의 가능성과 전략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과, 또한 지방에서의 삶 자체에 그다지 청년들이 관심이 높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이다. 불과 5%도 되지 않는 도시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충남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돌아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다랐다. 또한 대안교육과 인턴십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공교육에서도 지역(충남)적 유대감(장소성)을 높이는 교육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입시에 방해된다’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치열 외 2020). 따라서 내적동기를 활성화하고 장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과 인턴십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연구하였다.

우리 지역의 금산 간디학교는 적극적인 인턴십을 도입하여 청년(졸업생)들의 지역정착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지역정착에 관심을 높이는 등 내면의 동기(‘한번 살아볼까’)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대안학교(Anker기관), 교사(Connector) 등 사회적 자본과 함께 시간에 따라 축적된 졸업생 정주자(인적자본)은 재학생들에게 도전해 볼 만 용기를 주었다. 더 나아가 대안학교 및 지역청년들과의 지역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지원까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의 중심에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인턴십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담당 교사의 역할(어드바이저)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우선 ①대안학교의 운영적 어려움이다. 대안학교의 장점들은 내부적으로는 공교육체계내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입학생의 둔화, 재정적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학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②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의 한계이다. 단순히 기능의 습득이 아닌 학생들의 세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또 다른 교육의 장(場)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사, 멘토의 역량과 인턴십현장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인턴십 현장의 준비부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고, 또한 이 때문에 인턴십을 거절하는 예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턴십 멘토와 인턴십 현장의 확보는 인턴십프로그램의 성공에 직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청년유입(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대안학교 인턴십프로그램을 양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과제는 동시에 우선과제(소프트웨어)와 중장기과제(인프라)로 분류하였다.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표로, ①인턴십 도입 및 현장발굴, ②충남형 깎이어 운영, ③청소년 인턴수당 지급을 제시한다. 중장기 과제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①인턴십 플랫폼 구축, ②충남청년 회귀센터 운영, ③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을 제시하였다.

① 우선과제

소프트웨어·추진용이·긴급

 인턴십 도입·자원발굴

- 교육과정으로서 도입촉진(시범)
- 인턴십현장(인턴스터디기업)
- +멘토(인턴마스터)
- +교사발굴

 충남형 캡이어II 운영

- 현재 충남외 지역청년대상
- 충남소재 고교+ 인턴십 수료자
- 장기(~1년) 등 선택지 확대

 청소년 인턴지원

- 재정적지원 必(83.3%)
- 현재 제도대상인원 한정
- 인턴 당사자+교사+멘토지원

② 중장기과제

인프라·시간필요·확장

 충남형 인턴십 플랫폼

- 현장·멘토발굴 및 DB관리
- 정보제공 및네트워크 홍보
- 중심으로 중간지원이아닌 플랫폼
- 대안교육기관 등 위탁운영
- 앱 중심(lmBlaze 참고)

 충남청년회귀지원센터

- 일본 고향회귀 관심 확대
- 일본 다양한 센터 운영 중
- 코로나19, 원격근무 등 수요확대
- 귀환청년 종합서비스
- (주거+일자리)

 충남형 대안학교 지원

- 헌법 제31조 교육기회
- 서울 대안학교 지원
- 학교재정+급식비+직무역량등
- 조례개정: 청소년정주활동 지원학교

2. 향후과제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의 대상 및 방법의 범위를 넓혀 가능성을 타진한 탐색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청년정착 활성화이라는 목적이지만, 청소년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년의 유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인턴십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내적변화를 통한 정착가능성을 모색한 연구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년연구 및 정책연구와는 달리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장소성과 청년정착간의 관계성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사실 최초 연구설계시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발하다고 가정하였고, 충분한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금산간디 학교와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했다. 예상 밖에 시련(?)에 본의 아니게 금산대안학교를 집중적으로 연구(사례연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분히 관계성을 밝히지 못했다. 장소성과 청년정착간의 관계성은 다음 연구에서 고민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과정으로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 및 충북 등은 인턴십 교육과정기반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턴십은 교육과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만 보기에선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서 본 금산간디학교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열정적인 어드바이저(이자 멘토)의 활동으로, 금산이라는 산간지역(?)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인 청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금산은 청년들이 절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모여든다. 모여든 청년들의 실제 고향은 금산(충남)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울, 경기, 대전, 경남 등 고향이 아닌 금산을 선택한 것이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 즉 졸업 후에도 금산에서 터를 잡은 이유는 금산간디 학교가 그들에게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물론 금산간디학교, 지역 주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충남은 청년정책을 오랫동안 해 왔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충남에 남아 있을 이유보다 충남에서 나갈 이유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청년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지역에 청년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공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물론 강력한 이유(일자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자리정책이 아닌 전환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을 펴내야 한다. 전환적 정책의 하나가 우리가 수행한 ‘충남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 내는 내적동기와 사회적 자본들의 강화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전략과 과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제의 특성상 전략방향과 이유, 사업개요에 측면에 강조점이 있어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역시 향후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자인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박성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녀는 금산간디학교의 교사이자 활동가이다. 그녀는 금산간디학교의 졸업생들이 주류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졸업생들을 금산으로 불렀고, 다양한 일자리와 활동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중앙·충남·금산), 공공기관,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며 그들의 ‘자리’와 살 조건(주거 등)을 만들어 냈다. 이번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조사하고, 조언하고, 또한 많은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연구는 중도에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을 정도이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부디 이 연구의 결과가, 그녀가 그토록 소망하는 청년들의 자리가 지역에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경균 외, 20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2020, 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김영화, 대안교육 경험자의 삶 탐색, 신앙과 학문, 20권 3호 pp27~69
김재홍 외, 2017,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2017년 청년허브 기획연구
김정섭, 2018,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들락날락 협동조합, 202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서희주 2020 미국 메트스쿨 현황과 시사점, 국외현안보고서 2020년 제6호
엄창옥 외,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p
엄창옥 외, 2018, 청년의 귀환, 박영사
엄창환 외, 2018, 지역청년 인구이동원인 분석연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여태전, 2020,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대안학교 역량강화 연수 발표자료),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윤철경,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
오정아 외, 2020,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충남도청
유쓰망고, 2019, 빅뱅컨퍼런스 2019 탐방보고서
이덕나·최재은, 2021,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 정책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처
이태문, 2014, 대안학교가 귀촌형 공동체마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3 pp.131-136
이수광 외, 2008,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이혜숙 외, 2020,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방안, 서울연구원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p
이치열 외, 2020,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충북형 인턴십 교육과정 모델개발 연구,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정동일·박영민 2020, 대졸자 지역이동의 구조, 지역사회학 제22권 1호 pp5~40

정민철 외, 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00〉 확대 및 발전방안

조성철 외, 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조수진 외, 2015, 장소기반교육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
학회지 제23권 1호 pp1~17

충청남도, 2019,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 연구

하태욱, 2018,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국가위원회

행정자치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황여정,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외, 2018, 청소년 ‘일 경험’제도 운영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니시다 료스케·구도 게이, 2015, 무업사회, 펜타그램

마쓰나가 게이코, 2015, 로컬지향의 시대, 알에치코리아

엘리엇 레빈 2004, 학교를 넘어선 학교, 메트스쿨, 민들레

이-푸 투안,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 부록 금산간디학교 인턴십 교육과정

1) 인턴십 탐방(인터뷰)

(1) 인턴십 탐방의 목적

- 자기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현장 조사의 기회
- 대안적인 삶의 현장과 자료 찾기
- 인턴십 현장을 직접 방문, 기초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관계 맺기

(2) 인턴십 탐방의 목표

- 1) 인턴십 현장 자료조사
- 2) 인턴십 탐방 및 공유 발표회(모둠별 또는 개인별)
- 3) 인턴십 탐방을 위한 의뢰서 작성
- 4) 인턴십 현장 탐방 및 인터뷰
- 5) 인턴십 탐방 발표

(3) 주 1회 (회당 120분)

(4) 단계별 교육내용

단계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준 비 기	인턴십 소개	- 인턴십의 목적과 의미, 진행 과정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동기 점검, 개별면담
	인턴십 탐방 방향 설정	- 인턴십 탐방의 사전준비 점검지 작성 - 진로 적성검사 - 개별면담	
	삶의 현장 찾기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 현장 정보, 멘토 연락처 등 자료조사	
	외부 강의	- 졸업생, 선배, 지역활동가 등 인턴십에 대한 특강 - 분야 별(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등) 특강	
	인턴십 탐방 준비	- 인턴십 탐방 현장 선정 - 인턴십 탐방 계획서 작성 - 자기소개를 포함한 의뢰서 작성, 이메일 발송 - 자기소개, 예절, 교통, 숙소 등 탐방 시 필요한 사항 점검	

- 실행 - 기	- 인턴십 탐방 실행	- 인턴십 탐방 일지 작성 - 현장 인터뷰	-
- 평가 - 기	- 인턴십 탐방 마무리	-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 인턴십 탐방 - 결과 발표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 마무리 면담	-

(5) 주차별 수업내용

단 계	주차	교육주제	수업내용	교시의 역할
준 비 기	1	인턴십 탐방 과정 소개	- 목적과 의미, 진행 과정	개별면담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 사전 점검지를 통한 동기 부여도 측정	
			- 진로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2	인턴십 탐방 준비 1	- 나에게 인턴십이 필요한 이유?	
			- 어려운 점, 부족한 점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3	삶의 현장 찾기 1~4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4		- 인턴십 탐방(자료조사, 섭외, 인터뷰 등)	
	5		- 특강(졸업생, 선배, 재학생, 분야별)	
	6	인턴십 탐방 준비 1	- 인턴십 탐방 의뢰서 작성, 이메일 발송	
			- 인턴십 탐방 계획서 작성 - 인턴십 탐방 현장 정보 공유(개인별, 모둠별)	
	7	인턴십 탐방 준비 2	- 자기소개, 예의, 교통, 숙박 정보 등 점검	
			- 인턴십 탐방 계획서 확정 및 제출	
실 행 기	9	인턴십 탐방	- 인턴십 탐방 일지 작성 및 인터뷰	
	10			
	11			
	12			
- 평 - 가 - 기	13	- 인턴십 탐방 마무리	- 인턴십 탐방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 인턴십 탐방 발표1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
	14	- 인턴십 탐방 발표2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점검	-
		- 마무리 면담	- 인턴십 현장 구체화 하기	-

(6) 평가방법과 기준

- 1) 중간평가 : 인턴십 탐방 계획서 제출
- 2) 최종평가 : 인턴십 탐방 일지, 인터뷰 기록 및 결과 발표(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1회
- 3) 이수조건
 - 인턴십 탐방 일지 및 인터뷰 기록 작성
 - 인턴십 탐방 계획서 제출
 - 인턴십 탐방 결과 발표 1회(모둠별 또는 개인별)
 - * 탐방을 하고 온 후 인턴십1을 바로 진행할 경우 인턴십1 결과 발표로 대체
 - 교사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 미이수
 - 인턴십 탐방 진행 시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 시 미이수

(7) 인턴십 탐방 결과물

- 1) 인턴십 탐방 계획서
- 2) 인턴십 탐방 결과 발표 원고 및 ppt

2) 인턴십 1(80시간 이상)

(1) 인턴십1 선택조건 : 인턴십 탐방을 먼저 권한다.

(2) 인턴십1의 목적

- 자기탐색의 기회
- 대안적인 삶의 현장 경험
- 초보적인 단계의 사회와의 소통경험
- 인턴십 현장으로서의 네트워킹 및 현장 관리

(3) 인턴십1의 목표

- 1) 인턴십 진행시간 최소 80시간 이상
- 2) 인턴십 섭의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 3) 인턴십 일지 작성
- 4) 멘토 포함 현장 관계자 3인 이상 인터뷰
- 5) 인턴십 계획 발표
- 6) 인턴십 결과 발표

(4) 수업횟수 : 주 1회 (회당 120분)

(5) 단계별 교육내용

단계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준 비 기	인턴십1 소개	- 인턴십의 목적과 의미, 과정	동기 점검, 개별면담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삶의 현장 찾기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 필요시 인턴십 탐방(자료조사, 섭외, 인터뷰 등)	
	인턴십 준비	- 자기소개서 및 인턴십 계획서 작성법 - 현장 조사 및 섭외, 이메일 작성, 연락처 확정	
	인턴십 계획 발표	- 인턴십 계획서 확정 및 제출 - 인턴십 계획 발표	
	인턴십 실행 준비	- 일지와 인터뷰(카페) - 멘토 및 현장 관리 대응법, 성, 응대, 질의응답 - 사례 공유	
실 행 기	인턴십 실행	- 인턴십 카페에 일지 작성 - 멘토 및 관련자 3인 인터뷰	
	멘토 관계 맺기	- 핵심 질문 뽑기, 질문지 작성, 인터뷰 준비 - 멘토 평가서 받기	
평 가 기	인턴십 마무리	-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자기 평가서 작성	
	인턴십 결과 발표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 마무리 면담(자기 평가서, 멘토 평가서 비교)	

(6) 주차별 수업내용

단 계	주차	교육주제	수업내용	교사의 역할
준 비 기	1	인턴십1 교육과정 소개	- 목적과 의미, 진행 과정	개별면담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 사전 점검지를 통한 동기 부여도 측정	
			- 진로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2	인턴십 준비 1	- 나에게 인턴십이 필요한 이유?	
			- 어려운 점, 부족한 점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3	삶의 현장 찾기 1~4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4		- 인턴십 탐방(자료조사, 섭외, 인터뷰 등)	
	5		- 인턴십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 듣기(현장 멘토, 다른학교 사례, 선배, 인턴십 수행현장 등)	
	6	인턴십 준비 2	- 자기소개서 및 인턴십 계획서 작성법	
		인턴십 탐방 공유발표회	- 모둠별, 개인별 탐방 내용 공유 발표	
	7	인턴십 준비 3	- 현장 조사 및 섭외, 이메일 작성, 연락처 확보	
			- 인턴십 계획서 확정 및 제출	
		인턴십 계획 발표 1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8	인턴십 실행 준비	- 일지 쓰는 법(인턴십 카페), 인터뷰 하는 법	
			- 멘토 및 현장 관리 대응법, 성, 응대, 질의응답	
			- 인턴십 현장 진행 사례 공유	
		인턴십 계획 발표 2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실 행 기	9	인턴십 기간	- 인턴십 카페에 일지(글, 사진) 올리기	
	10		- 멘토 및 관련자 3인 인터뷰	
	11		- 멘토 평가서 작성	
	12		- 현장 점검 등	
평 가 기	13	인턴십 마무리	-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자기 평가서 작성	
		인턴십 결과 발표1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14	인턴십 결과 발표2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마무리 면담	- 멘토 평가서, 자기 평가서 비교	

(7) 평가방법과 기준

- 1) 중간평가 : 인턴십 계획서 제출 및 계획 발표(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1회
- 2) 최종평가 : 인턴십 일지, 인터뷰 기록 및 결과 발표(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1회, 멘토 평가서, 자기 평가서
- 3) 이수조건
 - 최소 80시간 이상
 - 일지 작성
 - 3인 인터뷰
 - 계획발표 1회
 - 결과 발표 1회
 - 코디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 미이수
 - 인턴십 현장에서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 시 미이수

(8) 인턴십1의 결과물

- 1) 계획 발표 원고 및 ppt
- 2) 결과 발표 원고 및 ppt
- 3) 일지 및 인터뷰 기록

3) 인턴십2(150시간 이상)

(1) 인턴십2 선택조건 : 인턴십 1 이수자

(2) 인턴십2의 목적

- 자기발견의 심화 단계
- 대안적인 삶의 현장 경험 및 문화 기획과 창조
- 현장 멘토를 통한 논문 설계, 전문적인 멘토링
- 대안적인 삶의 현장으로서의 적극적 네트워킹

(3) 인턴십 2의 목표

- 1) 인턴십 진행시간 최소 150시간 이상

- 2) 인턴십 섭외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 3) 인턴십 일지 작성
- 4) 멘토 포함 현장 관계자 3인 이상 인터뷰
- 5) 인턴십 계획 발표
- 6) 인턴십 결과 발표(졸업논문 계획발표)

(4) 수업횟수 : 주 1회 (회당 120분)

(5) 단계별 교육내용

단계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준 비 기	인턴십2 교육과정 소개	- 인턴십의 목적과 의미, 진행 과정	동기 점검, 개별면담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삶의 현장 찾기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 인턴십 탐방(자료조사, 섭외, 인터뷰 등)	
	인턴십 준비	- 자기소개서 및 인턴십 계획서 작성법 - 현장 조사 및 섭외, 이메일 작성, 연락처 확정	
	인턴십 계획 발표	- 인턴십 계획서 확정 및 제출 - 인턴십 계획 발표	
실 행 기	인턴십 실행	- 인턴십 카페에 일지 작성 - 멘토 및 관련자 3인 인터뷰	
	멘토 관계 맺기	- 핵심 질문 뽑아내기, 질문지 작성, 인터뷰 준비 - 멘토 평가서 받기	
평 가 기	인턴십 마무리	-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자기 평가서 작성	
	인턴십 결과 발표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 마무리 면담(자기 평가서, 멘토 평가서 비교)	

(6) 주차별 수업내용

단 계	주차	교육주제	수업내용	교사의 역할
준 비 기	1	인턴십2 교육과정 소개	- 목적과 의미, 진행 과정	
			- 준비 수업 기획 및 설계	
			- 사전 점검지를 통한 동기 부여도 측정	개별면담
			- 진로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2	인턴십 준비 1	- 나에게 인턴십이 필요한 이유?	
			- 어려운 점, 부족한 점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3	삶의 현장 찾기 1~4	- 기존의 인턴십 현장 소개 및 리스트업	
	4		- 인턴십 탐방(자료조사, 섭외, 인터뷰 등)	
	5		- 인턴십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 듣기(현장 멘토, 다른학교 사례, 선배, 인턴십 수행현장 등)	
	6	인턴십 준비 2	- 자기소개서 및 인턴십 계획서 작성법	
		인턴십 탐방 공유발표회	- 모둠별, 개인별 탐방 내용 공유 발표	
	7	인턴십 준비 3	- 현장 조사 및 섭외, 이메일 작성, 연락처 확보	
			- 인턴십 계획서 확정 및 제출	
		인턴십 계획 발표 1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8	인턴십 실행 준비	- 일지 쓰는 법(인턴십 카페), 인터뷰 하는 법	
			- 멘토 및 현장 관리 대응법, 성, 응대, 질의응답	
			- 인턴십 현장 진행 사례 공유	
		인턴십 계획 발표 2 (졸업논문 계획발표)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실 행 기	9	인턴십 기간	- 인턴십 카페에 일지(글, 사진) 올리기	
	10		- 멘토 및 관련자 3인 인터뷰	
	11		- 멘토 평가서 작성	
	12		- 현장 점검 등	
평 가 기	13	인턴십 마무리	- 일지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자기 평가서 작성	
		인턴십 결과 발표1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14	인턴십 결과 발표2	- 발표 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마무리 면담	- 멘토 평가서, 자기 평가서 비교	

7. 평가방법과 기준

- 1) 중간평가 : 인턴십 계획서 제출 및 계획 발표(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1회
- 2) 기말평가 : 인턴십 일지, 인터뷰 기록 및 결과 발표(원고 및 프리젠테이션) 1회,
멘토 평가서, 자기 평가서
- 3) 이수조건
 - 최소 150시간 이상
 - 일지 작성
 - 3인 인터뷰
 - 계획발표 1회
 - 결과 발표(논문계획발표) 1회
 - 교사와 협의없이 진행한 경우 미이수
 - 인턴십 현장에서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 시 미이수

8. 결과물

- 1) 계획 발표 원고 및 ppt
- 2) 결과 발표 원고 및 ppt
- 3) 일지 및 인터뷰 기록

■ 집 필 자 ■

연구책임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진	목소리	충남연구원 연구원
	박성연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교사

전략연구 2022-15·충청남도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 인턴십 지원방안 연구

글쓴이 · 박춘섭 · 목소리 · 박성연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24-8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24-8